

豆滿江地域開發計劃 推進現況

1994. 9.

책을 내면서

남북한을 비롯하여 중국·러시아·몽골 등이 참여하는 UNDP 주관의 「두만강 지역개발계획(TRADP)」이 추진되면서 동북아시아 국가들간의 상호 협조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만강지역개발 필요성은 원래 동북아시아 문제를 주로 연구하는 학자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1991년 7월 UNDP에 의해 동북아시아개발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TRADP가 선정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다자간 사업으로 발전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두만강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남다른 애환과 정서가 깃들어 있는 곳일 뿐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남북대결의 냉전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남북한이 TRADP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원은 그동안 UNDP 주관하에 개최된 정부간 공식회의를 중심으로 각종 회의의 목적·토의내용·회의결과 등을 요약하여 관심있는 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TRADP의 진척 현황과 앞으로의 전개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에서는 각종 자료를 남북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수록하였으며, 아울러 두만강지역개발에 관한 민간차원의 주요 회의 내용과 사계 전문가의 글도 함께 실었습니다.

다만 책자의 지면 제약상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록하지 못한 점과 두만강유역 인접국가들간에 쌍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사업들의 진행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미흡하지만 두만강지역개발에 관심있는 여러분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994. 9

통일원 교류협력국

차 례

I.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개요	7
1. 추진배경과 사업목표 / 7	
2. 개발대상지역 및 추진단계 / 8	
3. 업무 추진체계 / 10	
4. 추진개황 / 11	
5. TRADP 참가국과 참여입장 / 17	
II. TRADP 기본구상의 태동	27
1. 제1차 동북아 경제기술발전 학술회의 / 27	
2. UNDP의 동북아지역 협력사업 구상 / 29	
3. UNDP 몽골회의 / 30	
4. 제2차 동북아 경제기술발전 학술회의 / 34	
5. UNDP 동북아 조정관회의 / 38	
III. TRADP 계획관리위원회(PMC) 및 실무작업반(WG) 회의	60
1. 제1차 PMC 회의 / 60	
2. 북경 실무작업반(WG) 회의 / 65	
3. 블라디보스톡 국별 전문가 워크숍 / 74	
4. 제2차 PMC 회의 / 81	
5. 제3차 PMC 및 WG 회의 / 106	
6. 뉴욕 비공식 실무회의 / 115	
7. 제4차 PMC 및 WG 회의 / 120	

IV. 분야별 전문가 회의123

1. 통신분야 전문가 회의 / 124
2. 법·금융·제도분야 전문가 회의 / 139
3. 자원·산업·환경분야 전문가 회의 / 146
4. 운송분야 전문가 회의 / 156
5. 두만강지역 현지조사 및 지역개발전략(RDS) 워크숍 / 159
6. 환경 워크숍 / 163

V. 민간차원의 조사연구 활동168

1. 평양 국제회의 / 168
2. 블라디보스톡 동북아경제포럼 / 187
3. 용평 동북아경제포럼 / 190
4. 기타 민간차원의 국제학술회의 / 194

부록 : TRADP와 한반도 통일196

- ◎ 두만강지역개발계획과 한반도 통일문제 / 197
 - 김태홍(동국대 무역학과 교수) -

- ◎ 두만강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몇가지 제언 / 211
 - 박성상(동아시아경제연구원장, 전 한국은행 총재) -

참고자료 목차

1. TRADP 사업 추진일지	20
2. 두만강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개발잠재력	24
3. TRADP 개발대상지역도	26
4. '91. 7 UNDP 몽골회의에서 북측이 최초로 제안한 북한지역내 「경제무역지구 개발계획」 발표내용(요지)	33
5. '91. 10 UNDP 동북아조정관회의에 제출된 UNDP 기술조사단의 「두만강지역개발 조사보고서」(요약)	43
6. '92. 4 북경 실무작업반회의에 제출·논의된 「UNDP의 사업계획서, 작업계획 등의 내용」(요약)	70
7. '92. 7 UNDP 자문단의 참여국 방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제2차 PMC에 보고된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 관한 UNDP의 제안내용」 (요약)	85
8. 3차 PMC회의시 잠정 확정 한 ○ 「두만강지역개발에 관한 협정」(안)	111
○ 「두만강지역개발회사(TRADCO) 설립 및 정부간 조정· 협의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안)	
9. '94. 1 뉴욕 비공식 실무회의시 UNDP가 제시한 「두만강지역 투자 우선산업」(UNIDO 추천)	119
10. '93. 1 제1차 통신전문가회의시 제시된 UNDP의 「두만강지역 통신개발 마스터플랜(안)」 요지	128
11.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	178

I.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개요

1. 추진배경과 사업목표

가. 추진배경

- 동서냉전의 대결구도 종식과 더불어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인해 상대적으로 협력이 저조하였던 동북아시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역내 국가간 협력방안이 1990년대 들어와서부터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 그중에서도 특히 두만강지역개발을 통한 동북아시아 발전방안이 학계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었는 바,
 - 두만강지역 개발구상은 90년 7월 미국 하와이 동서문화연구센터(EWC; East-West Center)와 중국 길림성 과학기술위원회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I; Asian-Pacific Institute of China) 공동 주최로 중국 장춘에서 열린 「제1차 동북아 경제기술발전 학술회의(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라는 민간 국제학술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 제기되었음.
- 이후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은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관심권에 들어가 91년 3월 석탄사용 및 대기오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용, 온대지역 식량증산과 함께 UNDP의 4대 동북아시아 협력사업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음.
- 이어 91년 7월 UNDP 주관하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정부간 국제회의인 「동북아 소지역 계획회의」(Northeast Asia Subregional Programme Meeting)에서는 두만강지역개발을 UNDP 제5차 계획기간('92-'96)의 동북아시아 협력사업중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차원의 협의 대상이 됨.
- 한편, UNDP는 울란바토르 회의의 합의에 따라 91년 8월 20일부터 약 1개월간 두만강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기술조사단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Tumen River Area Development; Mission Report)를 작성, 91년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정부원조조정관회의(MAC; Meeting of Government Aid Coordinators)에 보고하였으며

— 동 회의에서는 두만강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구성에 합의함으로써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정부차원 협의체인 계획관리위원회(PMC ; Programme Management Committee)를 중심으로 본격 추진하게 됨.

나. 사업목표

○ 장기목표

— 두만강지역을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 해운, 운송 중심지 및 가공·제조업 중심지로 발전시켜 동 지역의 잠재력 실현을 도모하는 동시에 이 지역의 개발을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의 발전적 계기로 이용

○ 단기목표

— 역내의 관세법 조정 등을 통해 관련국간의 교역 및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협력기회를 창출·지원

2. 개발대상지역 및 추진단계

가. 개발대상지역

※ UNDP 기술조사단의 보고서를 기초로 제1차 PMC 회의(서울)에서 본격 논의된 개발대상지역은 아래와 같음.

○ TREZ(Tumen River Economic Zone)

— 두만강경제지대

— 두만강 하구지역의 3국간 접경지역인 중국의 훈춘-방천, 북한의 나진-선봉, 러시아의 포시에트(자루비노)를 잇는 약 1천km²의 소삼각지역

○ TRENDA(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Area)

- 두만강경제개발지역
- 두만강을 중심으로 북한의 청진, 중국의 연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약 1만km²의 대삼각지역
 - * 최근 러시아의 나호트카, 보스토치니지역을 포함시켜 TREDA의 지역범위를 확장

○ NEARDA(North East Asia Regional Development Area)

- 동북아지역개발지구
- 한반도 전체, 몽골, 중국의 흑룡강성, 길림성 및 요령성, 그리고 전극동 러시아를 포함
- TREZ 및 TREDA의 개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배후지원지역(hinterland)

나. 추진단계

※ 사업계획 확정을 위한 투자전단계(pre-investment phase)와 사업의 본격 시행단계(investment implementation phase)로 설정되어 있으며 투자전단계는 다음 4단계로 구분·추진중임.

○ 1단계 : 현황파악 및 개발잠재력 평가

- 보다 넓은 동북아지역(NEARDA)내 국제경제협력이라는 기초하에서 두만강지역개발을 위한 경제, 제도, 사회적 현황파악과 개발잠재력에 대한 평가

○ 2단계 : 개발대안 수립 및 최적안의 선택

- 실현가능한 여러 대안을 작성하고 대안들의 평가를 위한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최적안을 제시

○ 3단계 : 종합계획안의 작성

- 2단계에서 선택된 최적안을 세부계획으로 발전시키고 실행 가능성 분석을 통해 종합투자 및 정책계획으로 구체화

○ 4단계 : 최종 마무리

- 종합계획안(Master Plan)을 최종적으로 작성하고 참여국간에 국제 협력에 관한 협정문을 체결한 후 TRADP 추진체제를 현재의 계획 관리위원회(PMC) 체제로부터 협정에 의해 설치되는 5개국 정부간 위원회(Commission)로 이전

3. 업무 추진체제

○ TRADP 사업은 UNDP 본부(미국 뉴욕소재) 산하에 설치된 TRADP 전담팀(프로그램 매니저: John J. Whalen) 주관으로 회원국들의 협조 하에 추진되고 있음.

— 회원국들간의 동 사업 협의 및 정책결정 기구로는

- 현재 TRADP 관련 의사 결정기구로 UNDP 및 각국대표 3명 내외로 구성·운영되는 계획관리위원회(PMC: Programme Management Committee) 회의
- 각국 국별 전문가팀 책임자(National Team Leader) 및 실무작업반원으로 구성·운영되는 실무작업반(WG: Working Group) 회의
- 법률·제도·금융, 자원·산업·환경, 운송, 통신, 지역개발전략팀(RDS) 등 분야별로 운영되는 전문가그룹 회의 등이 있음.

○ 우리나라의 TRADP 업무는 경제기획원(대외경제국) 주관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통일원(교류협력국), 외무부(국제경제국) 등 정부의 관련부처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기관, 국제관계 전문 변호사 등이 참가하고 있음.

— 현재, 우리 정부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과 관련한 관계행정기관 간 협조 및 정책결정을 위해 국가별 TRADP 추진기구인 「NT(National Team)」, 「TRADP 대책반」 등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 민간차원의 전문가 집단인 「TRADP 민간연구협의회」를 중심으로 관련분야별 연구가 진행중임.

4. 추진개황

가. 기본구상의 태동

- 제1차 동북아 경제기술발전 학술회의(1990. 7. 16-18, 중국 장춘)
 - 두만강지역개발 필요성 최초 제기
- UNDP의 동북아지역 협력사업 참여 문의(1991. 3)
 - 두만강지역개발, 대기오염, 에너지 사용, 온대지역 식량증산 사업 등
 - 우리측은 4대 동북아지역 협력사업중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의 우선 추진 의사 통보
- UNDP 몽골회의(1991. 7. 6-7, 몽골 울란바토르)
 - UNDP가 1992-96년간 시행할 동북아지역 4개 협력사업중 두만강 지역개발계획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합의
 - * 북한은 나진·선봉·셋별지역 140km² 규모의 「경제무역지구」 개방 계획 발표
- 제2차 동북아 경제기술발전 학술회의(1991. 8. 29-31, 중국 장춘)
 - 중국, 북한, 러시아는 각기 훈춘, 선봉, 블라디보스톡 중심의 경제특구 설치계획 발표
 - * UNDP의 공동주관 참가로 TRADP는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간 논의로 전환
- UNDP 기술조사단 두만강지역 현지조사(1991. 8. 20-9. 21)
 - M. Miller 등 3명
- UNDP 동북아조정관회의(1991. 10. 18-21, 북한 평양)
 - UNDP 조사단의 두만강지역 현지조사 보고서를 검토
 - 관련 5개국(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간 정부차원 협의체인 PMC 및 3개의 실무그룹(WG) 구성, National Team 설치 등 Action Plan 합의

* 동 UNDP 조사단 보고서 요지

- 두만강지역의 높은 개발 잠재력 지적
- 3개 개발방안(공동개발 또는 독자개발) 제시
- 2개 개발대상지역(대삼각지역, 소삼각지역) 제시
- 향후 20년간 300억불 소요 추정

나. TRADP 계획관리위원회(PMC) 및 실무작업반(WG) 회의

- 제1차 계획관리위원회(PMC) 회의(1992. 2. 27-28, 서울)
 - 종전 UNDP가 구상, 제안한 3개의 실무그룹(WG) 대신, 효율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해 National Team 중심 운영 합의
 - 2차 PMC 회의까지 개발방안, 대상지역,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
- 북경 실무작업반(WG) 회의(1992. 4. 28-30, 중국 북경)
 - 개발대상지역 및 개발대안에 대한 토의
 - 금융조달협의반(FCG) 구성에 합의하고 참가국별 대표 2명 선정키로 함.
 - 사업계획서와 작업계획에 대한 검토 및 재작성 배포키로 합의
- 블라디보스톡 국별 전문가 워크숍(1992. 7. 28-8. 4,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 UNDP의 개발방식에 대한 각국 의견교환
 - 동북아지역개발지구(NEARDA)를 중심으로 한 장·단기 무역증진 방안 논의
 - 인프라와 관련 UNDP와 접경 3국의 개발구상 설명
 - * 동 회의는 제2차 PMC 회의 제출 보고서 검토를 위한 모임으로 「법률·재정반」, 「무역반」, 「인프라반」 등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
- 제2차 PMC 회의(1992. 10. 9-11, 중국 북경)
 - TRADP 추진을 위한 4대원칙 합의(주권존중, 토지임차, 국제관리,

투자유치)

- 2원화된 정부간 조정기구 설립 합의(5국 정부간 조정위 및 3개 유역국간 조정위, 관리회사)
- 두만강개발 사업계획서에 각국 PMC 수석대표 서명(92-93년간 예산 450만불 확정)
- 실무그룹(WG)(1993. 5. 5-7) 및 제3차 PMC 회의(1993. 5. 9-10, 북한 평양)
 - 두만강지역 개발을 위한 2개의 국제협정(안) 채택
 - 두만강지역개발회사 및 정부간 조정협의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안
 - 두만강지역개발에 관한 협정안
 - * PMC 5개국은 상기 협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93. 6월말까지 UNDP에 제출하고, 필요시 실무회의를 거쳐 추후 정부간 고위급회의에서 동 협정 서명 예정
- WG회의 결과
 - 순수 상업목적의 두만강지역개발회사(TRAD Co.) 설립에 의견 일치
 - UNDP의 통신분야 마스터플랜 수용 및 특별작업반 설치 합의
 - 자원·산업·환경분야에 대한 '93. 3 헬싱키회의 결과 수용
 - 항만, 공항 등을 제외한 인프라 분야의 '93.4 북경회의 결과 수용
- 뉴욕 비공식 실무회의(1994. 1. 31-2. 2, 미국 뉴욕)
 - TRADP 추진실적 평가 및 개발전략에 대한 재검토
 - 개발기구 정립 등 국제협정문 의견 조정
- 실무그룹(WG)(1994. 7. 11-13) 및 제4차 PMC 회의(1994. 7. 14-15, 러시아 모스크바)
 - TRADP 5개국간 동북아위원회(COMMISSION) 설립·운영에 관한

협정문 합의

- 환경보전을 위한 5국간 환경원칙 양해각서(MOU) 잠정 합의
- 지역개발의 마스터플랜식 접근론에서 점진적 조화방식으로 전환, TRADP의 현실성 확보

다. 분야별 전문가 회의

통신분야

- 제1차 통신전문가 회의(1993. 1. 28-30, 서울)
 - UNDP작성 통신개발 마스터플랜에 관한 각국의 입장 및 제안('93. 2월까지 국별 검토의견 제출)
 - 서울-평양 직통회선 구성문제는 북한의 반대로 백지화
- 제2차 통신 전문가 회의(1993. 4. 10-11, 중국 훈춘)
 -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접경 3국의 통신망 구축문제 논의
- 제3차 통신전문가 회의(1993. 9. 6-8,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 기술분야 마스터플랜 및 단기 시행계획 검토
 - 규제분야 및 재정계획 협의
 - 통신규제기관의 Commission 산하 설치 및 TRAD Co.의 자회사 형태로 두만강통신개발회사(TREDA TO) 설립 논의

법·금융·제도분야

- 제1차 법·금융·제도 전문가 회의(1993. 2. 22-24, 미국 뉴욕)
 - 기구 구성문제 및 토지임차(land lease) 문제 협의
 - 2개의 정부간 기구 기능과 역할배분은 UNDP의 방안 마련후 재 검토
 - 북한은 당초 주권과 토지임차권과의 관계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

였으나, 추후 토지임차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파악

— 재정조달 문제에 대해 UNDP측의 구체적 전략 수립 예정

○ 제2차 법·금융·제도 전문가 회의(1993. 9. 20-24, 중국 북경)

— 제3차 PMC 회의시 잠정 채택된 2개의 국제협정안을 3개로 분리·검토

· 두만강지역개발회사 설립에 관한 협정

· 두만강지역정부간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정

· 두만강지역위원회 설치와 두만강지역개발회사에 대한 토지임대에 관한 협정

* 상기 협정안은 추후 개최될 전문가 회의시 최종 심의·확정 예정

— 두만강지역개발회사 주식배분 및 토지·시설 임대 등 토의 (UNDP는 4개의 주식 배분안 제시)

— 두만강지역개발회사 정관초안 검토

자원·산업·환경분야

○ 제1차 자원·산업·환경 전문가 회의(1993. 3. 16-19, 핀란드 헬싱키)

— 두만강지역 자원개발 방안 및 Core City 건설 방안, 산업개발 전략 등 논의

○ 제2차 자원·산업·환경 전문가 회의(1993. 11. 8-10, 서울)

— 두만강지역 각국의 산업·자원 현황과 산업발전 방향 보고

— 두만강지역 국가간 생산요소 비교우위 파악 및 상호보완 등 산업발전 협력방안 논의

— 두만강지역의 경공업, 전력, 인프라부문 특별 용역과제 중간보고

운송분야

- 제1차 운송 전문가 회의(1993. 3. 30-4. 2, 중국 북경)
 - 각국의 운송분야 개발계획 설명 및 항만, 공항, 도시간 운송 협력 체제 협의
 - 철도, 고속도로의 각국별 우선순위 결정

지역개발전략분야

- 두만강 지역 현지조사(1994. 3. 13-21) 및 지역개발전략 워크숍(1994. 3. 28-30, 중국 북경)
 - 두만강 지역개발전략(RDS) 수립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
 - * 북한의 나진·선봉지역 현지조사는 북측의 입국거부로 무산
 - 개발지역내 각종 제도적 장애 제거방안 등 TRADP의 지역개발전략 협의

환경분야

- 환경 워크숍(1994. 4. 21-22, 중국 북경)
 - 두만강지역의 환경전략 수립을 위한 UNDP측의 환경연구 추진 경과 보고 및 각국의 의견수렴
 - 실태조사 및 워크숍 결과를 반영하여 TRADP 환경전략 초안을 재작성, 제4차 PMC회의 이전에 각국에 통보

라. 민간차원의 조사·연구

- 평양국제회의(1992. 4. 28-5. 3, 북한 평양)
 -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에 관한 구체적 내용 제시

- 나진, 선봉, 두만강, 청진지역 시찰
- 블라디보스톡 동북아경제포럼(1992. 8. 25-27,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 두만강지역개발과 관련 경제특구 설치 등 자국내 입장 강조
 - 통신, 에너지, 교통, 어로, 환경, 노동문제 등 부문별 협력방안 발표 및 논의
- 용평 동북아경제포럼(1993. 9. 26-28, 한국 용평)
 -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을 위한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방안 검토
 - 동북아지역의 지방정부간 경제협력방안

5. TRADP 참가국과 참여입장

가. TRADP 참가국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 회원국 : 중국, 북한, 러시아 등 두만강지역 접경 3국과 한국, 몽골 등 비접경국 포함 5개국
 - * 러시아는 당초 옵서버국으로 참여하였으나 제2차 PMC회의 이후 정회원국이 됨.
- 옵서버국 : 핀란드, 일본

나. 참여입장

접경 3개국의 입장

- 중국 : 적극적 참여
 - 동북부지역 개발의 핵심인 동해로의 출해권을 확보하면서 변경무역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 추구

- 대련을 통한 한국, 일본으로의 수송로보다 약 1,000km를 단축
- 접경국중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UNDP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관측되며, 필요한 경우 북한과 러시아를 경쟁시키면서까지 적극 참여 입장
- 북한 : 제한적이거나 적극적 참여
 - 나진·선봉지역을 대외개방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수출산업의 진흥과 항만 수수료 등의 수입을 통한 외자획득을 목표
 - 체제수호를 위하여 독자개발 방식을 고집하다가, 투자재원 확보를 기대하면서 공동개발 방식을 제한적으로 수용
- 러시아 : 소극적 입장
 - 두만강유역 부근인 핫산지역의 철도망 건설과 포시에트, 자루비노항의 확충을 통한 중계무역지대 개발에 초점
 - 자연보호지구인 두만강 연안의 핫산지역 개발보다는 개발 여건이 확보된 블라디보스톡과 나호트카 지역에 보다 많은 관심을 표명

비접경국의 입장

- 한국 : 경제적 및 비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참여
 - 그간의 축적된 개발경험을 공유하고 필요한 정보획득을 통하여 장래 동북아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
 - UNDP의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 참여(5백만불 용역사업도 추진)
 - 배후에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한인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두만강지역의 개발을 통해 통일 이후 경제협력 확대의 교두보 역할을 기대
 - 한인동포 : 중국 동북 3성 180만, 연해주 5만명 거주
 - 두만강 하구와 시베리아를 잇는 운송망이 구축되면 유럽으로의 경

제성 있는 운송로 확보가 가능

• 현행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단축과 중국·몽골로의 화물운송 용이

— 북한 유일의 개방 시범지역인 나진·선봉지역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개방 확산 유도 및 장차 통일비용 감축도 기대

○ 몽골 : 적극적 참여에 한계

— 구소련 의존에서 벗어나 두만강 하구와의 철도연계, 동해연안의 항구 이용 등을 목적으로 참여

— 가장 가난한 주변국으로서 적극적 참여에 한계가 있어 대부분 우리나라의 입장을 추종

○ 일본 : 적극적 개입 자제

— PMC 회의에 옵서버로 참여는 하고 있지만 자국에 대한 투자자금 지원 기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망적 자세 견지

— 전망이 불투명한 TRADP라는 다자간 협력사업 보다는 개별적 사업에 대한 쌍무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실익추구를 도모

• 훈춘-자루비노 철도건설 사업과 항만확충 사업에 5천만불 융자 계획

<참고자료 1>

TRADP 사업 추진일지

일 자	회 의 명 칭	개최장소	주요 결정사항 및 계획
90. 7.16 ~18	제1차 동북아경제기술 발전 학술회의	중국 장춘	• 두만강지역개발 필요성 최초 제기
91. 3	UNDP	UNDP 본부	• 동북아지역 협력사업 참여 문의: 두만강지역 개발, 대기 오염, 에너지 사용, 온대지역 식량증산 사업
91. 7. 6	UNDP 몽골회의	몽 골 울란바토르	• 두만강지역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결정 * 북한의「경제무역지구」 개방계획 발표
91. 8.29 ~31	제2차 동북아경제기술 발전 학술회의	중국 장춘	• 별도의 각국별 경제특구설 치 계획 발표 * 동 회의의 UNDP 공동주 관으로 TRADP 사업의 정부간 논의로의 전환
91. 8.20 ~9.21	UNDP 기술조사단 두만강지역 현지조사		
91.10.18 ~21	UNDP 동북아 조정관 회의	북한 평양	• PMC 및 WG, NT 구성 등 정부차원 협의체 구성 결 정 • UNDP 조사단 보고서 검토

일 자	회 의 명 칭	개최장소	주요 결정사항 및 계획
92. 2.27 ~28	제1차 PMC 회의	한국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업의 NT 중심 운영 합의 • 개발방안, 대상지역, 재원 확보방안 검토
92. 4.28 ~30	TRADP 실무작업반 (WG) 회의	중국 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대상지역 및 대안토의 • 금융조달협의반(FCG) 구성 합의
92. 4.28 ~30	평양 국제회의	북한 평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에 관한 구체적 내용 제시 • 동 지역 시찰
92. 7.28 ~8. 4	TRADP 국별 전문가 워크숍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북경 PMC 제출보고서 검토를 위한 부문별 (법률·재정, 무역, 인프라) 토의
92. 8.25 ~27	블라디보스톡 동북아 경제포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국별 경제특구 설치계획 등 기존 입장발표 • 통신, 교통등 부문별 협력 방안 발표
92.10. 9 ~11	제2차 PMC 회의	중국 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DP 추진관련 4대원칙 합의 • 2원화된 정부간 조정기구 설립 합의
93. 1.29 ~30	제1차 통신전문가회의	한국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개발 마스터플랜에 관한 각국의 입장 및 제안
93. 2.22 ~24	제1차 법·금융·제도 전문가 회의	미국 뉴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관리기구 구성 및 토지임차 문제 협의 • 재원조달 방안 검토

일 자	회 의 명 칭	개최장소	주요 결정사항 및 계획
93. 3.16 ~19	제1차 자원·산업·환경 전문가 회의	핀란드 헬싱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개발방안, 산업개발 전략 논의 • 환경분야 기본원칙 잠정 초안 작성
93. 3.30 ~4. 2	제1차 운송전문가회의	중국 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분야 개발계획 및 우선순위 검토
93. 4.10 ~11	제2차 통신전문가회의	중국 훈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접경 3국의 통신망 구축문제 논의
93. 5. 5 ~7 5. 9~10	WG 회의 제3차 PMC 회의	북한 평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만강지역 개발을 위한 2개의 국제협정(안) 채택 • 통신, 자원, 인프라 등 분야별 협의
93. 9. 6 ~8	제3차 통신전문가회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터플랜 및 단기 시행 계획 검토 • 통신규제기관 및 두만강 통신개발회사(TREDA TO)설립 논의
93. 9.20 ~24	제2차 법·금융·제도 전문가 회의	중국 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정안의 수정 검토 (2개 → 3개) • 두만강지역개발회사 정관 초안 검토 및 주식배분·토지·시설임대 등 논의
93. 9.26 ~28	용평 동북아경제포럼	한국 용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개발은행 설립방안 • 동북아지역 지방정부간 경제협력방안

일 자	회 의 명 칭	개최장소	주요 결정사항 및 계획
93.11. 8 ~10	제2차 자원·산업·환경 전문가 회의	한국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의 산업·자원 현황과 산업발전 협력방향 보고 • 특별용역과제 중간보고
94. 1.31 ~2. 2	뉴욕 비공식 회의	미국 뉴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DP 추진실적 평가 및 전략 수정 • 개발기구 정립 등 국제협정문 의견조정
94. 3.13 ~21 3.28~30	두만강지역 현지조사 지역개발전략 워크숍	중국 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만강 지역개발전략(RDS) 수립을 위한 현지조사 및 국별 협의
94. 4.21 ~22	환경 워크숍	중국 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연구 추진경과 보고 • 환경전략 수립을 위한 각국 의견수렴
94. 7.11 ~13 7.14~15	WG회의 제4차 PMC회의	러시아 모스크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국간 위원회 설립·운영 협정문 합의 • 환경양해각서 잠정 합의 • 지역개발의 점진적 조화방식으로 전환

〈참고자료 2〉

두만강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개발잠재력

1) 개요

- 백두산에서 시원하여 중국 길림성과 북한의 국경 및 러시아 연해주를 접하여 흐르는 총길이 521km, 유역면적 10,513km²의 국제하천
 - 하구 15km는 북한과 러시아의 연해주 접경
- 기후 : 동계 혹한 기후로 연간 강우량은 500-700mm
(12월 ~ 4월간은 두만강 결빙)

2) 역사적 배경

- 1920~30년대 : 중국은 두만강을 통해 동해연안의 부산, 원산, 니이가타, 나카사키 등과 교역 활발(1천톤 이상의 선박 왕래)
- 제2차 세계대전중 하구 봉쇄
- 이후 한국전쟁, 중·소관계의 악화로 사실상 두만강을 통한 해운·교역은 폐쇄
- 1989년 중·소 국교정상화
 - 고르바초프의 중국 방문으로 중·소 국교가 정상화되고, 국경교섭이 시작된 바, 소련측은 중국의 두만강하구 출해 항행권 인정
- 현재 : 두만강에 토사가 쌓여 300톤이하 규모의 선박만 통행 가능

3) 지리적 이점

- 두만강 항행시
 - 중국에서 러시아 극동지역 각 항구까지 최단거리로 운송 가능
 - 중국 내륙지방과 북한의 나진, 청진, 한국의 동해안 공업지대 및 부산, 일본의 니이가타, 오타루, 아키다 등과 교역 가능

○ 두만강지역 교통망 정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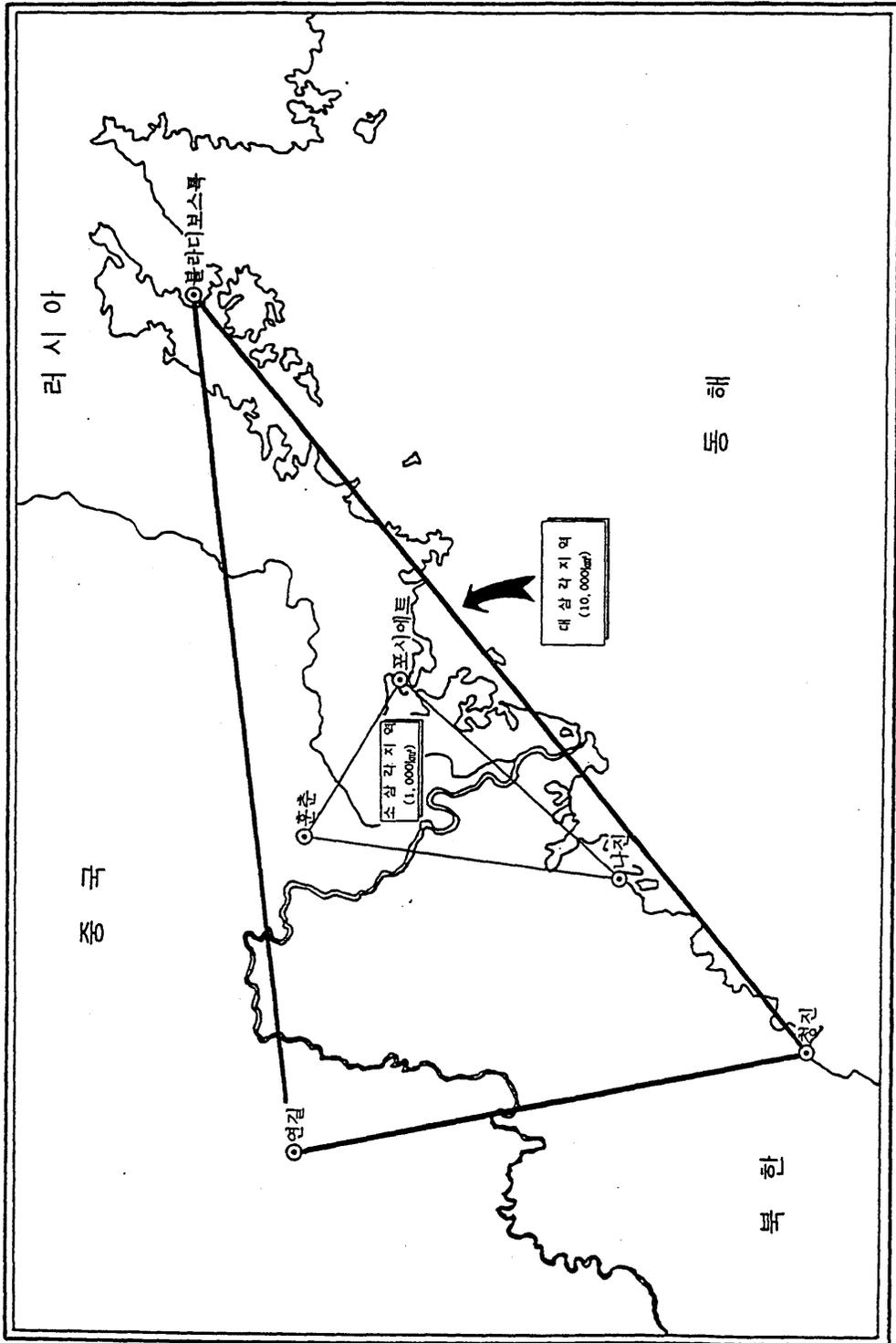
- 일본과 한반도의 동해안에서 시베리아 철도 경유로 유럽에 이르는 최단 거리 확보 가능
(대련 경유시보다 1,400km, 블라디보스톡·나호트카 경유에 비해 1,000km 단축 가능)

4) 개발잠재력

- 두만강지역은 노동력 뿐만아니라 석탄, 목재, 농산물 등 자원이 풍부한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연해주 및 북한의 동북부 등 3개국의 국경이 접해 있는 지리적 요충지임.
 - 중국 길림성 및 흑룡강성의 주요시장들과 러시아, 북한 및 몽골로부터의 노동 및 천연자원과 같은 유리한 공급요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
 - 인접 한국, 일본과의 자본·기술협력을 통한 산업발전과 대규모 시장의 접근이 용이
 - 유럽지역과는 대륙횡단 철도(TSR)를 통한 효과적인 연계수송이 가능하며 항만을 통한 해상운송 및 중계의 중심지(hub)로 발전 가능한 전략적 위치
- 동 지역은 위와 같이 풍부한 인적·물적자원과 중계무역, 관련 산업개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상호 보완적 요소들을 기반으로 개발될 경우 향후 홍콩이나 싱가포르, 로테르담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운송거점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참고자료 3>

TRADP 개발대상지역도



II. TRADP 기본구상의 태동

1. 제1차 동북아 경제기술발전 학술회의

가. 회의 개요

- 기 간 : '90. 7. 16 ~ 7. 18
- 장 소 : 중국 장춘
- 목 적 :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지역, 중국의 동북 3성(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 외몽골, 한국, 북한, 일본으로 구성되는 동북아시아 연안지역의 경제개발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 토의 및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 모색
- 주 최(공동)
 - 중국 아시아·태평양연구소
(Asian-Pacific Institute of China; API)
 - 미국 하와이 동서문화연구센터(East-West Center; EWC)
- 주 제 : 동북아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 참가범위 :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몽골 등 7개국 60여명

남·북한 참가자 명단

한국 (6명)	북한 (3명)
박성상(KIET 원장)	김상기(국가과학기술위원회 대외
이경태(" 선임연구위원)	과학기술교류국 서기장)
조이제(EWC 부소장)	백인수(지질학연구학회 고생물학
정성철(KIST 연구위원)	연구소장)
허형택(한국해양연구소 연구위원)	리죽남(자원개발부 중앙광물자원
임정덕(부산대학교 교수)	조사단 기사장)

나. 발표·토론 요지

- 참가국 대표들은 동북아시아 지역이 현재까지는 국제적 긴장과 갈등의 무대로서 경제적 상호교류는 미미하였으나 풍부한 자연자원과 노동력을 갖추고 있고 한국과 일본의 자본·기술이 자원개발에 투입되면 앞으로 경제적 번영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 중국측은 동북아경제권 구상과 관련하여 훈춘시를 홍콩에 버금가는 개방도시로 만든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두만강지역 개발안을 제시하였는 바, 그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두만강하류의 북한·러시아의 접경지역(약 15km)에 운하를 건설, 동해와 연결되는 해상운송로 확보(방천을 국제무역항으로 조성)
 - 훈춘을 경유한 중국내륙과 유럽연결 철도를 주요 운송수단으로 개발·이용
 - 두만강유역 3국 접경지역에 경제특구를 건설하여 한국과 일본의 자본·기술 제공으로 관련국들의 천연자원 개발 및 소비재 품목 생산
- 러시아측은 기존 항구의 증·개축을 통한 개발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두만강 인접지역인 연해주 지역보다는 이미 사회간접시설이 충분히 건설되어 있는 블라디보스톡,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등 기존 항구를 이용한 지역개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극동지역이 자원의 제공과 합작공장을 위한 부지제공의 최적임을 강조
- 일본은 두만강하류의 개발이 이루어지면 니이가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서해안지역과 동북아시아의 경제교류가 촉진되어 일본 서해안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 표명
- 북한측도 동북아시아 개발의 필요성에 찬성하고 관련 국가간의 협력을 강조하였음.
- 우리측은 주제발표(박성상 KIET원장)와 토론을 통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일반적인 경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연결시 지역의 자유무역지대 설치, 두만강하류의 운하건설과 중국 방천의 항구건설을 제안하였으며 한국과 중국간의 경제교류 증대를 위해 국교 정상화와 비자발급

절차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

- 기타 두만강지역 개발을 위한 학계와 재계의 사전 공동조사 문제, 각국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들로 「동북아 지방자치단체협의회」(Association of Northeast Asian Provinces; ANEAP)를 구성·운영하는 문제,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세계은행 등을 통한 재원조달 문제 등이 논의되었음.

〈참고자료〉

- 박성상, “중국방문 결과보고서”·서울 : 산업연구원(KIET), 1990. 7
- 제성호,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현황과 전망」·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2. 12

2. UNDP의 동북아지역 협력사업 구상

가. 대상사업 선정 및 관련국 의견문의

○ 사업 기본구상

— 두만강지역 개발(사업기간 : 미정)

- 경제특구에 관한 사업 발굴과 타당성 조사·연구
- 조사·연구분야는 항해, 거주, 훈련, 관리 및 환경보호 등
- 동북아시아 국가간 협력 뿐만아니라 일본, 러시아 등과의 경제협력 방안 모색

— 대기오염(사업기간 : 5년)

- 국경 오염, 유독성 물질 및 기타 대기오염의 영향 및 오염원(Source)에 대한 평가
- 환경 및 생태균형의 능동적 제고를 위한 국가 또는 다국간 전략 수립과 집행
- 지속적 경제성장, 삶의 질, 도시환경에 대한 전반적 논의
- 오염 완화를 위한 다국간 전략수립 및 집행

— 에너지 사용(사업기간: 5년)

- 적정 에너지 기술의 향상 및 설비생산 증대
- 전력발전소, 산업체 등에서의 에너지 효율의 증대

— 온대지역 식량증산(사업기간: 5년)

- 온대, 냉대지역에 적합한 밀, 쌀 종자의 발굴·보급
- 밀, 쌀 등 종자개발의 연구개발
- 수경재배 및 온실작물 생산증대를 위한 사업 발굴

○ 관련국 의견문의

- '91. 3 UNDP는 동 대상사업에 대해 한국, 북한, 중국, 몽골 등 관련국에 의견문의
- '91. 6 UNDP 기술사절단(Technical Mission)의 4개국 방문조사
 - 참여대상 4개국에 Mission Team을 파견, 대기오염과 에너지 이용 및 식량증산 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준비와 각국의 현황 및 입장 조사
- UNDP 기술사절단은 6. 8~6. 15 기간중 우리나라 환경처, 농진청 등 다수기관 방문

나.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

- '91. 5월 및 6월의 관계부처간 회의 결과, 상기 대상사업중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는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하고 대기오염과 에너지 이용, 식량증산 사업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3. UNDP 몽골회의

가. 회의 개요

- 기 간 : '91. 7. 6 ~ 7. 7
- 장 소 : 몽골 울란바토르

○ 목 적 : UNDP가 '92~'96 기간중 동북아 협력사업으로 제의한 4개 사업(두만강지역개발, 환경, 식량, 에너지)에 대한 추진 우선순위 논의

○ 참가범위 : UNDP와 한국, 북한, 중국, 몽골 등 4개국 대표 16명

구 분	참 석 자
UNDP	본부아·태지역국장, 남·북한, 중국, 몽골주재 대표 등 5명
한국	과기처 기술협력국장, 경제기획원 북방경제1과장 등 3명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국제기구협조총국장 한태혁 등 2명
중국	대외경제무역부 대외경제협력총국장 등 2명
몽골	국가개발부 국제협력국장 등 4명

* 동 회의에서 북한은 나진·선봉지역을 연결하는 140km 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개방할 것을 최초로 대외에 발표하여 세인의 관심을 끌었음.

※ <참고자료 4> 북한의 「경제무역지구 개발계획」 발표내용 참조

나. 회의 결과 및 발표·토론 요지

○ UNDP가 제안한 4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결정

- ① 두만강지역개발(무역 및 투자활성화)
- ② 석탄이용 및 대기오염
- ③ 온대지역 식량증산
- ④ 대체에너지 개발

○ 두만강지역 개발사업 관련사항 협의

— 북한측에서 제안한 북한지역내 「경제무역지구」 개발계획 토의

· 북측은 경제무역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세부구상을 UNDP를 통해 1개월내에 문서로 관계국에 통보하기로 함.

— UNDP 기술조사단의 현지방문 조사 및 조사결과의 MAC(Meeting of Aid Coordinators) 회의 제출 결정

- 북한, 중국, 러시아 국경지대와 북한이 발표한 경제무역지구를 대상으로 UNDP에서 2명의 기술조사단을 파견('91. 9월초 예정)키로 하고 기술조사단 파견을 위한 Terms of reference 작성 채택
- 기술조사단의 보고내용을 '91. 10월말 또는 11월초 평양에서 개최 예정인 동북아 4개국 MAC 회의에서 논의토록 하고 관계국 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현지조사단 파견도 추진
- 두만강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이미 추진중인 장춘세미나(하와이 EWC와 UNDP 공동주관, '91. 8. 29 예정)에 각국 정부대표 초청
- 이미 초청된 전문가 외에 4개국의 정부관계자도 초청하고 미국, 러시아, 일본의 정부관계자도 옵서버로 초청
- * 석탄이용 및 대기오염, 온대지역 식량증산 사업, 대체에너지 개발 사업 관련 토론내용 : 생략

○ 재원확보 및 비용분담 문제

- 동북아 협력사업의 필요성을 감안, UNDP의 unprogrammed reserve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
- 아·태지역 협력사업은 많은 분야에서 동북아 협력사업과 보완관계가 있으므로 UNDP의 아·태지역에 할당된 자금의 대부분(75%)이 동북아 협력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요청

○ 관리 및 집행 문제

- 동북아지역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간 집행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초기단계에서는 UNDP 본부가 관련정부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관리하되, 정부간 Task Forces 설치 운영 필요
- 두만강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functional network가 설치되어야 함.

북한의 「경제무역지구 개발계획」 발표내용(요지)

'91. 7. 6.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UNDP 회의에 참석한 북한대표는 정부방침에 의해 확정되고 이번 회의에서 국제적으로 선포하도록 결정되었다는 「경제무역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함.

- 나진, 선봉(웅기), 셋별(경원)지역을 연결하는 140㎞ 지역에(40㎞는 호수지역) 「경제무역지구」를 설치 개방
 - 경제무역지구의 개념은 모든 나라가 아무런 제한없이 투자 및 무역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
- 동 경제무역지구는 중국측에서 구상하고 있는 두만강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될 수 있고 러시아, 중국, 몽골까지도 동 지구를 수송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동북아지역 개발에 이바지할 것임.
- 북한이 이미 동 경제무역지구 설치·개방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작업을 시작
- 아울러 동 지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사회간접시설을 보완할 계획수립 완료(지도를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
 - 나진, 선봉, 방천을 연결하는 3각 고속도로 건설 추진
 - 나진, 선봉항을 확충하고(나진: 300만톤→3,000만톤, 선봉: 200만톤→2,000만톤), 장기적으로는 청진항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나진-청진간 철도 확충
 - 기존의 두만강-훈춘 철도와 청진-도문간 철도를 이용 중국과의 운송망 연결
 - 나진, 선봉항으로부터 러시아와의 수송망은 현재의 단·복선 철도를 확충하여 이용
- 북한측에서는 두만강지역개발관련 타당성조사는 UNDP 동북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기를 희망
 - UNDP 사업의 성격을 유지하는 한 동북아지역 4개국(한국, 북한, 중국, 몽골)과 미국, 일본, 러시아도 참여 가능하다는 입장

4. 제2차 동북아 경제기술발전 학술회의

가. 회의 개요

- 기 간 : '91. 8. 29 ~ 8. 31
- 장 소 : 중국 장춘
- 주 최(공동)
 - 중국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I)
 - 미국 하와이 동서문화연구센터(EWC)
 - 유엔개발계획(UNDP)
- 주요의제
 - 두만강지역 개발
 - 동북아 해양자원 개발 협력
 - 동북아지역 개발의 주요 경제문제
 - 동북아지역 개발협력의 전망
- 참가범위 :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미국, 일본 등 7개국과 UNDP 학자·전문가 등 120여명

남·북한 참가자 명단

한국 (22명)	북한 (3명)
송희연(산업연구원 원장) 권원기(한국과학재단 사무총장) 경제기획원 등 정부관계자 6명, 산업연구원, 과학재단,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IPECK 관계자 및 대학 교수 등 14명	리유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대외 과학기술교류국 부국장) 조경진(김일성대 교수) 채원철(김일성대 교수)

나. 발표·토론 요지

★ 중 국

- 두만강유역의 훈춘, 방천을 중심으로 항만을 건설하고 동해까지의 수로를 확장하여 동해로 진출할 수 있는 통항로 확보
 - 동북 3성(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의 농산물(옥수수, 콩, 감자 등)과 풍부한 지하자원 수출 촉진
 -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일본, 미국, 한국 등의 자본투자 가속화 유도
- 방천지역에 최대 5,000톤 규모의 선박접안이 가능한 항만시설 건설(년간 하역능력 400만톤)
- 방천지역에서 두만강하구까지 200-250m의 항로폭과 7.5m의 수심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 및 강변절토(북한 및 러시아 영토 일부 포함)
- 일정한 수량 확보, 사토의 매몰방지 및 두만강의 결빙(년 4개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만강 상류에 2-3개 댐 건설
- 항만 건설 및 두만강 하구 준설·절토비용 등은 중국 중앙정부의 지원, 일본 및 기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치를 통해 확보(추정 소요예산 16억달러)

북 한

- * 나진·선봉지구를 중심으로 한 「경제무역지대」개발계획 제시
- 청진항, 나진항, 선봉항의 시설 및 화물처리능력 등 입지조건 소개
 - 이들 항구들은 50km의 반경권안에 있으며,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으로 두만강 하구처럼 모래퇴적이 없으며 홍수의 영향도 없음.
- 향후 화물유통량이 많아지면 5-10만톤급 화물선 10여척의 동시 접안이 가능하도록 청진항의 동항과 서항에 신규 부두 건설

- 나진항에는 자연방파제를 이용하여 4호, 5호 부두를 건설하고, 선봉지구에는 부두와 철도, 고속도로를 확충함으로써 도합 1억톤 이상의 화물처리 가능
- 선봉지구 중공업 공장과 수산물, 피복, 전자제품 등 가공공장의 설비와 기술도입을 위해 외국기업과 합영·합작방식으로 경제협력과 교류를 활발히 진행할 것임.

러 시 아

- 블라디보스톡 이남 극동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조와 지원이 필요함.
 - 기존의 공장은 대부분 군수용으로서 '91년초 현재 군사예산의 삭감으로 인해 가동율이 40%정도이며,
 - 이들을 민간소비재 생산시설로 전환하는데 외국 특히 일본측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
- 특히 두만강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중국, 북한, 러시아 등 어느 한 지역의 개발이 아닌 해당국가에서 각기 필요에 따라 공동으로 개발하는 입장임.

몽 골

- 몽골측에서는 해양으로의 진입로 확대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나
- 현재는 거리상으로 황해연안의 대련항이 더욱 유리하다고 보고 있으며, 직선거리상으로 울란바토르-대련간은 800km, 울란바토르-두만강-훈춘은 950km이나, 현재의 도로를 이용한다면 두만강으로 진입하는 데는 대련보다 2배나 먼거리임.
- 무진장한 석탄 및 기타 지하자원의 개발, 판로 확보가 목적임.
(Tavantolgoi 1개지역 석탄 매장량만 50억톤으로 추정)

한 국

- 동북아지역·두만강지역 개발과 관련, 북한측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방법으로 북한을 지원하여
 - 동 지역개발을 통한 북한의 경제개방을 유도·촉진하고
 - 장차의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비용을 줄이며,
 - 동북아지역 경제발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동 지역 개발과 관련한 제반이익을 도모함.
- ※ 예를 들면, 두만강하류 항만 건설 및 기타 사회간접시설 건설에 국내기업의 시공권 획득도 바람직함.

UNDP

- UNDP는 국제정치적으로 민감한 두만강지역 국가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들의 활동영역을 넓혀주고, 활동을 자유롭게 해주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 UN산하 국제기구로서 두만강주변 여러국가가 공동 참여하는 동북아지역 개발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동북아지역 개발의 핵심문제인 두만강유역 항만건설과 관련해서는 3가지의 대안을 놓고 그 타당성을 검토중
 - 제1안 : 러시아의 크라스키노와 포시에트항(현재 선박 최대접안능력 10,000톤)을 개발하여 중국 훈춘지방과 철도 및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연결하는 방안
 - 제2안 : 중국측의 계획과 같이 두만강하류의 방천지역에 항만을 건설하여 동해로 연결하는 방안
 - 제3안 : 북한의 웅기(선봉), 나진 또는 청진항을 개발하여 중국 훈춘지방과 철도 및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연결하는 방안

다. 회의의 성격과 의의

- 형식상 민간차원의 학술회의로 참가자의 대부분은 주로 민간연구소의 연구원이나 학자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학술적 논의와 정책적 대응의 연계 필요성을 감안하여 각국 정부관계자가 다수 포함됨.
- 특히 주요 의제중의 하나인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은 정치적으로 민감하며 북한,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어 최우선 의제로 부상되었으며, 금번 세미나를 통해 주요 관계국의 두만강지역 개발구상이 상당부분 구체화되거나 입장표명이 있었음.
 - 중국, 북한, 러시아 등 접경 3국은 각기 훈춘, 선봉, 블라디보스톡 중심의 경제특구 설치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상호간의 견해차를 노정시켰으며 그 결과 다양한 의견조정 필요성을 재차 확인
- 또한, 두만강지역 개발의 타당성조사 추진기관인 UNDP가 세미나 공동주관기관으로 참가함으로써 동북아 협력이 순수 민간차원의 학술회의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논의로 전환되는 움직임을 보임.

5. UNDP 동북아 조정관회의

가. 회의 개요

- 명 칭 : 정부원조조정관회의
(Meeting of Government Aid Coordinators ; MAC)
- 기 간 : '91.10.18 ~ 10.21
- 장 소 : 북한 평양(인민문화궁전)
- 목 적 : 두만강지역에 대한 UNDP 기술조사단의 「두만강지역개발 조사보고서(Tumen River Area Development ; Mission Report)」 검토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 <참고자료 5> 두만강지역개발 조사보고서(요약) 참조

- 참가범위 : 한국, 북한, 중국, 몽골, 일본(옵서버), 러시아, UNDP 본부 대표 및 각국 주재 대표 등 24명

구 분	참 석 자
UNDP	본부 아·태지역국장, 남·북한, 중국, 몽골주재 대표 등 9명
한 국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등 3명
북 한	대외경제위원회 국제기구협조총국장 한태혁 등 3명
중 국	대외경제기술교류중심 부주임 등 3명
몽 골	국가개발부 국제협력국장 등 3명
러 시 아	북한주재 무역대표부 부소장
일 본	외무성 동북아 담당 등 2명

남·북한 참가자 명단

한국 (3명)	북한 (3명)
김인호(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한태혁(대외경제위원회 국제기구 협조총국장)
권갑택(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장)	엄기양(국가건설위원회 토지계획 국장)
황갑순(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한 강(국제기구협조총국 고위관료)

나. 회의 결론 및 발표·토론 요지

-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의 정치·경제적 성격상 개별 투자계획보다는 국제 협력 기반의 조성이 선결과제라는 점에 의견접근
- 현 단계에서는 개발대안과 관련 3개 개념에 대한 논의보다 각국의 정치적 의사결정(Political Decision Making)을 가능케 하기 위한 조사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 도출
- 국제협력 테두리내에서의 진행을 전제로 북한의 「선봉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우선적 검토 필요성 인정

○ 초기 18개월간의 실행계획 및 진행기구 설치 합의

— 두만강지역개발계획관리위원회(Programme Management Committee; PMC)구성

- 각 참가국이 3명씩 연내 지정

—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구성(3개 그룹으로 연내 구성)

- 지역개발 프로젝트 및 경제특구와 관련한 제도적, 법적, 재정적 측면 관련
- 경제적 타당성 및 투자, 무역 관련
- 기술적 타당성조사 및 하부구조 관련

— 초기단계 실행계획

〈두만강지역개발계획관리위원회〉

- 18개월 이내에 참여국이 본 사업 추진에 관한 정치적 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 * 이를 위해 1차회의 : '92. 1, 2차회의 : '92. 7, 3차회의 : '93. 1 개최예정
- '93. 7 정책결정을 위한 고위 정부관계관 회의에 보고서 제출

〈실무작업반〉

- '92. 1~'92. 6 기간중 각국 관련정보 자료수집·분석, 세미나·워크숍 개최 및 작업계획 수립
- '92. 7~'92. 12 기간중 3개 분과 그룹별로 중간보고서 작성

다. 각국의 기본입장

중 국

- 기본적으로 본 지역협력사업에 관심이 크나 UNDP 조사단 보고서에 제시된 중국측 견해(두만강 준설을 전제로 한 훈춘지구 개발)는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님.

- 두만강지역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접경 3국의 정치적 결정이 관건이며,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접경 3국은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협정을 체결해야 함.

북 한

- 조사단 보고서는 상호 협조계획 수립 및 실현방안 강구에 유용하나 향후 구체적인 조사활동과 협력형태에 대한 합의가 필요
 - 현존 하부구조 실태의 정확한 조사·연구하에 하부구조의 완비를 위한 대책과 그 이용대책을 명백히 하기 위한 합의 희망
- 관련국간의 쌍무적 또는 UNDP 주관하에 다자간 협상을 활발히 조직·진행해야 하며 관련국의 공동 이익을 목표로 향후 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함.

러 시 아

- 두만강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제시하지 못하고 동 사업이 동북아 지역개발을 위해 관련 당사국간의 충분한 협조하에 추진되기를 희망

몽 골

-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은 접경 3국만의 사업이 아니라 이해관계국의 공동 사업이며, 몽골정부는 유럽으로 연결되는 교통사업에 관심이 많음.

한 국

-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은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기회와 발판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각국간의 협력이 중요한 관건임.
- 동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아국 입장 제시

- 동북아시아 국가간의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와 성장 잠재력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구체적 사업은 개방된 자유경제권을 지향하도록 추진될 필요성
 - 당사국간 상호 호혜원칙하에 참여국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함.
 - 본 사업계획은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수립·집행되어야 함.
 - 접경국과 비접경국간의 균형적인 조화하에 사업 추진
- UNDP 조사단 보고서가 제시한 3가지 대안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며 현시점에서 3가지 대안중 택일은 무의미함.

일 본

- 옵서버로서 공식적 발언없이 회의 진행사항을 관망하는 입장으로 현단계에서 본 사업에 대한 참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음.

라. 특이사항

- 북한측의 「나진·선봉 경제무역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강한 의지 재확인
- 동 계획에 대해 북한은 UNDP로부터 우선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고 회의 결과에 이를 반영코자 시도
 - 북한측은 당초의 국제협조 획득과 독자개발계획 추진이라는 양면작전을 고수할 것인지, 국제협력 테두리내에서 개발계획을 추진할 것인가를 고심한 반면, UNDP측은 후자를 북한측에 강력하게 설득

두만강지역개발 조사보고서(요약)

—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Mission Report —

동 보고서는 두만강지역개발을 위한 사전조사의 일환으로 UNDP 기술 조사단(M. Miller외 2명)이 '91년 8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관련 세미나 참가, 관계전문가 면담, 국가별 해당지역 현지답사 등을 통해 작성, 91년 10월 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린 UNDP 동북아 조정관회의에 제출한 것임.

1. 결론 및 권고사항

가. 결 론

- 동북아지역과 그 부속지역의 풍부한 자원들로 인해 두만강 삼각주 지역은 중계무역과 관련산업 개발의 막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홍콩, 싱가포르나 로테르담에 버금가는 역할 기대(표 1 참조)
- 관계당사국은 원칙적으로 지역개발협력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 단기 및 장기적 목표와 세부 추진방법에 관해서는 이견을 표명

〈표 1〉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상호 보완적 요소

국 가	장 점	단 점
일 본	자본축적, 선진기술, 즉시 이용 가능한 양질의 풍부한 장비, 선도적인 산업제품, 관리경험	에너지와 산업자원의 심각한 부족, 축산을 위한 곡물의 부족과 몇몇 농업제품의 부족, 노동력의 부족

국 가	장 점	단 점
러시아(극동)	풍부한 산림과 비철금속, 광석, 해양자원, 원유, 가스, 석탄 및 (비료와 같은) 중화학 제품들	농산물과 경공업품들의 심각한 부족, 노동과 자본의 부족, 낙후된 산업장비와 관리 경험
중 국 (동북지역)	유리한 농업조건, 다양한 농업 제품들(옥수수, 콩, 육류, 과일과 같은), 섬유산업 제품들, 원유, 석탄, 건축재료, 한약재 및 풍부한 노동력	자본, 선진장비, 기술 및 관리 경험 부족, 특정 광물 자원의 부족, 제한적인 하부구조
북 한	풍부한 광물자원, 금속, 광석 및 단순가공품, 해산물, 몇몇 공산품들 및 풍부한 노동력	자금부족, 농업, 경공업품 및 기타 일용품의 부족, 장비 및 기술의 낙후
한 국	잉여자금, 선진기술 및 이용가능한 장비, 선도적인 산업제품	에너지와 산업자원의 부족, 축산을 위한 곡물 부족, 노동력 부족
몽 골	풍부한 축산품 및 광물, 광석 제품들(특히 형석)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직접 통신 가능한 편리한 방법이 없음. 자금, 기술, 장비, 농산품 및 경공업 제품 부족

자료 : 중국 길림성 장춘소재 동북사대 동북아시아지형연구소 “동북 아시아의 지역 협력과 두만강 하류 삼각주의 개발”

(Chen Cal, Yuan Shuren, Wang Li, Ding Sibao)

1) 개발대안

1안

- 관계 당사국이 독자적으로 특구를 설치·개발하고 각국의 특구 지역간 정책적 조정 추진

2안

- 3개 접경국가가 각국 영토관할권하에서 상호의 인접지역을 선정, 이곳에 특구를 설립·개발하되 각국이 행정적으로 협력

3안

- 3국이 특정지역을 경제특구로 공동지정·개발하되 두만강지역개발의 효율적 조정관리를 위해 공동운영기구를 설립
- 다만 경제특구지역의 규모와 위치 지정문제는 추후 결정

(A안) 소삼각지역(Small delta zone) : 1,000km²

· 북한 나진, 중국 경신 또는 훈춘, 러시아 포시에트

(B안) 대삼각지역(Large delta zone) : 10,000km²

· 북한 청진, 중국 연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2) 목 적

- 소극적·적극적 목적을 동시 포함
 -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을 인프라 투자와 경제특구의 관련 기구 설립문제로 인식(소극적 견해)
 - TRADP를 동해로부터 유럽에 이르는 Landbridge 사업으로 인식(적극적 견해)

3) 추진방법

- 북한, 중국, 몽골은 항구 등 인프라 투자의 대상지역, 취급물량, 관리방법 등에 관해서 당사국의 구체적 입장을 표명

- 소요재원 및 조달방법에 관해서 명백히 밝히지 못했으며,
- 여러 당사국의 두만강지역개발에 관한 사업구상이 경제적·재정적·관리적 측면에서 상호 대립되는 경우 의견 조정 자세 미진

4) 인프라 비용의 추정

- 20년내에 두만강지역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10여개의 현대적 부두와 50만명 이상 주민을 수용가능한 신도시 주택 및 관련시설이 필요
- 이와 관련된 소요비용은 300억불로 추산

〈표 2〉 하구부조 비용추정

구	분	추정비용
지역 인프라(도시개발, 전력, 통신 등)		130억불
통신 인프라(항만, 하항, 내륙수송기지, 공항, 철도, 도로)		110억불
교육		10억불
예비비		50억불
합	계	300억불

나. 권고사항

1) 정치적 결정 및 참여국

- UNDP 기술협력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4개국(한국, 북한, 중국, 몽골)은 두만강지역 접경국인 러시아와 공동으로 UNDP 지원하에 전면적인 TRADP 추진을 위해 정치적 결정을 단행
- 일본 등 기타국은 각자 특별한 이해관계에 따라 동 계획에 참여할 수 있음.

2) 지역개발추진위원회(Commission) 설립

- 즉각적·단기적 조치로서 UNDP 후원하에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개발추진위원회를 설치

- 5~6개 관계국가의 고위대표와 UNDP로 구성
-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4개의 소위원회(Subcommission)를 설치·운영
 - 무역과 물류(Trade and Logistics)
 - 통신(Telecommunication)
 - 금융(Banking)
 - 공업과 인프라 투자전략
(Industry and Infrastructure Investment Strategy)

3) 연구조사 출장(Study Trip)

- 대규모 지역개발 연구를 위해 관련국가의 계획입안자들이 참여하고 UNDP가 후원하는 출장 추진
 - 홍콩, 싱가포르, 로테르담, 뉴욕과 같은 산업·교통 항구를 방문

4)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설치

- 두만강지역개발의 장기적 추진과 관련하여 UNDP 지원하에 실무작업반(Group)을 즉각 지정·설치
- 임무
 - 개발연구를 위한 계획수립, 국제합의문 초안 작성
 - 개발계획을 위한 팀직원 구성, 일정계획 및 예산안 수립
 - UNDP 지원금 이외에 개발연구를 위한 자금조성
 - 총 소요예산(추정)은 1,200만불

5) 추진일정

- 실무작업반 즉각 구성
- 협력사업개시 선언
- 위원회 및 소위원회 설치 :개시선언후 3~6개월

- 개발연구 계획 :6~9개월후
- 위원회·소위원회의 구체적 목표설정 :18~24개월후
- 세항별 개발연구 종료(15개월 소요) :21~24개월후
- 건설준비 완료 :4~5년이후
- 산업기지 건설 :7~12년후

2. 두만강지역개발에 대한 각국의 입장

가. 중국의 입장

- 중국 동북부지역의 동해진출 보장을 위해 두만강을 경유하는 항·포구의 개발 및 준설
- 북한, 러시아의 항구 임대·조차나 북한 해안부근 소도(小島)에 항구 건설
- 중국-러시아-동해에 이르는 운하 건설
- 개발대상 지역
 - 중국의 길림성 구역
 - 북한의 양강도와 함경북도
 - 러시아의 프리모스키 연해(Primorski Krai)
- 통신과 운송 개선
 - 블라디보스톡, 연길, 청진의 기존공항 확장 및 두만강개발지역 중심부 부근 신국제공항 건설
 - 중국의 두만강 항구 재건
 - 북한의 청진, 나진, 선봉 등 기존항구의 확장과 러시아의 나호트카, 블라디보스톡, 포시에트 항구 확장
 - 도문에서 훈춘, 크라스키노와, 핫산의 철도망 확장
 - 두만강 유역에서 중국 동북지방, 몽골, 유럽을 연결하는 특급 고속철도 건설

- 중국, 러시아, 북한 3국이 접경한 지역을 공동개발코자 함.
 - 국가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자유경제지구내의 인적·물적자본이동의 자유로운 보장
 - 자유경제지구 행정관리 조직을 세워서 동 지구의 개발계획 수립 및 집행을 공동으로 함.

나. 몽골의 입장

- 현재 중국과는 건설, 과학기술, 통신과 수송을 포함하는 많은 협력사업이 논의되고 있으며 해외교역시 중국의 천진항을 사용함.
- 몽골은 일본과의 경제협력도 확대되고 있고, 한국과는 긴밀한 관계로 발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양국간 경제 및 문화협력 협정이 체결되었음.
- 몽골 동부지역에 경제특구를 설립하여 외자를 유치하려고 하며 대륙 횡단 국제수송망 개발에 최대의 관심을 갖고 있음.
 - 두만강지역에서 동부 몽골을 경유한 유럽연결 국제수송망 건설을 위한 Landbridge idea는 몽골의 깊은 관심사항임.
 - 근대장비를 포함한 세계 수준의 항구시설과 대량 컨테이너 화물 취급이 가능한 유럽연결 특급철로망의 필요성 강조
 - 상기 시설물들은 국제협정·조약에 의거 관련국에 의해 개발·관리되어야 할 것임.

다. 러시아의 입장

- 세계 수준의 항구시설과 유럽으로의 수송로를 갖춘 두만강지역 개발협력 구상에 원칙적으로 환영
- 핫산만(Khasan Bay)은 대규모 선박의 접안시설 건설이 가능하지만 대규모 항만건설은 생태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을 우려
- 대규모로 개발지역을 확대하는 것보다 나호트카지역 자유경제지구 하나라도 제대로 개발하는 것을 원하였음.

라. 북한의 입장

- 북한의 제안은 대외경제위원회가 발표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보고서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각국은 각자의 영역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후 협력과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임.
 - '88년 최초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해 논의된 이래 이의 설치를 위해 9월말까지 관계법령을 공포할 계획이며 UNDP에 기술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 경제무역지구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
 - 선봉은 동북아 개발에 중요하고 유럽을 향한 통로이며, 외국의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의 지원을 원함.
 - 러시아 및 중국 동북부의 대서방 무역 확대를 위한 동해 진출시 선봉을 경유하는 통로가 가장 경제적이고 최단거리 route임.
 - * 훈춘-대련-니이가타의 철로와 해로는 약 2,000km이나 선봉 경유시 약 590km 임.
 - 기존의 철도와 항만시설의 이용으로 추가 시설투자에 따른 회임기간이 짧음.
- 본 조사단의 주요 결론으로는
 - 선봉지역은 지리적 조건, 기존 항구 및 철로·도로 이용 가능으로 육해 연계수송의 개발 잠재력은 대단히 높음.
 - 선봉지역의 경제무역지대 개발은 화물 중계조건 향상 및 제조업 분야 개발가능성 신장에 기여할 것임.

3. 공업, 통상 및 관광

가. 에너지 자원

- 산업단지 조성시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에너지 확보 문제임.

- 두만강지역의 경우 매장량이 풍부한 석탄(Coal)을 이용, 화력발전의 보일러 스템을 위한 연료 뿐만아니라, 철강생산과 같은 산업공정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석탄은 산성비와 같은 공해를 유발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의 제거를 위해 석탄을 활용한 합성연료의 생산을 감안해야 함.
- 따라서 무연연료를 이용, 공해없는 전력과 철강 생산, 비료와 페인트 산업 재료 공급 가능

나. 1차산업

- 동 지역 및 내륙지역의 풍부한 원재료에 기초를 두고 있는 1차산업은 정제, 펄프 및 종이, 석유화학 제품·비료·철강·알미늄의 생산설비 등을 들 수 있으며, 수송비용 절감을 위해 산업항구 주변에 위치해야 할 것임.

다. 2차산업

- 2차산업은 1차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므로 동일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1차산업보다 더 많은 고용효과를 창출함.

라. 경공업

- 주로 소비재를 생산하는 공단을 조성하게 되는데 조립산업 및 식품가공산업 등이 포함되어 세금 및 시장성에 따라 이동 용이

마. 지원산업

- 건설, 공단 운영상의 부품 및 정비용역 제공

바. 상업지역의 개발

- 대규모 수송체계 및 산업시설 운영을 위해 상업지구내의 다수 무역회사·전문회사로 구성된 국제무역센터 필요
 - 이 센터는 세계 각 지역과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각종 첨단 장비 및 시설, 건물을 갖추어야 하며 상업지구내에 행정센터, 개발은행 및 수출센터

를 수용하는 건물군과 공원 등이 위치해야 함.

사. 관광 및 레저시설 개발

- 두만강지역은 자연경관이 훌륭하여 관광 및 레저 산업이 유망하므로 이를 위한 각종 시설을 갖추어야 함.
 - 특급 및 일급호텔 건설, 호텔 이용객을 위한 오락시설, 쇼핑센터, 골프장, 컨트리클럽, 요트클럽, 해상관광을 위한 정박시설 등은 필수적인 것임.

4. 인프라 부문

가. 현존 인프라 수준

- 동 지역의 인프라 수준은 대규모의 외국인투자를 유입하기에는 전적으로 부적절

북 한

- 운송부문은 국제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양호한 편임.
 - 항만—선봉, 나진, 청진항
 - 철도—3개 항만과 중국, 러시아 지역과 연결되어 있음.
 - 도로—중국과는 비포장 2차선 도로로 연결
러시아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음.
 - 공항—청진에서 30km 지점에 위치

중 국

- 연길시는 중심지역으로 도로, 철도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며, 비행장도 있음.
- 훈춘시는 아직 개발이 미진한 상태이나, 정부가 연길과의 철도 연결, 발전소 건설, 러시아와의 도로연결(러시아는 아직 착수하지 않았음) 등과 같은 대규모의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러 시 아

- 중심도시인 블라디보스톡은 국제수준에는 못미치지만, 양호한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소규모 공항이 60km 북쪽에 위치하고 있음.
- 「소삼각지역」에 위치한 도시로는 핫산(Khasan), 포시에트(Posiyet) 2개 소도시가 있으며, 포시에트는 소규모 항구도시로서 시베리아지역과 철도로 연결됨.

나. 인프라 구축 계획

※ 이하의 내용은 두만강지역 개발을 위해 약 20년에 걸쳐 동 지역에 주요 산업, 교역, 각종 센터 등을 설치할 인프라의 규모 및 형태를 UNDP가 대략적으로 구상해 본 것임.

항 구

- 북한은 3개의 현존 항구도시(청진, 나진, 선봉)와 1개의 신설 항구도시(웅상)를 포함하는 대규모 플랜을 제안
 - 나진, 선봉, 웅상은 소삼각지역, 청진은 대삼각지역
- 러시아는 소삼각지역에 2개(포시에트, 트로이차), 대삼각지역에 2개(블라디보스톡, 나호트카) 등 4개의 항구도시를 제안

항만 터미널 시설

- 항만 터미널에는 특정기능을 가진 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함.
 - 컨테이너, 소형화물, 일반화물, Ro-Ro, 석탄, 원유 및 석유, 특별화물, 곡물, 원목, 승객터미널 등
 - * 모든 항구와 터미널 건설을 위한 추정비용: 40억 달러
- 항만 터미널의 위치
 - 8개의 항구 후보지역중 1개의 항구내에 집중 설치하여 규모의 이점

을 살리고 대형 터미널이 심해(深海)항구에 위치하도록 계획이 수립
되어야 함.

내항(INLAND PORT)

○ 육상운송을 통해 동북아 및 유럽지역 수송을 위한 중계지로는 중국 훈춘
이 유력함.

— 철도시설, 컨테이너 하역시설, 대규모 트럭센터 등이 필요함.

* 추정비용: 10억 달러

하 항

○ 중국은 두만강하구의 준설 및 운하건설을 통한 하항개발에 지대한 관심
을 보이는 바, 유력지로는 두만강하구의 방천을 지목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지역은 환경파괴는 물론 준설비용의 과다 및 지속적 준설
필요, 대형선박 운항 불가 등으로 경제성이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항을 구상한다면 방천에 수중보를 설치하고 강어귀
에 Transhipping port를 건설해야 하며 해안쪽에 정박을 위한 방파제를
설치해야 함.

○ 동해-햇산지역의 운하준설 제안은 기술적으로나 주변 여건상 불가능함.

* 추정비용 : 10억 달러(준설비용 제외)

공 항

○ 연길, 블라디보스톡 및 청진의 현존 공항 확장과 소삼각지역내에 새로운
국제공항 건설이 필요한 바

— 포시에트 서쪽의 중국과 러시아 국경근처 및 햇산과 웅상사이의 북
한지역이 유망함.

* 추정비용: 20억 달러

열차시스템

- 동북아 대륙에 적절한 열차 형태는 100t, 100량의 차량을 갖춘 대형열차와 2층 컨테이너 열차임.
* 추정비용: 20억 달러

철로망

- 외항과 내항을 각각 서로 연결 가능해야 하며, 광케 및 표준궤로 우선 3개의 노선이 국제기준으로 개선되어야 함.
 - 러시아의 시베리아(Trans-Siberian) 횡단철도 : 대규모의 시설개수가 필요함.
 - 중국의 동부(Eastern) 철도 : 몽골을 통과하지 않음.
 - 두만강을 기점으로 장춘, 연길을 경유하여 몽골의 이르쉬(Yirhi)까지 연결 : 이르쉬에서 울란바토르까지 195km 구간 추가공사 필요
- * 추정비용 : 20억 달러

도로망

- 동 지역의 육상도로는 2개선에 불과하여 매우 취약한 상태인 바, 각 국가를 연결하는 4차선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적어도 3개선은 건설되어야 함.
* 추정비용 : 20억 달러

신도시 개발

- 약 50만명 이상의 인구가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소요기간 10-15년)
- 각종 산업시설, 현대적 도시, 서비스 시설, 하부구조 시설 등이 필요
- * 추정비용 : 80억 달러

발전설비

- 추가적으로 1,200 메가와트급의 발전설비가 건설되어야 함.
 - 주원료는 석탄이며, 디젤, 가스-터빈 발전장비 형태의 예비전력 생산시설 필요
- * 추정비용 : 20억 달러

통신시설

- 대규모 산업단지 및 생활공간 지원을 위해 현재 한·일에서 이용되는 광통신망과 연결되는 세계수준의 통신망 설립 체제 완비 필요
- * 추정비용 : 10억 달러

용수

- 동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50만 m^3 /일 이상의 용수가 필요함.
 - 북한은 이미 다수의 소형댐 건설계획을 갖고 있으나 적절한 수자원 처리시설도 포함되어야 함.
- * 추정비용 : 10억 달러

폐기물 처리

- 산업 및 생활용수의 정화시설, 각종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등이 필요
- * 추정비용 : 10억 달러

인적자원의 개발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대규모 교육센터 등이 필요함.
 - 대학수준 : 고급엔지니어링, 산업경영, 기업경영관리, 과학, 교육, 의

학, 법률 등

- 직업훈련 : 중장비 작동, 측량, 중기계 등 기본 건설기술 교육, 부기, 목공, 실험 기술

5. 두만강지역개발 관련 검토사항

가. 개발관련 연구

- 경제특구내에서의 기계, 원자재, 상품 등의 비관세 교역 절차 확립
- 투자 당사자들간의 혼동 및 이해부족을 제거할 수 있는 투자 촉진 전략 수립
- 비생산적 경쟁을 제거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의 조정

나. 무역

- 교차 국경무역(CROSS BORDER TRADE)
 - 현 국경무역 실태 분석 및 성장 잠재력 추정
 - 인프라, 법제도, 조직, 금융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장애요인 제거 방안 제시
- 중계무역(TRANSIT TRADE)
 - 중계무역의 적용범위 및 향후 교역 확대 가능성 분석(특히 중앙아시아를 거치는 동북아시아와 유럽간의 교역)
 - 중계교역을 강화하기 위한 동북아시아 해안의 중심지역 선정 및 두만강 지역 장·단점 분석
 - 법률, 제도, 금융 등과 관련하여 전문 컨설턴트 추천 및 의견 수렴

다. 산업

- 산업배치를 위한 국별 소지역(small region)의 장·단점 분석 및 외국 투자자들의 인식조사
- 경제특구내의 산업개발에 대한 각국의 전략 및 정책조사, 개발전략 수립

라. 인프라

- 현존 인프라의 철저한 파악 및 각국의 개발계획 검토
- 여타 기술소위원회와의 조인을 통해 각종 인프라의 단계(단·중·장기)적 구축 우선순위 선정 및 소요비용 산출
- 지역기구, 정부, 국제기관(UNDP, ADB, WORLD BANK), 국제기금 등과 같은 자원조달 대상기관 및 방안 확정

마. 관 광

- 현존 관광시설 및 각국의 개발계획 검토를 통한 관광 잠재력 측정 및 동 지역에 대한 각국의 반응조사 실시
- 동 지역 관광개발전략 제안

바. 직업 및 전문교육 훈련

- 노동력, 기술교육 훈련기관 등 각종 개발제안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내의 기술수준 및 부족부문 파악
- 숙련노동자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사. 금융, 재정, 투자

- 접경 3개국에 인프라 구축용 자금조달의 방법 및 수단 조인
- 각 지역에 현존하는 금융, 은행시스템 파악 및 교역, 관광, 산업 부문에서 필요한 금융, 보험 등을 정리

아. 법적·제도적 문제

- 현존 법·제도적 규정중 무역, 투자 및 하부구조 개발 장애요인 검토

- 두만강지역개발과 관련, 유관 국제선례 파악

자. 환경보호

- 개발계획이 동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환경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Ⅲ. TRADP 계획관리위원회(PMC) 및 실무작업반(WG) 회의

1. 제1차 PMC 회의

가. 회의 개요

- 기 간 : '92. 2. 27 ~ 2. 28
* 2. 29 ~ 3. 1 부산항 시찰 및 경주관광
- 장 소 : 한국 서울(호텔신라 영빈관 에메랄드홀)
- 회의의제
 -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조사연구 방안 협의
 - PMC 및 3개 실무작업반의 활동지침과 향후 활동계획 검토
 - UNDP의 TRADP 사업계획서 승인 및 향후 추진일정 논의
- 참가범위 : 한국,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일본 등 6개국과 UNDP 및 ADB 관계자 등 35명

구 분	참 석 자
한 국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등 5명
북 한	대외경제위원회 국제기구협조총국장 등 3명
중 국	대외경제무역부 국제담당국장 등 5명
몽 골	국가개발부 차관 등 3명
러 시 아	대외경제부 국제협력부국장
일 본	외무성 북동아과 경제반장 등 3명
UNDP	사무차장 겸 아·태지역국장 등 13명
A D B	중국·몽골 사업관리담당 등 2명

남·북한 참가자 명단

한국 (5명)	북한 (3명)
김인호(EPB 대외경제조정실장) 권오갑(과기처 기술협력국장) 신장범(외무부 국제경제국 심의관) 윤영대(EPB 대조실 제3협력관) 유장희(KIEP 부원장)	한태혁(대외경제위원회 국제기구 협조총국장) 리성덕(정무원 사무국 과장) 림태덕(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서기장)

나. 주요 논의내용 및 합의사항

1) 두만강지역개발의 대상지역 범위 논의

구 분	범 위
1. 두만강경제지대(Tumen River Economic Zone: TREZ)	나진(북한), 훈춘(중국), 포시에트(러시아)로 연결되는 소삼각지역
2. 두만강경제개발지역(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Area: TREDA)	청진(북한), 연길(중국), 블라디보스톡(러시아)으로 연결되는 대삼각지역
3. 동북아시아지역개발지구(North East Asia Regional Development Area : NEARDA)	두만강지역의 개발에 따라 천연자원의 공급, 산업의 유치, 하부구조의 개선 등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동북아 내륙지역 전역

* 개발대상은 「소삼각」지역에 중점을 두되 청진, 블라디보스톡 등을 포함.

2) 분야별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구성·운영방안 검토 및 NT 중심 운영 합의

- UNDP가 구상·제안한 3개 실무작업반(WG) 대신, 효율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해 National Team(NT)중심 운영 합의

제 1 실무작업반(WG 1)	법률, 제도 및 금융 문제 연구·검토
제 2 실무작업반(WG 2)	경제적 타당성 문제 연구·검토
제 3 실무작업반(WG 3)	기술적 타당성 문제 연구·검토

- TRADP 수립에 있어서 실질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상기 실무작업반(WG) 활동지침에 관한 의제는 '92. 8월 제2차 PMC 회의까지 검토를 유보하기로 함.

3) 재원조달 문제 중점연구 및 「금융조달협의반(FCG)」 구성 제의

- 3~7월 사이에 개발대상 지역을 포함한 개발개념과 전략, 재원조달 방안 구체화 노력
 - 3월말 각국 대표 1명으로 구성된 National Team Leader(NTL) 회의를 소집, 작업계획 수립
 - 7월중 개발개념과 전략 협의
 - 8월중 제2차 북경 PMC회의에서 최종 입장 확정
- 한편 재원문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가칭 「금융조달협의반(FCG; Financing Consultative Group)」을 구성
 - 동 조직은 재원조달을 책임지는 조직이 아니고 재원조달에 관한 조사, 홍보, 정보의 상호교류를 목적으로 잠재투자자와 국제금융 기관 등 최종 수요자(End users)에 TRADP의 사업성과 경제성을 설득시키고 시장성을 검증(“Testing the Market”)하는 역할을 수행
 - 이 조직은 ADB, 일본, 한국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갖출 것임.

4) TRADP의 「원칙과 상호양해」에 관한 11개 사항 합의

- ① 동북아지역과 두만강지역은 개발잠재력과 상호보완성이 있으므로 국가간 협력을 통해 상호이익 도모가 가능
- ② 참가국은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에 대한 강한 관심을 표명하고 협력의사와 상호이해를 명확히 함.
- ③ 참가국은 상호호혜에 기초한 지역협력을 통해 각국의 개발노력을 보완·달성
- ④ TRADP를 통한 협력은 접경당사국 뿐만아니라, 동북아지역이나 국가 모두에게 도움
- ⑤ TRADP는 실질적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및 투자방안을 마련하며, 두만강지역 및 광역 경제권역에서의 조화로운 협력을 달성함을 목표로 함.
- ⑥ 개발과 지역협력사업은 장기, 중기, 단기로 추진
- ⑦ 학술적인 협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93년 하반기 정부 결정을 지원하고 재원조달 가능 방안을 마련)
- ⑧ TRADP의 추진일정은 현실가능한 대로 유지
- ⑨ TRADP는 각국 정부 주도와 UNDP 지원을 통해 4단계 방식에 따라 추진되며 각 단계는 PMC 회의 및 고위 정부관계관 회의를 통해 마감함.
- ⑩ UNDP는 비교우위 측면에서 일관성있게 객관성을 유지하며 재원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
- ⑪ 국가와 국제기구의 추가적인 참여를 환영하고, 특히 러시아가 PMC의 정식회원국으로 참가하기를 희망하며, 일본과 ADB도 옵서버로 참여하기를 희망

다. 향후 추진일정

- '92. 3월중 추진사항

- ① PMC 1차회의 의제(PMC의 활동지침, UNDP 사업계획서 등)에 관한 각국 의견을 UNDP에 통보
- ② 두만강지역에 관한 연구결과와 관련자료 수집
- ③ 각국별 PMC가 National Team Leader 선정 및 통보
- ④ 3월말 National Team Leader(NTL) 회의소집
 - 각국별 NTL과 UNDP 자문관(Adviser) 참석
 - ①의제와 ②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세부업무계획(Detailed Work Plan) 확정
- '92년 4월~6월중 각국별 PMC는 개발대안 및 개념과 재원전략에 관하여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
 - 2명의 UNDP 전문가들이 각국을 순회·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Program Office(PM)에 보고하고 PM은 이를 조정
- '92년 7월 NTL회의를 소집하여 Adviser와 함께 현황을 검토하고 동 결과를 PMC회의에 상정
- '92년 8월 제2차 PMC회의를 중국 북경에서 개최(잠정)
 - 구체적인 토의자료 마련이후 개최

라. 특이사항

- 중국과 북한측은 TRADP 추진에 있어서 학술적인 조사연구 활동보다는 실질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높은 관심 표명
- 개발 대상지역과 관련하여 중국과 북한은 「소삼각지역」의 우선적 개발 전략을 강력히 지지한데 반하여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을 포함하는 대삼각지역 선호
-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도 나진-선봉지구 개발에 있어서 모든 나라의 참여 허용방침을 다시 밝힘으로써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분명히 하였음.

- 회의 참가단은 회의 종료후 '92. 2. 29일부터 3. 1일까지 부산항과 경주 지역을 관광

2. 북경 실무작업반(WG) 회의

가. 회의 개요

- 기 간 : '92. 4. 28 ~ 30
- 장 소 : 중국 북경
- 목 적 : 제2차 PMC회의 개최에 앞서 각국의 입장 조정
- 회의의제
 -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개념과 전략
 - 재원조달 문제
 - 향후 추진작업계획
 - UNDP의 사업계획서 등
- 참석범위 : 한국, 북한, 몽골, 중국, 러시아, UNDP 관계자 등

남북한 참가자 명단

한국 (4명)	북한 (2명)
윤영대(EPB 대조실 제3협력관) 김학수(KIEP 북방경제실장) 윤대수(과기처 기술협력 2과장) 엄성준(외무부 사무관)	한태혁(대외경제위원회 국제기구 협조총국장) 림태덕(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서기장)

나. 주요 논의내용 및 합의사항

1) 개념 및 전략(Concept and Strategy)

- 두만강지역개발의 「개념 및 전략보고서」를 재작성하기로 함.
 - 대상지역 : TREZ와 기타 지역(블라디보스톡, 훈춘, 나진, 청진, 몽골 등)으로 구분하되 TREZ를 지역개발의 중심(Core)으로 봄.
 - 개발대안 : A안(독자개발 및 정책협조)과 B안(국제공동개발 및 관리)으로 나누고 계속 연구하기로 함.

○ UNDP측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음.

- 먼저 두만강지역개발의 장기목표는 세계적 수준급의 교통 중심지 및 가공공업 중심지로 발전시키자는 것임. 단기적으로는 역내교역 및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협조를 하자는 것임.
 - 단기적 목표에서 시작하여 장기적 목표로 개발을 확대하기 위하여는 우선 지역 및 행정적인 개념의 선택이 필요한데 여러 개념 가운데 핵심지역으로서 두만강하구의 북한·중국·러시아 3개국의 접경지역인 두만강경제특구(TREZ)를 상정할 수 있음.
 - 편의상 이 TREZ를 국제공동으로 개발·관리하는 방식을 개념 B로, 각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모든 형태를 개념 A로 지칭하고자 함.
 - 개념 A는 각국이 형편에 따라 개발하는 것으로 반드시 협조 관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개념 B의 경우 여러 형태의 행정적·법률적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각국의 주권을 해치지 않고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창의적 작업(Creative work)이 필요함.
- UNDP의 개념 A와 B에 대한 구분에 대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가장 대립된 입장을 보인 국가는 중국과 북한이었음.
- 중국은 TREZ의 국제공동관리방식(개념 B)이 가장 효율적이며 이익이 된다는 점을 조사연구 발표를 통해 설명

- 동 지역을 대삼각지역과 소삼각지역으로 구분하고 각국간 협력 형태를 느슨한 협력, 강한 협력 그리고 범국가적 협력으로 삼분하여 각각 질적인 장·단점 평가와 질의서를 통한 계량적 점수제 그리고 싱가포르-조홀-리아우 성장삼각지대 사례 등을 동원, 분석해 볼 때 범국가적 협력하의 소삼각지역이 가장 효율적임을 주장
- 북한은 공동소유·관리 형태의 개발방식은 국가주권 문제, 행정적 협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며 이론적 가정이라고 주장
- 러시아와 몽골, 한국 등은 중립적 입장

2) 금융전략(Financing Strategy)

- 금융조달협의반(FCG; Financial Consultative Group)을 구성하고 참가국별로 FCG 대표를 2명씩 선정, UNDP에 통보
- FCG는 현재 PMC 산하로 출범하나 향후 두만강지역개발이 본격화될 때 가장 핵심적인 추진체로 중핵적이고 영구적인 역할 담당
- 잠재적 투자자(국제금융기관 + 각국의 대기업 등)에게 TRADP를 알릴 사업취지설명서(prospectus)를 5월말까지 작성토록 함의

3) 작업계획(Work Plan)

- * 향후 6개월간(제2차 PMC 회의시까지) 작업계획 확정
- 우선 제2차 PMC는 '92.10월 북경에서 개최기로 하였으며 10월 4, 5일경 북경→연길→중국측 두만강→러시아측 두만강→북한측 두만강→북경으로 이어지는 PMC의 두만강 현지답사를 하기로 함.
- 8월말~9월초까지 1차 작업진행보고서(Progress Report)를 발간(Programme Manager가 총괄)
- 7, 8월경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작업진행보고서를 종합하기 위한 워크숍 개최
- 6월까지 각국이 FCG 멤버 임명

4) 운영상의 유의점(Operational Issues)

- 우선 UNDP는 National Team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도록 권고
 - 법률/제도(legal/institutional)
 - 무역정책(trade policy)
 -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
 - 엔지니어링·이코노미스트(engineering economist)
 - 금융연락(financing liaison)
 - 경제특구·이코노미스트(zone economist)
 - 관세전문가(customs expert)
 - 환경전문가(environmental specialist)
- National Team은 각자 자기분야에서 자국입장을 대변하는 연구, 계획, 자료수집의 분석 등을 하며 UNDP 자문단이 방문할 시 면담 및 협조 제공
- Programme Document, Concept/Strategy, Finance Strategy, Preliminary Prospectus 등에 관한 의견 및 평가서 송부
- 중국, 북한, 러시아는 PMC의 두만강 study tour 준비
 - 한국의 특별요청으로 National Team의 전문가가 두만강지역을 현지답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UNDP와 접경 당사국은 최대한 협조하기로 합의
- TRADP의 재원부족분은 비용분담(cost-sharing)원칙에 의하여 각국의 UNDP, 현금출연, 현물지원 등 고려
- National Office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통신체제 확립

5) 사업계획서(Programme Document)

- Programme Document는 제1차 PMC회의때보다 현저하게 개선되었으나, FCG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사업계획서 및 Work Plan에 반영하기로 합의

— 이번 WG회의에서 논의된 점을 모두 반영하여 5월 20일경까지 재작성하여 배부하기로 합의

※ 〈참고자료 6〉 「UNDP의 사업계획서, 작업계획 등의 내용(요약)」 참조

UNDP의 사업계획서, 작업계획 등의 내용(요약)

1. 개발개념 및 전략

가. 개념 및 전략 보고서

○ TRADP의 목표

- 장기 : 관광, 해운 및 수송 요충지와 가공·제조 중심지로 발전
- 단기 : 교역 및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한 협력기회 지원

○ 개발지역 개념

- TREZ : 중국 훈춘, 북한 나진, 러시아 포시에트의 소삼각지역
- TRED A : 중국 길림, 북한 청진, 러시아 나호트카, 블라디보스톡의 대삼각지역
- NEARDA : 동부몽골의 자유경제구역까지 포함한 동북아지역 대상

○ 개발관리구조

- Option A : 각 접경국가가 1~2개 지역에 무역특구(Special Trade Zone)를 독자적으로 설치하고, 역내 전반적인 정책, 절차, 행정사항을 인접국과 협력하는 방식
 - 각국 참여 「두만강지역위원회」 설치
- Option B : 접경 3국이 공동관리 협정을 맺어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식
 - 각국 참여 「두만강지역위원회」 설치
 - 산하에 역내 항만, 철도 등을 소유·관리할 기업 창설 (TRAMCO)

○ 전략(Strategy)

- 투자 이전단계('93.12월까지) : 단기 협력조치 및 종합계획 마련

— 입안 및 실행단계 : '93. 12월이후

나. 금융전략

- TRADP를 금융기관 및 업계에 알리고 협의를 위한 FCG 설치
- 각국의 고위 금융전문가 및 NT 멤버 2인을 지정·참여시킴.

다. 환경전략

- 개발에 따르는 적절한 「지역환경평가」와 「예비환경관리계획」을 마련, 종합 개발계획에 반영

2. 사업계획서(Programme Document)

○ 추진 개요

- 서울 1차 PMC 회의('92. 2) 및 북경 WG 1차회의('92. 4)에 제출·논의
- 국별의견을 수렴한 후, UNDP 집행이사회의 결정과 각국의 공식 승인('92. 7~8월중) 이후, 이에 따라 계획안 수립·추진

○ 주요 내용

— 사업 배경

- 구성분야 : 두만강지역개발의 중요성 및 계획연구의 주요 구성 요소 기술
- 국가전략 : 지역개발계획과 대안을 4개 참가국(2개 옵서버국)에게 제시
- 사전지원 : '91.12이후 지원 프로그램은 UNDP에서 비용부담
- 협의기구 : 국별대표로 구성된 PMC와 실무작업을 위한 National Team 구성 운영

— 사업 필요성

- 현황 및 문제점 : 정치·교역상의 장벽으로 항만, 철도, 교역, 자원교류 제약
- 기대목표 : 단기적으로 교역증진 및 신뢰회복, 장기적으로 두만강지역이

- 산업, 교통의 중심지로 개발
 - 수혜대상 : 두만강지역 주민, 참가국, 민간부문 참가자가 수혜
 - 사업전략 : 단기 조치활동과 종합계획 수립의 2개 전략으로 구성
 - 제도정비 : UNDP/OPS 설치, 프로그램 매니저 고용
 - UNDP 지원이유 : 프로그램개발 경험보유, 중립기관으로 참여국 신뢰가능
 - 고려사항 :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연구
 - 조정기능 : PMC 및 OPS를 통한 내부조정과 UNIDO, IBRD 등의 외부 의견 반영
 - 참가국 지원 : PMC 참가, NTS회의 참가, National Office 설치 등 추진
- 개발목적 : 소득증대, 지속적 개발과 관련국의 상호이익 증진
 - 단기목적 및 관련활동 : Work Plan 참조
 - 투입 : National Office를 설치, 인력배치, 훈련 등 추진
 - 위험부담 : 불충분한 자료, 계획 지연, 참가국 협력 부족, 최종 종합계획 불합의 등의 가능성
 - 전제조건 : PMC 및 NT멤버 임명·지원 등을 우선 추진
 - 사업보고와 평가 : 프로그램 매니저는 6개월마다 PMC에 행정적 보고 준비
 - 법적성격 : 프로젝트 document는 참가국이 서명한 법률문서임.
 - 예산 : '93년말까지의 소요예산 351.5만불은 UNDP에서 부담

3. 작업계획(Work Plan)

- 향후 작업계획은 5단계로 구분, '93.12월 최종계획을 확정할 방침
- 1단계('92. 2~'92. 9) : 잠재력 평가 및 개발개념 모색
('92. 10, 2차 배경 PMC에 상정)
- 2단계('92. 9~'93. 1) : 개발대안 결정('93. 2, 3차 PMC 상정)

- 3단계('93. 2~'93. 7) : 종합계획안 수립('93. 8, 4차 PMC 상정)
- 4단계('93. 8~'93. 10) : 최종 종합계획안 수립
('93. 11, 고위 PMC회의 상정)
- 5단계('93. 11~'93. 12) : 계획평가 및 확정

3. 블라디보스톡 국별 전문가 워크숍

가. 회의 개요

- 기 간 : '92. 7. 28 ~ 8. 4
- 장 소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 목 적 : 제2차 PMC회의에 제출할 보고서 준비
- 참가범위 : 한국,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등 5개국과 UNDP 관계자

남북한 참가자 명단

한국 (5명)	북한 (3명)
강대형(EPB 대조실 북방경제1과장)	문송원(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과장)
김학수(KIEP 북방경제실장)	엄기양(국가건설위원회 국토계획 과장)
곽영훈(환경그룹 회장)	한 강(국제기구협조총국 관계자)
오재학(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영휘(무역협회 남북교역반장)	

○ 워크숍 진행

- 워크숍은 「법률·재정반」, 「무역반」, 「Infra반」 등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하고 매일 전체모임을 가져 종합 토의

※ 금번 블라디보스톡 국별 전문가 워크숍에 앞서 UNDP 전문가들은 6~7월초 한국방문을 시작으로 중국, 몽골, 러시아 등을 차례로 방문, TRADP 역내 교역증진 및 개발잠재력을 조사하고 자료수집 활동을 벌임

나. 주요 논의내용 및 합의사항

법·제도반 (사회 : J. Whalen)

○ UNDP의 개발방식(Option A,B)에 대한 각국 의견교환

UNDP의 개발방식 및 관리구조

Option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접경국가가 1~2개지역에 무역특구(Special Trade Zone)를 독자적으로 설치하고 역내 전반적인 정책, 절차, 행정사항을 인접국과 협력하는 방식 • 참가국간 조약으로 「두만강지역위원회」(TRACCD : Tumen River Area Comission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설치 • TREZ내 사회간접시설 개발 및 투자유치는 각국 단독으로 추진
Option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 3국이 공동관리협정을 맺어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식 • 상기 TRACCD외에 역내 항만, 철도 등을 소요·관리할 제 3국 법인인 「두만강지역관리회사」(TRAMCO:Tumen River Area Management Company) 설립 (예 : 법인국적은 버뮤다) • TREZ내에 토지를 장기 임차하여 사회간접시설, 해외투자 유치 등의 공동개발 및 관리

— 중국측은 Option B를 선호하고 UNDP 자문단의 길립성 방문시 Option B에 대한 개선안 제시

- 접경 3국이 조약을 맺어 TREZ의 경계, 50-100년동안 토지임대, 100% 외국 단독소유 인정, TRC에 토지임차 허용 등 합의
- TRC(Tumen River Corporation)는 PMC 참가국과 기타국이 출자하여 설립
- TRC가 TREZ의 공동개발·관리를 담당할 두만강지역관리회사 (TRAMCO)를 설립

- TRAMCO 산하에 4개 자회사 설립

- ① Tumen Power Company(TPC)
- ② Tumen Water Company(TWC)
- ③ Tumen Airport Company(TAC)
- ④ Tumen Industrial and Service Company(TISC)

— 북한측은 Option A를 선호하여 UNDP 전문가그룹 평양 방문시 Option A에 대한 개선안 제시

- 접경 3국의 자국영토에 대한 통치권 절대 확보가 필요하며, 토지 임차 등은 각국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대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제화는 찬성하나 정치적 측면의 국제화는 반대(예 : TRC에 일부권한 양도)
- TRACCCDO(Tumen River Area Coordinat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peration)설립을 제안

- 접경 3개국의 TREZ지역 개발계획 검토
- TREZ내에 사회간접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로 중복투자 방지
- 비상설로 설치하되 상설 산하기구 설치
-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공동노력: TREZ 기금을 설치하고 접경 3개국은 이 기금으로부터 자금조달

— 러시아측은 Option A와 B의 절충안(Management Model)을 제시

- 조직형태는 TRACCCDO를 그대로 따르되 TRACCCDO 산하에 기업 형태의 하부조직이 필요하며 이 기업의 주식중 외국투자가 적어도 25%의 지분을 갖도록 함.
- 각국은 자기 영토에 대한 통치권은 기업에게 양도하지않는 대신,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영토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 각국은 TREZ의 공동개발을 위한 국내법 체제를 정비하고 외국 투자유치는 접경 3국간 별도 혹은 공동 프로젝트 방식으로 유치 가능

○ 회의시 참여국간 종합적 결론

- 개발방식 선정에 대해 특히 중국측이 신축적인 태도를 보임(Option A도 반대는 안함).
- 러시아나 몽골은 북한이 Option B를 절대 반대하는 한 초기단계에서 Option A를 택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음.
- 따라서 향후의 2차 PMC 회의에서 Option A의 채택을 건의하되, Option B나 러시아가 제시한 관리모형(Management Model)도 협상 대상으로 제시하기로 합의함.

무역반

(사회 : B.C. Barclay)

○ 기본전제

- 대상지역: NEARDA(North East Asia Regional Development Area)
 - TREZ는 각국 경제특구의 집합체로서 장기적으로 산업기지와 교통의 중심지로 개발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무역증진을 위한 고려 대상으로는 너무 협소
 - NEARDA도 종래의 범위보다 확대
 - ① 러시아의 극동지역
 - ② 중국의 동북 3성(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
 - ③ 몽골
 - ④ 남·북한 전지역
- 단계별 전략
 - 1단계 : NEARDA 역내의 단기무역 증진으로 국가간 신뢰회복 촉진
 - 2단계 : TREZ를 통한 통과무역의 증진
 - 3단계 : 사회간접시설의 개선으로 역내 및 부분적인 역외무역 증진
 - 4단계 : TREZ 지역내 대단위 수출지향형 산업의 유치로 제3지역과의 무역증진

— TRADP에서 무역의 역할

- 초기단계부터 접경 3국의 적극적 협조와 제3국으로부터 투자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협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단기”역내 무역증진으로 관련 국가간 신뢰 및 협조 분위기 조성

○ 역내 무역현황 및 장애요인

- 5개의 NEARDA 국가중 한국만이 국제관행에 따른 무역을 수행하며 접경 3국간의 무역은 barter trade에 의존
 - 금융기관의 미발달로 현금결제 수단 미비
 - 3개국 공히 경화부족 문제 직면
- NEARDA 5개국중 러시아,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간에 최혜국 대우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 무역증진을 위한 여러가지 서비스 기능이 미비

○ 단기 역내무역 증진을 위한 건의

- 접경 3개국간 바터무역 증진을 위해 무역 분쟁해결기구 설립
- 무역관련 기본 data base 구축 및 각국간 공유
- 각국이 무역증진 기구 설립(예: KOTRA)
 - 한국을 제외하고는 현재 무역증진 담당기구가 없음.
- 상과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UNDP 예산중('91~'92) 일부를 각 NT에게 지원

Infra반

(O. Holms)

○ 개 요

- UNDP의 Senior Advisor인 Holms의 개요설명과 접경 3개국 등의 개발구상에 대한 설명

- 각국이 구상중인 시설계획중 국가간 상호조정 및 협조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 NT간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개발계획 및 개념에 대한 동의를 도출

○ 항 만

- 북한의 나진·선봉, 러시아의 포시에트항이 주요항만으로 거론됨.
 - 러시아측은 포시에트항이 환경 및 생태계 영향으로 더 이상의 항만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적함 → 트로이차만을 항구로 개발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
- 나진과 트로이차가 주요 컨테이너항으로 개발가능하나 트로이차의 수심을 고려한다면 이곳을 Bulk항으로 개발함이 좋다는 의견 제시 (Holms)
- 중국, 몽골은 TREZ내의 4개항을 통과무역을 위한 주요항으로 이용할 것에 동의
 - 중국과 몽골에 내륙화물 집하장(Inland Port)를 설치할 것으로 제의
- TREDAn내의 항만으로는 북한의 청진항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항이 거론되었음.

○ 철 도

- 북한 나진, 중국의 훈춘, 러시아 크라시노프를 연결하는 복합궤(광궤+표준궤) 유회환망 철도 건설계획에 동의
 - 향후 물동량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복합궤 대신 국경역에서 환차 시설을 갖추자는 의견도 대두
 - 중국과 러시아는 훈춘-크라시노프간 복합궤 철도망 건설을 합의 ('92. 6)
- 중국측은 경신에 내륙화물 집하장을 건설하고 훈춘-경신간의 철도 건설계획 제시
 - UNDP 등 전문가들은 내륙화물 집하장의 입지로 훈춘시 남단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 제시

— 몽골측은 TREZ와 몽골 동북부 경제특구인 “초이발산”까지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을 구상

• 현재 국경에서 “초이발산”까지 450km가 미연결되어 있다 함.

• 향후 수송물량의 예측 등 경제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이 철도가 완성되면 현재 블라디보스톡을 통해 유럽으로 연결되는 TSR보다 나진-중국 동북부-몽골-유럽으로 통하는 route가 약 1,000km 단축된다고 함.

○ 도 로

— TREZ내의 기존 도로망은 대부분 비포장으로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나진-선봉-훈음-훈춘-크라시노프-나진) 운환망 도로 건설 계획에 모두가 동의

— 중국과 러시아측은 국경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훈춘과 크라시노프를 연결하는 연장 약 51km의 도로건설을 오는 4월부터 착공할 예정임.

○ 공 항

— TREZ내에 주요 국제공항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였으나, 각국은 공항의 입지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의견을 제시

• 중국측은 경신동쪽의 중·러 국경지점을, 러시아는 기존 블라디보스톡 공항의 확장 개발을, 북한측은 웅상항 부근의 호수에 근접한 위치를 공항 입지로 제시

○ 도시개발계획

— TREZ내에 주요 상업·행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심국제도시를 학성-경신에 건설하는 개발계획이 논의되었으며, 중심국제도시는 국제공항, 국제전신전화센터, 국제대학 등의 제반 주요시설을 포함시킬 것을 논의하였음.

○ 용 수

— 중국과 북한은 TREZ 지역내에 풍부한 지하용수와 전력을 갖추고 있는 반면 러시아의 핫산지역은 전력 및 용수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중국과 북한측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었음.

• 중국과 북한측은 이에 적극 협력할 것을 동의함.

4. 제2차 PMC 회의

가. 회의 개요

○ 기 간 : '92. 10. 9 ~ 10. 11

○ 장 소 : 중국 북경(International Hotel)

○ 주요의제

— 두만강지역개발을 위한 법·제도분야 토의(개발대안의 선택)

— 역내무역 증진을 위한 단기조치

— 인프라 및 산업분야 계획

○ 참가범위

— 회원국 :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및 UNDP 관계자

— 옵서버 : 일본, 핀란드, ADB, WORLD BANK

남북한 참가자 명단

한국 (7명)	북한 (3명)
<p>〈PMC 대표〉 김태연(EPB 대외경제조정실장) 신장범(외무부 국제경제국 심의관) 유희열(과기처 기술협력국장)</p> <p>〈읍서버〉 강대형(EPB 북방경제1과장) 장현식(상공자원부 북방통상과장) 김학수(KIEP 북방경제실장) 신용식(신신법률사무소 소장)</p>	<p>럼태덕(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서기장) 등</p>

나. 주요 회의결과

- 접경 3개국의 경제특구 개발 및 관리에 적용할 TRADP 4가지 기본원칙에 합의
 - 임차된 토지에 대한 각국의 통치권 인정(주권존중)
 - 토지임차에 대한 협의는 각국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토지임차)
 - 두만강지역 개발을 위해 정부간 조정기구 산하에 국제기준에 맞는 국제관리(International management) 회사가 필요(국제관리)
 - 외국투자 유치에 위해 두만강지역이 최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투자유치)

- 2원화된 “정부간 조정기구”를 설립기로 합의
 - 두만강지역개발과 관련하여 보다 넓은 지역의 협력 문제를 다루기 위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접경 3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조정기구로서 현재의 PMC체제와 유사한 5국 “정부간 조정위원회”와

- 두만강하구 TREZ내의 개발과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로서 집경 3개국만 참가하는 “조정기구” 및 “관리회사”를 설립(“관리회사”에는 출자자도 참가)
 - * 정부간 조정기구의 구성과 기능 등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한 뒤 3차 PMC회의에서 논의기로 함.
- UNDP의 두만강지역개발 “사업계획서”(Program Document)에 대해 5개국 대표가 서명
 - '92~93년말 고위 정부관계관 회의시까지의 사업예산을 350만불에서 450만불로 증액 확정(핀랜드가 100만불을 TRADP에 기증)
- 예비 타당성 검토를 위해 수송부문 마스터플랜을 작성
 - 철도, 도로, 항공 및 항만을 포함
- 두만강을 중심으로 한 보다 넓은 지역(NEARDA/TREDA)을 포괄한 개발잠재력 평가를 위해 자원, 무역, 산업부문의 분야별 연구를 계속해 나감.

다. 주요 논의내용

- 대부분의 참가국들이 두만강지역개발을 위한 정부간 조정기구 및 그 기능 등 제도적 측면에 관심이 집중되어, 이 부분을 집중 토의
- 무역증진과 인프라 분야는 각국의 별다른 의견 제시없이 보고서를 그대로 채택
 - ※ <참고자료 7>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 관한 UNDP의 제안내용 참조
- 개발대안의 선택문제에 있어 지금까지 각국이 선호하는 대안(북한의 Option A, 중국의 Option B, 러시아의 “관리모형”)을 따로 검토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각 대안별로 각국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하여 항목별로 동의를 얻어감으로써 기본 4개원칙 등 많은 부문에서 합의를 이루었음.
- 러시아가 지금까지 옵서버국으로부터 정식 PMC 회원국으로 가입

- 유럽국가중 핀랜드가 TRADP에 100만불을 기증함으로써 TRADP에 관심을 보임.
 - UNDP 전문가에 의하면 유럽지역의 기업들도 TRADP에 관심이 많다 함.
- 세계은행측은 TRADP가 서방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계량적,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
- ADB는 TRADP에 관심을 표명하고, 회원국인 중국과 몽골에 대해서는 개발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북한과 러시아는 비회원국이므로 자금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
- 제3차 PMC회의 일정 협의
 - 시기 : '93. 5
 - 장소 : 미정
- 향후 6개월 동안의 작업계획을 결정
 - “금융조달협의반”(Financial Consultative Group)의 자문을 받아, 국제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에게 배포할 TRADP 사업취지 설명서 안(prospectus)을 작성, 제3차 PMC에 제출
 - 제3차 PMC회의에 대비, 제도부문과 관련된 “국가간 합의문” 초안을 준비
 - TRADP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통신개발을 위해 통신 부문 작업반을 설립하여 마스터플랜을 작성
 - 제1차 통신전문가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기로 합의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 관한 UNDP의 제안내용(요약)

— 제2차 PMC제출 보고서 —

〈교역·제도분야〉

I. 교역부문 제안

1. 기본전제

- 대상지역 : NEARDA를 고려키로 함.
- 가장 손쉽게 협력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단기” 역내 무역 증진으로 관련 국가간 신뢰 및 협조분위기 조성

“단기” 및 “역내”의 개념

- ① 새로운 NEARDA를 지역범위로 선정
- ② 시간적으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대안
- ③ 각국의 정치적·정책적 협의나 결정이 필요하지 않는 상태
- ④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지 않는 조건
- ⑤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한도(외국투자 및 자금조달 등)

→ 최소한의 비용으로 손쉬운 부문부터 시행함으로써 TRADP의 본격 가동을 촉진시킴.

2. 역내무역 현황

가. 일반현황

- 5개의 NEARDA 국가중 한국만이 국제관행에 따른 무역을 수행
 - 중국, 러시아, 몽골은 무역관련 규제를 완화해가는 추세이고 북한은 개방의 속도가 제일 느림
- 5개 국가의 총교역량중 역내무역의 비중이 6~7%에 불과('91,'92)
 - 중국 동북 3성과 러시아 및 북한과의 교역은 전체 중국 교역량의 0.5% 수준에 불과
- 접경 3국간의 무역은 바터무역에 의존
 - 금융기관의 미발달로 현금결제수단 미비
 - 3개국 공히 경화부족 문제 직면
 - * 상과과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임.
- 3개 국가의 무역은 “National trade”(원유 등 전략물자), “Individual trade”가 급증하는 추세임.

나. 무역증진 장애요인

- NEARDA 5개 국가중 러시아-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간에 최혜국 대우를 시행하고 있음.
 - 관세제도 외에 무역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행정절차는 파악되지 못했음.
- 기타 무역증진을 위한 여러가지 서비스 기능이 미비
 - 금융·보험, 부동산, 통신, 호텔서비스, 도·소매업 등 도시 서비스 기능이 미비
 - 무역에 관한 기초통계가 한국과 중국 외에는 조사·발표되지 않고 있음.
 - 무역종사자, 품목별 공급자 list가 한국·중국을 제외하고는 공표되지 않아 이들 국가와의 교역상대자는 개인정보에 의존하고 있음.
- TREZ내에 위치한 나진항을 통한 통과무역

-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일본까지의 수송은 대부분 대련항을 통과하고 있음.(80~90%)

이 유

- ① 북한측이 높은 항구이용 요금을 요구(특히 달러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② 북한측이 중국화물차의 반납을 한달이상이나 지연
→ 중국의 화물차 부족현상 초래
- ③ 나진지역 통신시설 미비
- ④ 나진까지의 철도설비가 낙후되어 있어 거리는 가까우나 소요 기간이 대련과 비슷함.
- ⑤ 일본의 대부분의 항구는 큰 항구를 제외하고는 동쪽 해안에 위치해 있어 해상로도 대련과 나진이 비슷함.

○ 단기 역내무역 증진을 위한 건의

- 접경 3개국간 바터무역 증진을 위해 무역 분쟁해결기구 설립
- 무역관련 기본 data base 구축 및 각국간 공유
 - 국제적으로 표준화되고 비교가능한 무역관련 기본통계(최소한 HS 6단위)
 - 역내국가들의 무역업자, 각 품목별 공급·생산자의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 상기 기본 database를 컴퓨터로 연결하여 각국이 공동으로 이용
 - 상기 사업을 수행할 각국의 기관 지정
- 각국이 무역증진 기구 설립(예: KOTRA)
 - 한국을 제외하고는 무역증진 담당기구가 없음.
(중국은 국제무역촉진위(CCPIT)가 일부업무를 담당)
 - 북한은 기존의 국가기구(대외무역부) 혹은 그 산하에 새로운 국가 기구를 설립

- 몽골과 러시아는 민간부문으로 기구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기존의 상공회의소 등)
- 상기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UNDP 예산중('91~'92) 일부를 각 NT에게 지원

3. PMC 결정 및 권고사항

〈Point 1〉

- 향후 6개월 동안 수출지향 공업단지 개발과 TREZ를 통한 통과무역에 대한 예비 타당성 검토에 주력
 - 각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trade flow analysis team을 구성하되 UNDP 전문가의 조언과 지도 필요
 - 다음 두가지에 초점을 두고 추진
 - ① 중국 동북지방으로부터 대련과 TREZ간의 수송거리·시간 등의 경제성 비교
 - ② 몽골로부터 동북아에 이르는 수송물량을 취급하기 위한 새로운 철도부설의 타당성 검토

〈Point 2〉

- Trade flow analysis에는 국별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의 선정은 프로그램 매니저가 하고 보수도 지급해야 할 것임.

〈Point 3〉

- 동양의 로테르담(Rotterdam of the East)을 건설하기 위한 경제·기술적 타당성 조사 뿐만 아니라
 - 보다 넓은 범위의 지역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마련에 관심을 집중

〈Point 4〉

- 역내교역 증진은 시범사업 차원에서 먼저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그 다음 단계별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
 - NEARDA 역내교역의 상호 보완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
 - '93. 2월까지 교역동향에 대한 통계마련 및 전지역에 걸친 통계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 교역증진 가능성이 가장 높은 15~20개 상품부문을 선정
 - NEARDA내 미시적 산업부문의 수급분석을 통하여 위 상품 수출입 교역에 적정한 기업을 선정
 - 역내교역 관심을 높이기 위한 2~3개의 시장센터(예 : 연변, 목단강, 만주리 등) 설립과 판매자·구매자간 박람회를 조직

〈Point 5〉

- “교역의 상호 보완적 분석”이 완결된 이후 15~20개 품목에 대한 수요·공급 분석 실시('93. 1/4분기중)
 - 파일럿 프로그램의 “판매자·구매자” 조직화 단계의 정보 제공과 함께 기업차원의 조사사항은 “NEARDA 교역파트너 명부” 작성에 이용될 것임.

〈Point 6〉

- 시범적 차원의 역내교역 증진기회 연구와 상업적 파트너 명부는 국별 실무 그룹 회의의 작업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음.
- 따라서 전문가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작업을 사무국의 지도하에 지역 또는 국별 무역진흥기관에 하청·위임할 수도 있겠음.

〈Point 7〉

- NEARDA내 “판매자·구매자” 계약 회합에는 국별 50개의 잠재 기업이 초청 (총 150개 기업)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서 경비를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을 제안함.

- 국별 WG(또는 역내교역 증진기관)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4, 5개월 동안의 국제자문도 프로그램에서 지원

〈Point 8〉

-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무역진흥기관을 설립하는데도 지원할 것을 제안함.
 - 교역 데이터 베이스와 “교역파트너 명부” 등의 자료는 이러한 무역진흥 기관 업무와 연관되기 때문임.
- 특히 NEARDA 역내 정부관료는 한국의 제도적 인프라와 교역증진 프로그램을 먼저 검토하고, 원하면 조언을 제공할 것을 제안함.

〈Point 9〉

- 러시아 극동지역은 각지역별 독립적인 무역진흥기관보다 단일의 무역진흥기관 설립을 건의함.
 - 길림성, 흑룡강성과 내몽골의 교역진흥기구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추진하도록 제안

〈Point 10〉

- TREZ의 전문 컨테이너항으로 개발될 수 있는 나진항이 현재까지 적극 이용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는 단기조치를 제안함.
 - 높은 화물처리 비용의 저하, 물동량의 회전기간의 단축, 효과적인 통신망의 개선 등이 이루어질 경우, 나진항이 중국·러시아 등의 많은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시사하고 있음.

〈Point 11〉

- 국별 실무작업반(NWG)은 역내무역 증진에 애로요인이 되는 사회간접시설 상황을 지적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계획수립에 TRADP program의 재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사무국 코멘트

- 무역증진을 위한 NT 활동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
 - 무역증진을 위해서는 쌍무적 무역협정이나 수송체제 확충 등의 계획이 효과적임(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사례).
 - 자금지원은 참가국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계획에 한해서 지원해야 함.
 - 참가국들의 관심사항은 교역증진보다는 제도나 사회간접시설 부문에 있음.
 - 접경국가와 몽골의 무역진흥 관련자에 대한 훈련, 무역진흥에 대한 연구 등에 TRADP 기금을 지원할 예정임.
 - 수분하(Suifenhe), 그로데코프(Grodekov)와 만주리(Manzhouli)간의 국경 수송 애로부문 해결을 위한 연구에 TRADP 기금을 지원할 방침임.

II. 제도부문 제안

1. 개발대안

가. UNDP의 개발방식(Option A, B)

Option A

- 참가국들의 조약으로 TRACCD(Tumen River Area Commission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설치
 - 역내 국가들간의 무역진흥 등 장단기 협력방안 논의
 - 3개 접경국(중국, 북한, 러시아)과 몽골, 한국 등 기타로 구성
 - Commission 산하기구로 상설조직과 각국의 Working Group을 설립
 - TREZ내 Infra 개발 및 투자유치는 각국 단독으로 추진

Option B

- 상기 TRACCD 외에 TRAMCO(Tumen River Area Management Company) 설립
 - 접경 3개국은 각국의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두만강지역개발 관련 “공기업”을 창설
 - TRAMCO는 각국 “공기업”의 출자에 의해 제3국 법인으로 설립(예 : 버뮤다)
 - TRAMCO는 TREZ내에 토지를 장기임차하여 인프라시설, 해외투자 유치 등 공동개발 및 관리를 담당

<각국 의견>

- 중국측은 Option B를 선호하여 UNDP 자문단들이 길림성 방문시 Option B에 대한 개선안 제시(The Jilin Revision of Option B)
- 북한측은 Option A를 선호하여 UNDP 전문가 그룹 평양방문시 Option A에 대한 개선안 제시(The Pyongyang Revision of Option A)
- 러시아측은 Option A와 B의 절충안을 제시(워크숍 기간중)
- 몽골은 Option B가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하나 북한측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Option A도 가능할 것이라는 의사 표시
- 한국측은 중립을 지킴.

나. 중국측 대안(The Jilin Revision of Option B)

- 접경 3개국이 조약을 맺어 다음 사항을 합의
 - TREZ의 경계를 확정
 - 50~100년 동안 임차
 - 100% 외국단독소유 인정
 - TRC(Tumen River Corporation)에 토지임차 인정

- TRC는 PMC 참가국과 기타국이 출자하여 설립
 - 접경 3개국은 우선주를, 기타국은 보통주를 배분
 - TRC의 의사 결정중 접경 3국의 주요 사회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Social Issue)은 우선주 보유국(접경 3국)만이 결정권을 갖고, 일반적인 TRC 경영에 관한 문제는 보통주 보유국도 투표권을 보유
 - TRC 회장은 전 IMF 고위관리 등을 영입하고, 이사회는 접경국 뿐만 아니라 몽골, 한국 등 TRADP 참가국과 일본 등 잠재 투자국, ADB, IBRD 등 국제금융기관 인사도 포함
- TRC가 TRAMCO를 설립토록 함
 - TRAMCO는 UNDP Option B안과 같이 TREZ의 공동개발·관리를 담당
 - TRAMCO 산하에 4개 자회사를 설립
 - ① Tumen Power Company (TPC)
 - ② Tumen Water Company (TWC)
 - ③ Tumen Airport Company(TAC)
 - ④ Tumen Industrial and Service Company(TISC)
 - TRAMCO의 기능은 공동개발·관리 외에 각종 영업권 계약에 대한 협의, 세금과 사용료(Royalty) 징수, 부채 상환, TRC에 이익의 납부 등을 담당

다. 북한측 대안(Pyongyang Revision of Option A)

- 접경 3국은 자기의 영토에 대한 통치권은 절대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토지에 대한 임차 등은 3개국의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북한은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국제화는 찬성하나 정치적 측면에서의 국제화에는 반대(예 : TRC에 일부 권한을 양도)
- TRACCCDO(Tumen River Area Coordinat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and Operation) 설립을 제안
 - 접경 3개국의 TREZ지역 개발계획 검토
 - TREZ내에 Infra 설치에 대한 협의로 중복투자 방지

- 비상설로 설치하되 상설 산하기구 설치
-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공동노력 : TREZ 기금을 설치하고 접경 3개국은 기금으로부터 자금조달

라. 러시아의 절충안(Management Model)

- 조직형태는 TRACCDO를 그대로 따름.
- 그러나 TRACCDO 산하에 기업형태의 하부조직이 필요하며 이 “기업”의 주식중 외국투자가 적어도 25%의 지분을 갖도록 함.
- 각국은 자기영토에 대한 통치권은 “기업”에게 양도하지 않는 대신,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영토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지도·감독할 수 있음.
- 각국은 TREZ의 공동개발을 위한 각종 조약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내법 체제를 정비해야 함.
- 외국투자의 유치는 접경 3개국 개별로 실시하여 경쟁관계에 놓이던지 혹은 공동 Project를 개발하여 공동 유치하든지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임.

마. C안

- 러시아 Shcherbina의 Management Model을 개선한 안
 - Coordinating Committee를 설립하는 것은 상기 Management Model과 동일함.
 - CC의 결정(영토에 대한 통치권 포함) 만으로는 각국의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그 결정이 각국에 의해 비준되면 각국의 경제특구내(TREZ)에 영향을 미침
 - CC 산하에 “기업” 형태의 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Management Model과 동일
 - 회사가 토지임대권을 가지나 CC의 산하기구로 역할을 수행
 - TREZ내의 Core City에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국제화도 가능
- 제2차 PMC회의의 의장은 Option C를 협의를 위한 출발점으로 제안

2. 두만강지역계획

가. 프로그램의 구역

* 프로그램 구역계획은 목적에 따라 3개로 구분

① 두만강경제지대(TREZ)

- 중국은 훈춘지역, 북한은 나진·선봉특구를 중심으로, 러시아는 트로이차항까지 각국마다 의견 상이
 - TREZ 범위 : 3,000km²(중국 621, 북한 312, 러시아 2,068km²)
- 문제점 : 중·북한간 연결 외곽도로가 TREZ 밖에 있어 물자이동이 어렵고, 중국은 기존 공업지대(훈춘시)를 제외하기를 원함.

② 두만강경제개발지역(TREDA)

- TREZ의 배후지와 연계 가능성, 기존행정 경계 등에 따라 결정
- 중국은 길림성 4개 지역(훈춘, 도문, 용정, 연길), 북한은 청진, 나진, 선봉 및 중국과 연계되는 철도연변,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 경제지역(나호트카, 보스토치니 포함)을 의미
 - TREDA 범위 : 112천km²(중국 57천, 북한 40천, 러시아 15천km²)

③ 동북아지역개발지구(NEARDA)

- 한국, 북한, 중국(동북 3성), 몽골(극동 4개성), 러시아(극동지역)을 포함

나. 두만강 프로그램의 타당성 및 개발 잠재력

1) 프로그램의 타당성

-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교역 확대, 효율적인 수송로 개발, 배후지와의 상호 보완성에 입각한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의 계량화가 불분명하고, 러시아, 몽골이 경제재건 과정에 있으므로, 개발계획은 ①단계적으로 실행되고 ②계획범위와 규모는 유연성이 있어야 하며 ③NEARDA지역까지의 개발범위를 포괄하여야 함.

2) 개발 잠재력

○ 교역 및 운송

— TREZ/TREDA지역은 항구·철도 등의 건설을 통한 운반거리의 단축으로 연계무역지로 개발가능한 입지적 잠재력이 있음.

① 시장 및 배후지 :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 동북지역 등 (흑룡강성·길림성) 배후지의 경제잠재력 존재

② 주요화물 유출입 : 장기적으로는 화물운송이 늘어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중국 동북부는 대련항을 이용하고, 러시아와 중국간 화물은 기존 철도망을 활용하므로 TREZ 역내 운송 잠재력은 낮음.

— 개발전략은 단기적(5~10년)으로는 기존시설 활용과 기존 수송망 연계를 확충하고 기존항구의 이용도를 높이도록 추진

○ 공업 개발 잠재력

— TREZ/TREDA역내 상호교역의 증가, 자원활용을 통한 생산비 절감, 규모의 경제에 의한 외부경제 효과 등이 가능함.

— 중국 동북부(연변, 훈춘)

- 동북 3성은 각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중앙정부는 훈춘자유경제지역을 지정했으나, 동서간 교통계획은 중앙차원에서 미확정
- 훈춘자유경제지역은 연변자치주 차원에서 개발 추진

— 북한(청진, 나진, 선봉)

- 나진, 선봉지역을 경공업 및 중국과 연계한 컨테이너 기지로 개발하고 항만시설 확충 등을 추진
- 화물수요면에서 중국, 러시아의 항구와 경쟁관계에 놓여 있어 타당성 분석이 결여

— 러시아 연해주

- 블라디보스톡, 나호트카, 보스토치니의 광역지역개발 추진
- 연해주의 주요개발 관심은 중국(훈춘공업지대)으로부터의 화물처리를

위한 수송체계(철도 및 항만) 확충에 있음.

○ 관광 개발 잠재력

- 일일관광(TREZ내 관광지), 주말관광(중국동북부, 블라디보스톡), 해안 관광, 유람선관광(블라디보스톡), 자연관광(역내에는 부족), 성지관광(백두산), 도시·문화·역사관광(블라디 보스톡) 등 관광시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인프라·산업·통신 및 환경부문〉

1. 경 위

- UNDP 자문단이 92년 7. 4~8. 5일 동안 「데이터 수집 Mission」에 참여했음.
 - 5개 참여국을 방문, 산업·인프라 및 환경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NT와 각국의 계획에 대해 토의
- 「블라디보스톡 회의」 기간중에 각국 NT와 현지 조사단은 TRADP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음.

2. 내용요약

산 업

가. 현황 : TREZ 역내의 주요산업으로는 농업과 수산업이 있음.

- 제조업 중심지인 청진, 블라디보스톡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이 거의 없음.
- 서비스업은 발달되어 있지 않고, 관광업 역시 특정지역(블라디보스톡, 백두산)에 국한되어 있음.

나. 개발전략

- 두만강지역 개발전략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출지향 경공업의 육성
 - 지역의 천연자원을 이용한 1차 또는 가공산업의 육성
 -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육성
 - 관광업의 개발

다. 경공업

- 북한과 중국은 경공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경공업 단지를 지정하였음.
 - 노동력과 용수·전력이 풍부한 이점이 있음.
- 러시아는 노동력·용수·전력이 부족하며, 생태계 보호에 관심이 높음.
 - 잘 훈련된 관리인·기술자·과학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 경공업 보다는 연구중심 산업의 육성이 바람직함.
- 권고 프로그램
 - 경공업 단지조성을 위해서는, 컨테이너 처리 시스템의 도입 및 해운업체 참여가 필요하며, 2개의 대안이 가능함.
 - ① 나진항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개선시킴.
 - ② 기존의 컨테이너항인 블라디보스톡과 보스토치니에서 컨테이너를 처리하도록 함.
 - 장기적으로는 나진항이나 러시아 지역의 새로운 현대식 컨테이너항의 개발이 필요함.
- 기타 권고 프로그램
 - 전기·용수 등의 기반 시설이 마련된 산업기지의 조성
 - 기업이 임대 입주할 수 있는 표준공장 건물의 개발
 - 접경 3국의 세제, 경제적 유인제도, 소득 관련 법의 통합

— 배후지역의 부가가치 증진 잠재력에 대한 조사

라. 1차 또는 가공산업

- 천연자원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잠재력 평가가 어려우나, 권고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자원의 종류 및 규모·경제성에 대한 평가 및 조사를 실시함.
 - 자원개발 기업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함.
 - 천연자원을 이용한 1차 또는 가공산업은, 관련 인프라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case-by-case로 선정함.
 - TREZ 역내에 대단위 컨테이너 터미널을 설치함.
 -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접경 3국의 전력 시스템 통합
 - 장기적인 용수공급에 대한 조사 및 용수개발 프로젝트를 마련함.

마. 서비스 산업

- 제조업과 운송업의 발전에 대응하여 관련 서비스 산업을 개발해야 함. TREZ 뿐만 아니라 NEARDA 지역까지 확장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임.
- 권고 프로그램
 - 통신관련 프로그램의 추진으로 신뢰할 수 있고, 비용이 낮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내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함.
 - 현대식 국제공항을 건설하여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하며, 이 지역에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
 - TREZ내 금융·보험업의 개발을 위해서는 현대적인 금융·보험 규정을 마련해야 함.
 - 기업인 및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숙박시설, 호텔, 레스토랑 및 쇼핑센터의 개발을 장려함.

- 관광업을 육성하고 휴양지, 골프장, 레저시설, 역사적인 유적지 및 사회·문화 활동을 개발해야 함.

인프라

가. 항 구

- 청진과 블라디보스톡은 각국의 계획에 따라 개발할 것이나, 나진, 선봉, 포시에트와 트로이차만 항구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개발될 것임.
 - 북한은 선봉의 석유타미널을 확장하고 나진항을 컨테이너항이나 bulk항으로 개발할 계획임.
 - 러시아는 포시에트를 bulk 항구로, 트로이차만을 컨테이너항으로 개발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
 - 트로이차만의 수심을 고려할 때 이곳을 bulk항으로 특화함이 타당할 것임.
- 중국과 몽골의 화물은 TREDANE의 연계항에서 처리되어야 함.
 - 중국은 두만강의 방천에 소규모 선박항을 개발하려고 하나, 제약요인을 먼저 고려하여야 함.

나. 철 도

- TREDANE의 철도를 상호 연결하고 현대화하여야 함.
 - 중국과 러시아는 훈춘-크라스키노간 철도궤도를 복합궤도로 하고 포시에트, 트로이차만 항구까지 연결함.
 - 청진-햇산간 복합궤도(Combined gauge track)를 트로이차만까지 연장하여야 함.
 - 내륙화물집하장(Inland port)까지의 수송을 위해 신철도 노선의 추가건설이 필요함.
 - 중국은 경신을 내륙항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훈춘 공업도시에 가까운 지역이 선정되도록 연구하여야 할 것임.

- 몽골은 두만강유역에서 길림성·장춘을 거쳐 초이발산으로 철도를 연결할 계획이나 이러한 제안은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함.

다. 도로, 고속도로

- TREZ내 기존 도로망을 연결하고 시설을 개선하여야 함.
 - 항구·내륙항구·공항 및 상업·행정 중심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망 설치에 주력하여야 할 것임.

라. 공 항

- 주요 국제공항의 개발이 필요함.
 - 러시아는 기존 블라디보스톡을 국제공항으로 유지할 것을 희망하였으나, 중국이 주장하는 국경근처의 경신 동부지역을 새로운 공항 후보지로 하는데에 대해서도 지지
 - 북한은 웅상지역을 국제공항으로 개발할 계획임.

마. 전 력

- TREDANE 전력 공급량은 2,200Mw(블라디보스톡 인근 3개 발전소 포함)로 현재로서는 전력이 풍부함. 2000년까지는 현재의 2,200Mw를 3,400Mw로 확충할 계획임.
 - 러시아의 전력사정은 소용량 송·배전선의 사용으로 전력공급 중단이 자주 일어남. 중국·북한은 전력문제가 비교적 양호한 편임.
- 접경 3국의 전력시스템이 하나로 통합·연결되는 경우, 전력공급이 안정될 것임. 전력 시스템 연결을 위한 2가지 대안을 권고함.
 - ① 각국이 독자적 전력시스템을 운영하고, 국경지대에 미터기를 설치, 계약 조건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
 - ② 민간 전력공급업체를 설립하여 각국의 전력시스템과의 계약에 따라 전력을 “구입”하고 TREZ내 소지역 혹은 중앙 비즈니스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

바. 용 수

- 중국과 북한은 지하용수 자원이 풍부하며, 댐건설 계획을 이미 마련하였음.
 - 그러나, 러시아는 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아야 할 것임.

사. 폐수 및 쓰레기 처리

- 각 산업체 및 지역공동체는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잘 정비된 안전한 매립지에 고체 폐기물을 매립하여야 함.

통 신

- 통신은 경제개발의 중요한 요소이며 서비스 산업개발에 기본이 되므로
 - ① 통신의 규제·감독기구의 창설을 제안함.
 - TREZ내 통신을 관장하고 규제를 책임지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며, 경제적 비용에 기반을 둔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② 운영체제는 시장경쟁 원리에 입각하여야 함.
 - 기술규격에 합격한 통신기기의 자유로운 판매와 부가가치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고, 상용화가 자유로워야 함.
 - 지역통신 서비스 및 기본 서비스는 각기 다른 기술을 사용하는 2개의 상호 독립된 통신 사업자가 제공함.
 - 역외국가 및 국제통신망과는 최고질의 통신망으로 연결될 것임.
- 통신관련 작업계획 요지
 - TREZ 통신을 관장하게 될 규제·감독기구 및 가격체제 설정
 - 장기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내 최소한의 통신 서비스 공급을 조속히 추진

지역개발

- TREDA의 3개 삼각지점은 북한의 청진, 중국의 연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으로 구성됨.
- 경공업단지 육성 후보도시로 다음 도시가 선정되었음.
 - 북 한 : 나진·선봉
 - 중 국 : 훈춘
 - 러시아 : 자루비노, 트로이차만
 - 몽 골 : 초이발산
- 상업·행정센터로는 학성-경신-레베디노제 지역이 국제도시(UN도시) 형태로 개발되어야 함.
 - 국제공항, 국제 teleport, 국제대학을 설립함.
 - 이 개념은 더 연구되어야 함.

환 경

- 오염규제 정도 및 규제요건 등 환경규제가 강화되어야 함.
- TREZ와 TREDA 개발은 환경영향의 평가후에 실시되어야 함.

단기목표

- 단기목표로는 교역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송, 통신의 양부문이 개선되어야 함.

가. 도 로

- 도문-남양도로를 청진까지 연장하고 포장해야 함.
 - 훈춘 서쪽 1km의 혼룡교량을 개축하고 차량·철도수송이 가능하도록 함.
- 훈춘-러시아 국경간 도로는 보수후에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 이 도로는 국경으로부터 크라스키노, 포시에트, 트로이차만까지 연장해야 함.

나. 철 도

- 연길-훈춘간 철도건설이 빠른 시일내 완공되어야 함.
 - 훈춘-크라스키노 철도를 트로이차만으로 연장하는 건설을 추진하여야 함.
- 청진 북쪽에서 출발, 웅상-청진까지 연결되는 철도를 확충해야 하며, 철도 차량을 교체해야 함.

다. 항 구

- 현재로서는 화물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으나, 예상되는 화물량 급증에 대비, 시설을 확장해야 함.

라. 공 항

- 연길공항 증축·개축공사는 계획 단계에 있음.
 - 청진, 블라디보스톡 공항 증·개축공사도 추진되어야 함.

마. 통 신

- 두만강지역내 무역센터를 연결할 수 있는 microwave 시스템 설치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
 - 산의 정상을 통한 연결이 가능한지 우선 지형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지역통신망 접속능력과 최소한의 교환시설이 마련되어야 함.

차기 작업계획

- 인프라에 대한 단기 작업계획은 상기 인프라 시설의 조사 및 추진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TRED(특히 TREZ에 주안점을 둔) 역내에 대한 산업·인프라 시설의 기초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함.

사무국(Secretariat) 코멘트

○ 제2차 PMC회의에서 검토해야 할 인프라, 환경부문의 새로운 전략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① TRADP National Team에 Telecommunication Group을 설치함.

- 지역 통신망을 연결하는 단기 긴급계획(Urgency Plan)을 수립하며, 제 3차 PMC회의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기술·법·상업·자금조달 관련 권고안을 제출토록 함.
- 주요 문제는 microwave tower 설비를 이용한 통신망 통합 및 종합적인 통신규제 프로그램의 마련임.

② 사무국(Secretariat)은 아래 분야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착수함.

- 철도 합리화 및 철도 Hub 건설계획, 고속도로망, 전력통합 공급체제 연구, 민간 전력배전업체의 설립, 용수·폐수 처리시설 및 그 규모의 경제성, 관광업, 인프라 시설의 환경기준, 다자간 개발은행 설립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추진

③ 각국의 투자자에게 배포할 사업취지설명서(Prospectus)를 작성

- 사무국(Secretariat)과 각 NT는 두만강경제개발지역내의 투자를 촉진·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함.

④ 위의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무역금융이나 무역진흥 전문가를 가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하여 TREDAn내의 상업·금융업을 설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

- 산업·인프라 보고서에 있는 산업공원의 조성, 생산·창고 시설의 설치 등 다른 권고사항은 위 프로그램의 추진과정에 필요한 수요를 공급하도록 해야 할 것임.

- TREDAn 배후지역의 구체적인 조사 실시

5. 제3차 PMC 및 WG회의

가. 회의 개요

○ 기 간

- 실무그룹(WG) 회의 : '93. 5. 5 ~ 5. 7
- PMC 본회의 : '93. 5. 9 ~ 5. 10

○ 장 소 : 북한 평양(인민문화궁전)

○ 주요의제

- 두만강개발을 위한 정부간 조정기구의 기능, 두만강개발회사의 설립, 접경국 토지의 임차 등 법·제도분야
- 산업, 자원개발, 환경분야 계획
- 통신분야 종합계획
- 수송부문 종합계획
- 향후 6개월간 추진할 작업계획(Work Plan)

○ 참가범위

- 회원국 :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및 UNDP 관계자 등 53명
- 옵서버 : 일본, 핀란드, UNIDO 등 4명

구 분	참 석 자
한 국	경제기획원 대조실 제3협력관 등 9명
북 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 서기장 등 18명
중 국	대외경제기술교류중심 부주임 등 5명
러 시 아	외무성 투자국장 등 3명
몽 골	부수상실 비서실장 등 3명
일 본(옵서버)	외무성 동북아과장
핀란드(옵서버)	주북경대사관 참사관 등 2명
UNDP	본부 아·태지역국장 등 15명
UNIDO	중국주재 UNIDO개발센터 소장

남·북한 참가자(대표) 명단

한 국 (9명)	북 한 (18명)
<p>〈PMC대표〉</p> <p>김 용(EPB 대조실 제3협력관)</p> <p>이태식(외무부 국제경제국 심의관)</p> <p>신용식(신신법률사무소 소장)</p>	<p>림태덕(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서기장)</p> <p>오을록(사회과학원 세계경제 연구소 부소장)</p> <p>최인곤(국제기구협조총국서기장)</p> <p>태형철(사회과학원세계경제 연구소 부소장)</p> <p>황 란(대외경제협력추진위 지도원)</p>
<p>〈WG대표〉</p> <p>강대형(EPB 대조실 북방경제1과장)</p> <p>문하영(외무부 경제기구과장)</p> <p>〈읍서버〉</p> <p>박홍렬(통일원 협력과장)</p> <p>김학수(KIEP 북방경제실장)</p> <p>서원수(KIEP 연구위원)</p> <p>곽영훈(환경그룹 회장)</p>	<p>태형철(사회과학원 세계경제 연구소 부소장)</p> <p>김명호(항만통신부통신국부국장)</p> <p>리명건(국가건설위원회 토지계획국 과장)</p> <p>황종남(대외경제위원회 국제경제 협조 매니저)</p>

나. 실무그룹(WG)회의 주요 논의내용

법·제도분야

- 법·제도분야에서 정부간 조정기구(Commission, Committee) 설립·운영에 관해서는 북한·중국·러시아 등 접경 3국과, 한국·몽골 등 비접경국 간 의견차이로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순수 상업목적의 두만강지역개발회사(Corporation)의 조속한 설립에는 의견 일치

통신분야

- 통신분야에서는 UNDP가 작성한 장단기 마스터플랜을 원칙적으로 수용키로 합의하고, 기술적 문제와 통신규제(Regulation)분야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작업반을 설치키로 합의

자원, 산업 및 환경분야

- 자원·산업·환경분야에서는 '93. 3월의 헬싱키 워크숍 결과를 별다른 수정없이 채택하고, 이 지역 부존자원 개발·활용을 위한 지역간 연계 강화, 환경보존·보호를 위한 환경규제 기준 등에 관해 협의하였음.

운송분야

- 인프라분야에서는 '93. 4월의 북경 워크숍 당시 발표되었던 기본 구상이 UNDP측에 의해 설명되었으며, 주컨테이너항 건설 입지, 철도, 도로 등의 연결·개설 등과 관련하여 참가국들간의 입장 차이가 제기되었는바, 각국의 의견이 있는 경우 UNDP측에 제출토록 하였음.

다. 제3차 PMC회의 결과

1) 「두만강지역개발에 관한 협정」 잠정안 확정

- 3개 접경국은 두만강지역개발회사(Corporation)에 토지, 시설 및 설 치물을 임대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함.
- 토지 및 시설물의 임차는 각국의 법에 의해 시행되고, 특히 인프라 건설과 운영, 상업과 산업개발, 국제기업의 서비스, 주택과 관련된 서비스 개발에 그 목적을 둠.
- 임차는 두만강지역개발회사와 각 접경국 사이에 합의로써 이루어짐.
- 접경국은 임차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을 유지함.

- 접경 3국으로 구성된 “두만강지역개발조정위원회(TRADC)”를 설립하고 그 주 기능은 접경국이 두만강지역개발회사에 임대한 토지와 관련, 주권문제에 연관된 사회, 정치, 경제문제를 다루기로 함.

2) 「두만강지역개발회사(Corporation)」 설립 및 정부간 「조정·협의위원회(Commission) 창설에 관한 협정」 잠정안 확정

- PMC 5개 회원국은 두만강지역개발회사(TRAD Co. :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Corporation)의 설립을 추진하는데 의견을 같이함.
- 동 회사는 독립된 상업기구로서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 결정을 통해 주주들에 의해 운영됨.
- 접경국은 토지임차 문제와 관련하여 “회사”의 운영에 대해 협조하고 “회사”는 접경국의 주권을 존중함.
- PMC 5개국으로 구성되는 정부간 조정기구(Commission)를 설립하여 그 기능은 수송, 통신, 무역, 환경, 발전소, 기상협조, 금융 및 은행제도 등 공통이익의 추구하고 지속적 개발을 위한 문제의 조정, 협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참고자료 8〉 협정(안) 2종 참조

- ◎ 상기 2개 협정은 다음 일정에 따라 각국 정부간 고위급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기로 함.

- 상기 협정문에 대한 각국의 최종 의견을 '93. 6월말까지 UNDP측에 제출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월 상반기중 관련국 실무회의 개최, 최종안 마련
 - '93. 9. 10 러시아에서 정부간 고위급(차관급 예상)회의를 개최하여 서명·최종안 확정

— 두만강지역개발회사(Corporation) 설립과 관련해서는

- '93. 7월 중순까지 UNDP가 정관 초안을 작성, 참가국에 송부
- '93. 8월 상반기중 참가국간 실무그룹 회의 개최, 토의
- 가능하다면 '93. 9월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정부간 고위급 회의에서 서명, 최종안 확정

3) 향후 6개월간('93. 6~11) 추진할 작업계획(Work Plan)에 관하여 잠정 합의

- 법·제도분야는 상기 일정에 따라 '93.10.10 협정을 체결기로 함.
 - 부문별 보고서를 근거로 투자가능 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잠재투자자와의 접촉을 계속하기로 함.
 - TRED A지역(청진-연길-블라디보스톡)내의 통신규제기구 설립, 지역내 통신망 연결을 위한 기술부문계획 등의 구체화를 위해 각국 전문가가 참가할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함.
 - 이 지역에 유치할 석유정제, 산림개발, 경공업개발 타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산업개발을 뒷받침할 넓은 범위(NEARDA)의 자원개발, 교역증진 방안 등도 연계하여 검토하기로 함.
 - 환경분야는 이 지역 개발관련 기합의된 22개 원칙을 확정하고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필요한 자금의 조달에 중점을 두기로 함.
 - 도로, 항만, 철도 등 인프라 부문은 기존의 잠정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속하기로 함.
- * 각국은 상기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을 UNDP에 제출토록 함.

두만강지역개발에 관한 협정(안)

* 비공식 번역문

두만강지역개발계획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연방 정부의 대표들은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이하에서는 「유역국」이라고 칭한다)

기본 원칙

본 협정은 국가간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의 원칙들, 특히 모든 국가의 주권 및 독립에 대한 상호존중, 평등, 상호이익 및 선린관계 등에 기초하여 이행된다.

1. 두만강지역개발회사에 대한 토지임대

- 1.1 3개 유역국 정부는 두만강지역개발회사에 토지·설비 및 시설을 임대한다는 그들의 의사를 확인한다.
- 1.2 유역국 정부들은 특히 기간산업시설 개발 및 운영, 통상 및 산업, 국제사업 서비스, 주거 및 관련 사회서비스를 위하여 각국의 법률에 따라 회사에 토지, 설비 및 시설을 임대한다.
- 1.3 임대는 회사와 임대주의 지위를 가진 각 유역국간에 체결한다.
- 1.4 각 유역국은 회사에 임대된 모든 토지, 설비 및 시설에 대해 주권 및 소유권을 보유한다.
- 1.5 회사는 국제투자자를 포함하는 주주들로서 구성되는 독립적 사업체이며, 회사의 정관에 따라 주주에 의해 운영된다. 회사는 주권과 관련된 사회적, 정치적 및 주요 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TRACC의 결정에 따라 지침을 받는다.

2. 두만강지역개발조정위원회

- 2.1 3개 유역국 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두만강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설립한다.
(이하에서는 「위원회」라고 칭한다)
- 2.2 위원회는 3개 유역국의 정부대표로 구성된다.
- 2.3 위원회는 회사에 대하여 임대주의 자격하에 유역국의 주권과 관련하여 유역국에 의해 제기된 사회적, 정치적 및 주요 경제적 문제 관련 특정 주제에 관해 협의하고 조정한다.

두만강지역개발회사(TRADCO) 설립 및 정부간 조정·협의 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안)

* 비공식 번역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몽골공화국, 러시아연방 정부의 대표들은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기본 원칙

회원국들은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통한 그들의 협력이 경제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상호간 이익의 달성, 두만강 경제개발지역 및 동북아시아의 국민 및 국가들의 보다 큰 성장과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그들 정부의 공통이익에 기초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회원국들은 국가간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의 원칙들, 특히 모든 국가의 주권과 독립에 대한 상호존중, 평등, 상호이익 및 선린관계 등에 기초하여 본 협정을 이행한다.

회원국들은 TRADP가 국제투자, 교역 및 통상을 위한 최대한의 유인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며, 두만강지역개발회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한의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 완전·충분한 독립성을 갖고 활동하도록 한다.

회원국들은 TRADP내 3개 유역국이 토지, 시설 및 설비를 회사에게 임대하려는 의도 및 회사에 대한 임대주로서의 자격하에 그들의 주권과 관련되는 사회적, 정치적 및 주요 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고 조정을 하게될 적절한 정부간 위원회를 설립하려는 의도를 환영한다.

1. 두만강지역개발회사의 설립

- 1.1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회원국들은 두만강지역개발회사 설립의 촉진을 추구한다. 이하에서는 ‘회사’라고 칭한다.
- 1.2 회사는 회사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통해 주주들에 의해 운영되는, 국제투자자들을 포함하는 독립적 사업체이다.
- 1.3 회사는 주권과 관련된 사회적, 정치적 및 주요 경제적 문제들에 관해 TRACC(3개 유역국간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침을 받는다.
- 1.4 회사는 회사 정관에 따라 주주들에 의해 운영된다.
- 1.5 유역국들은 토지, 설비 및 시설의 임차와 관련하여 회사의 운영을 지원 및 협조한다. 회사는 유역국의 주권을 존중한다.

2. 정부간 조정·협의위원회 창설

- 2.1 TRADP 회원국들은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위한 정부간 조정·협의위원회를 설립한다. 5개 설립회원국은 여타 관심이 있는 정부를 정회원으로, 국제기구 또는 다자간 개발은행을 옵서버로 초청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2.2 조정·협의위원회는 TRADP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며 동북아시아, 그리고 특히 TREDAN 내 국민과 국가들간 상호이해 및 이익, 경제 및 기술협력을 증진한다.
- 2.3 위원회는 특히 수송, 통신, 국가간 통상 및 역외무역, 전력, 환경, 기상, 재정 및 금융과 관련하여 협력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공통이익, 필요 및 기회를 규명할 수 있다.

6. 뉴욕 비공식 실무회의

가. 회의 개요

- 일 시 : '94. 1. 31 ~ 2. 2
- 장 소 : 미국 뉴욕(UN PLAZA HOTEL)
- 주요의제
 - 두만강지역개발계획 추진성과 평가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 향후 추진일정
- 참가범위 :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과 UNDP관계자 등

구 분	참 석 자
한 국	외무부 경제기구과장 등 6명
북 한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등 2명 * 림태덕 등 북한본부 대표단은 미국 비자취득 지연으로 불참
중 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 등 3명
러 시 아	대외경제성 부국장 등 3명
몽 골	부수상 비서실장 등 3명
UNDP	TRADP 사업 매니저 등

남·북한 참가자 명단

한 국 (6명)	북 한 (2명)
문하영(외무부 경제기구과장) 신용식(신신법률사무소 소장) 오정규(EPB 북방경제1과 사무관) 최재송(성균관대 교수) 김익수(KIEP 연구위원) 이영현(주유엔대표부 참사관)	리성인(주유엔대표부 참사관) 등

나. 주요 회의내용

1) 두만강지역개발계획 추진에 대한 평가사업

- UNDP측은 '93. 9월 북경 법·제도 실무회의 개최 이후 두만강지역 경제개발전략 수립에 노력해 왔으며, '93. 12월부터 consultant 4명으로 구성된 사업평가팀을 새로이 구성, 사업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고
 - 또한 TRADP 제1단계 종료시한인 94년 상반기중에 기구 구성과 경제개발전략 등의 회원국간 합의를 희망
- 중국은 UNDP측의 평가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훈춘-자루비노간 철도부설 사업의 진행과 중국·북한간(중국 칠호동-북한 훈릉) 5km 국경철도 연결사업 추진 등에 관해 언급
- 몽골 역시 UNDP의 평가사업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면서 동 사업이 다자간 협력사업임을 인식하고 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램.
- 북한은 평가를 유보함.
- 러시아는 UNDP의 평가내용에 일반적으로 동의하나 기구 구성 및 국제협정 서명문제는 경제개발전략, 분야별 마스터플랜 작성, 투자 및 재정계획 등에 의해 협력의 개념 및 내용이 구체화된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 견지

- 한국은 UNDP의 평가사업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후 TRADP가 투자 유인을 도모하는 동북아시아 협력사업임을 재인식하고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내 회원국간 합의에 도달할 것을 요망

2) 개발전략 및 행동계획

- UNDP측은 두만강지역개발전략으로 양자간 협력보다는 다자간 협력으로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임을 강조
 - 두만강지역의 우선순위 사업으로 목재가공, 피혁, 경공업, 선박수리, 러시아 군수산업 전환, 수산, 관광 등을 제시하고 동 지역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유역 3국에 필요한 규제완화 등을 요망
- ※ 〈참고자료 9〉 「두만강지역 투자 우선산업」 참조
- 한편 UNDP측은 '94년 상반기중 UNIDO와 합동으로 동 지역 투자진흥을 위한 세미나 개최 계획, 5국간 공동무역 및 투자진흥소위원회 구성 방안, 수송·통신분야 분과회의 개최 방안 등을 제시

3) 개발기구 및 법·제도 문제

- UNDP측은 러시아의 토지임대 불가 사정 등을 고려, 두만강지역 개발회사 설립 협정안을 부득이 철회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회원국들의 반응을 문의
 - 이에 대해 중국측은 개발회사 설립은 필요하나 차후로 연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언급하고 우선 경제문제 협의를 위한 Commission과 유역국 주권관련 기본사항 협의를 위한 3국간 Committee 등 2개 기구 설립 필요성 강조
 - 아국은 유역국들의 토지임대 조항 삭제 주장을 고려해 볼 때 Committee의 기능 및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몽골은 동조)하였으며 러시아는 Committee의 독립된 기능 및 독립 사무국 설치를 제안
- 회의결과 '93. 9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2차 법·제도·금융 전문가 회의에서 잠정 채택된 3개의 국제협정문(개발회사 설립, Commission, Committee 설립)중 Commission, Committee 설립의 2개협정을 UNDP가 하

나로 통합 작성, 회원국에 제시하도록 함.

- Commission이 주정책기관 기능을 담당하며 Committee는 Commission 산하기관으로 유역 3국간에 국한되는 주권 관련 사항만 논의
- 사무국은 하나로 구성·설치하며 경비부담은 UNDP측의 계속적 지원과 일부 경비의 회원국 부담(cost-sharing)을 제안

다. 향후 작업계획

- Commission, Committee 및 사무국 설치에 관한 새로운 국제협정안을 작성하여 회원국에 배포
 - UNDP는 금년 하반기중 동 협정안 서명을 위한 고위급회의 개최를 상정
- TRADP 사업추진 가속화를 위해 「두만강지역개발전략」(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투자지침자료」(Investment Profile), 「향후 작업계획」(Program of future actions) 작성
 - 상기 자료 준비를 위해 '94년 상반기중 각 회원국 전문가 1명씩으로 구성된 「지역개발전략그룹」, 「무역 및 산업그룹」, 「환경그룹」, 「운송그룹」, 「통신그룹」, 「법·제도그룹」 등 6개 작업반을 구성·운영
 - * 특히 「지역개발전략그룹」은 두만강지역개발지구 및 5개 회원국을 직접 방문하여 작업을 추진할 것을 적극 검토
- 향후 회의개최와 관련 러시아는 제4차 PMC를 '94. 5월경 모스크바에서, 몽골은 제5차 PMC를 '94. 7월경 개최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중국은 지역개발전략그룹 회의 및 운송그룹 회의를, 한국은 무역 및 산업그룹 회의의 자국 개최 의향을 표명

〈참고자료 9〉

두만강지역 투자 우선산업(UNIDO 추천)

1. 목재가공 산업 : 응상
* 프리모스키 지역의 산림자원을 복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별목
2. 피혁산업 : 연변, 나진
* 몽골 및 연변의 가죽을 활용한 신발, 가죽옷, 가방분야
3. 경공업(훈춘, 나진의 가공수출 지역화)
 - 섬유, 의류
 - 소형기계, 플라스틱, 가정용 설비제품
 - 소형 건축자재, 가정용 장식품
 - 식품가공, 음료
 - 가전제품
 - 완구, 문방구
4. 선박수리 및 건조 : 프리모스키 지역(블라디보스톡, 나호트카, 슬라비안카), 청진
5. 군수산업 전환 : 프리모스키 지역(우선 블라디보스톡, 아센니프)
6. 의약품(특히 한약재 및 드링크류) : 연변조선족자치주(연길, 용정, 도문)
7. 건축자재 : 연변(연길, 훈춘)
8. 자동차(소형트럭, 부품) : 연변(연길)
* 프리모스키, 나진지역과 연계하여 추진
9. 수산물 가공 : 자루비노, 나호트카, 나진
10. 가축사육, 육류가공, 포장 및 저장 : 연변(연길)
11. 원유정제, 석유화학 : 선봉
12. 관광산업 : 연변
* 자루비노와 연계하여 추진

7. 제4차 PMC 및 WG회의

가. 회의 개요

- 기 간
 - 실무그룹(WG) 회의 : '94. 7. 11 ~ 13
 - PMC 본회의 : '94. 7. 14 ~ 15
- 장 소 : 러시아 모스크바(Cosmos Hotel)
- 주요의제
 - 두만강지역개발 협의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국제 협정문 협의
 - 두만강개발계획 사무국 설치 문제 협의
 - 지역개발전략(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 RDS) 협의
 - 두만강지역개발시 적용할 환경 MOU 가서명
- 참가범위
 - 회원국 :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 4개국 및 UNDP 관계자 등 40여명
 - 옵서버 : 일본, 캐나다, EWC

구 분	참 석 자
한 국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등 5명
러 시 아	대외경제성 부국장 등 8명
몽 골	국가개발부 차관 등 6명
중 국	대외경제무역부 차관보 등 6명
UNDP	아·태과장 등 15명
일 본(옵서버)	러시아주재 일본대사관 참사관
캐나다(옵서버)	러시아주재 캐나다대사관 참사관
EWC(옵서버)	조이제 부소장

※ 북한측은 임태덕 대외경협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동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김일성 사망으로 불참

한국측 참가자 명단

대표(3명)	최영진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배영식 (경제기획원 대외경제국 심의관) 신용식 (신신법률사무소 소장)
자문(2명)	문하영 (외무부 환경기구과장) 김익수 (KIEP 연구위원)

나. 회의 주요내용

1) 국제협정문

- TRADP 회원국 5개국이 참여하는 두만강 경제개발지역 및 동북아 개발을 위한 동북아위원회(Northeast Asia Commission) 설치·운영에 관한 협정문에 대해서 회의 참가 4개국간 합의
 - 이번 합의는 Commission과 Committee중 어느 기구가 중심기능을 수행하느냐에 대한 지금까지의 소모적 논란에서 탈피, 합의 가능한 사항부터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참가국간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임.
 - 동 회의에 불참한 북한에 대해서는 UNDP가 합의 내용을 개별 통보후 합의토록 유도하고 협정서명은 각 회원국이 필요한 자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94년 하반기내에 차관급 고위회의를 개최하여 서명 예정
- 유역 3국이 참여하는 두만강지역조정위원회(Committee) 설치·운영에 관한 국제협정문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
 - Committee의 설립은 TRAD Co.를 통한 토지 및 시설·설비 임대 기능 등을 중심으로 논의 가능하나 현재 러시아가 자국법에 의해 토지임대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현 상태하에서의 국제 협정문 논의는 실익이 없음.

2) 지역개발전략(RDS)

- 두만강지역개발은 지금까지 추진하여온 마스터플랜식 접근론에서 탈피, “점진적 조화(Progressive Harmonization)”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TRADP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함.
 - 이를 위해 개발가능 환경 조성, 인프라 등 서비스 제고, 무역 촉진, 투자기술 유인 등 4개분야를 선정, 필요한 실무그룹을 구성함.

3) 환경 MOU

- 환경보전을 위한 5국간 환경원칙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 MOU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합의가 있었으나 러시아가 자국 환경부의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 가서명을 하겠다고 주장함에 따라 추후에 확정·시행키로 함.
 - 한국, 중국, 몽골 3국은 동 양해각서 내용에 합의하였고, 러시아도 호의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는 바, 향후 지역환경 보존 및 오염방지 측면에서 진전이 예상됨.

다. 향후 추진일정

- 국제협정문, 환경 MOU 등 동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의 북한측과의 협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UNDP 대표단의 북한 파견 예정
- 러시아와 북한의 동의를 거쳐 '94년 하반기내에 차관급 고위회의를 개최하여 Commission 설립 국제협정문 및 환경 MOU에 서명하고 사무국 설치 논의
- 상기 일정대로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95. 3월 이전에 PMC 회의 개최

IV. 분야별 전문가 회의

- TRADP 관련 분야별 전문가 회의는 '93. 1 통신전문가 회의를 시작으로 4개 분야(통신분야, 법·제도·금융분야, 자원·산업·환경분야, 운송분야)로 나누어 개최되었는 바, '94. 8월말 현재 각 분야별 회의 개최 현황은 다음과 같음.

두만강개발관련 분야별 「전문가회의」 개최현황

구 분	일시(장소)	참 가 국	주 요 주 제
통신분야	1차 '93. 1.28~30 (서울)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UNDP 등	• 두만강지역 통신망 설치 및 관련 기술적인 문제
	2차 '93. 4.10~11 (훈춘)	북한, 중국, UNDP 등 * 러시아 불참	•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접경 3국의 통신망 구축 문제
	3차 '93. 9. 6~8 (블라디보스톡)	한국, 북한, 러시아, 몽골, UNDP 등 * 중국 불참	• 두만강지역 통신개발 및 통신망 확충문제
법·금융 제도분야	1차 '93. 2.22~24 (뉴욕)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UNDP, 세계은행 등	• 개발 관리기구들의 구 성, 지위, 성격 등 • 재원조달 방안
	2차 '93. 9.20~24 (북경)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UNDP	• 국제협정문 최종 검토 • 두만강지역개발회사 정 관 검토
자원·산업· 환경분야	1차 '93. 3.16~19 (헬싱키)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UNDP 등 * 북한은 T/S훈련 구실로 불참	• 자원개발 가능성 • 환경문제 협력 • 산업 개발전략

구 분	일시(장소)	참 가 국	주 요 주 제
	2차 '93. 11. 8~10 (서울)	한국,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UNDP 등	• 두만강지역내 산업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운송분야 (하부구조)	1차 '93. 3. 30~4. 2 (북경)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UNDP 등	• 운송분야 개발계획 및 우선순위 검토
RDS 워크숍	'94. 3. 28~30 (북경)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UNDP 등	• TRADP의 지역개발전략 수립 논의
환경 워크숍	'94. 4. 21~22 (북경)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UNDP 등	• 환경전략 수립을 위한 각국의 의견수렴

1. 통신분야 전문가 회의

가. 제1차 통신전문가 회의

1) 회의 개요

- 기 간 : '93. 1.28 ~ 1.30
- 장 소 : 한국 서울(한국통신연구개발단 회의장)
* 1.29 대표단 일행 삼성전자 수원공장, 과천전화국 시찰
- 주요의제
 - UNDP의 통신개발 마스터플랜 검토
 - 장단기 통신개발계획, 기술계획, 규제 문제 등
- 참가범위 :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과 UNDP 관계자 등 15명

구 분	참 석 자
한 국	체신부 통신정책실 통신협력과장 등 4명
북 한	체신부 통신지도국 부국장 등 3명
중 국	우전부 경제기술연구개발중심 주임 등 2명
러 시 아	연해주 Rossvyazininform 국영통신정보사장 등 2명
몽 골	2명
U N D P	TRADP 통신 WG Coordinator 등 2명

남·북한 참가자 명단

한 국 (4명)	북 한 (3명)
이교용(체신부 통신협력과장) 정용한(한국통신 설비계획부장) 강홍렬(통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학수(KIEP 북방경제실장)	김명호(체신부 통신지도국 부국장) 리성덕(정무원 사무국 과장) 최송국(대의경제협력추진위 과장)

2) 회의 주요내용

◎ UNDP의 통신개발 마스터플랜 설명

- 두만강지역 각국의 전기통신 조직 및 시설현황
- 장기 경제개발 시나리오
- 번호 및 신호계획 등 기술계획, 규제 문제
- 단기 통신망 구축계획
 - 블라디보스톡~훈춘 90채널, 나진~슬라비얀카 90채널 설치
 - 투자유발을 위하여 나진, 선봉, 슬라비얀카에 각 2,000회선 가
입전화설치, 중국측의 기존 훈춘 통신망 확장계획 수행
 - 서울~평양간 30채널 직통회선 구성

◎ UNDP의 마스터플랜에 대한 각국의 입장 및 제안

북 한

- 서울~평양간 직통회선 구성은 남·북한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이를 마스터플랜에서 제외 요구
- 나진~훈춘간 M/W 건설을 추진중이며 회선수는 중국과 협의중
- 두만강지역내에 중심관문국 역할을 하는 통신센터 건설 제안

남 한

- 두만강지역의 기존 통신시설은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으로 향후 이 지역의 통신망은 디지털방식의 최신기술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 한반도 기간통신망의 구성과 관련하여 서울~평양간 직통회선 구성은 바람직하나 구성방식 및 회선수는 경제성과 효율성에 관한 계속적 실무협의를 필요함.
 - 서울-평양간 직통회선 구성문제는 북한측의 요구에 따라 마스터플랜에서 제외
- 단기적으로는 두만강지역 통신개발을 위한 통신규제 환경조사 제안
 - 통신규제에 관한 법·제도 및 관리조직 현황
 - 통신시설, 서비스, 요금 등 통신통계 현황

중 국

- 훈춘~크라스키노, 나진간 통신망 건설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중국, 러시아, 북한간 실무회의의 '93. 3월중 훈춘개최를 제안
- 마스터플랜에서 가정하고 있는 15% 경제성장율은 비현실적
 - 경제성장율은 초기 1.3%에서 2000년초 10.1%로 급성장하다가 2020년경 6.1% 정도로 둔화될 것임.

3) 향후 추진계획

- 각국은 UNDP에서 제시한 장·단기 통신개발계획, 기술계획 및 규제 문제 등 마스터플랜에 대한 검토의견을 '93. 2월까지 제출
- UNDP에서 마스터플랜에 대한 각국의 검토의견 및 제안을 '93. 3월 중에 종합·정리하여 4월 접경 3국간 실무작업반(WG)회의를 거쳐 '93. 5월 두만강지역개발계획관리위원회(PMC)에 상정

UNDP의 「두만강지역 통신개발 마스터플랜(안)」 요지

1. 통신시설 현황

가. 각국별 전기통신 조직현황

○ 북 한

- 전기통신사업은 체신부 독점체제
- 체신부는 광케이블 생산 등 산업정책 관장

○ 중 국

- 북한과 같이 국가 독점체제(우전부)
- 지방성·시 등에 제한적인 사업운영 자율권 부여

○ 몽 골

- EC와 같이 규제(체신부)와 사업(통신공사) 분리
- 데이터 통신분야는 제한적 경쟁형태

○ 러시아

- 공중 통신망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분야에서 경쟁체제 도입 중

나. 각국별 기존 통신시설 현황

○ 북 한

- 시내 통신망
 - 나진지역 가입전화는 수동식, 가입자 선로는 나선케이블
 - 통신망 현대화 계획
 - ┌ 1단계 : 디지털교환기 3만회선 나진지역 설치
 - └ 2단계 : 후창 2만, 선봉 3만, 웅상 2만회선
나진·선봉지역 총 10만회선 설치

- 장거리 통신망
 - 평양~블라디보스톡간 300채널 아나로그 M/W
 - 1단계 : 나진 3만회선 교환기 접속, 나진~훈춘간 300~900채널 디지털 M/W 확장계획
 - 2단계 : 1,920채널 확대
- 국제관문국
 - 평양 인텔샤프트 A 지구국, 인터스푸트니크 지구국 활용
 - 평양~블라디보스톡간 나선케이블 12채널 및 300채널 아나로그 M/W

○ 몽 골

- 시내 통신망
 - 전국가입자 76,000회선(울란바토르 34,000회선)
 - ※ 적체가 50,000회선 이상(울란바토르 40,000회선)
 - 시설노후, FAX 및 DDD 사용불가
 - 최근 Alcatel E-10교환기 30,000회선 울란바토르 설치 중
 - : 시외 및 국제교환 가능
- 장거리 통신망
 - 1,920채널 아나로그 M/W : 한도시당 60채널 상한으로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
 - 디지털 M/W 대체 예정
- 국제관문국
 - 울란바토르 인텔샤프트 A지구국 설치 : '93 봄 운용예정
 - 아시아샤프트 1호로 30채널 운용중, 아시아샤프트 2호로 VSAT서비스 개시 예정

○ 중 국

- 시내 통신망
 - 디지털교환기 공급계획
 - : 훈춘 10,000회선, 도문 11,000회선 등
- 장거리 통신망

- 모든 성의 중심부를 140Mbps(1,920채널) 광케이블 연결계획('95)
- 북경~장춘~하얼빈 연결망 건설예정

— 국제관문국

- 상해, 북경의 인텔새트 A 지구국 활용
- 장춘~하얼빈~블라디보스톡이나 장춘~지아무시~하바로프스크 연결 케이블 건설 예정

○ 러시아

— 시내 통신망

- 블라디보스톡에 68,000회선(70만 인구)
- NEC, 알카텔, ATT 디지털교환기 도입 예정

— 장거리 통신망

- 공중망은 매우 낙후, 발달된 사설망과 협조 고려

— 국제관문국

- 케이블과 위성을 이용, 국제통신서비스 제공
- '93 봄 블라디보스톡에 인텔새트 A지구국 건설
- TSL의 제4구간인 R-J-K(러-일-한) 해저 광케이블 건설 추진

다. 기존 시설에 대한 평가

- 중국만이 소규모나마 최신시설로 서비스 중이고 다른 나라는 낙후된 시설보유

— 대부분 수동식 교환, 나선케이블, 아날로그 M/W

- 국제통신망은 수년내 대용량의 케이블망과 연결 가능

— 단기적으로 현재 지구국 용량은 충분

— 설치 예정중인 관문국과 기존 지구국 연결

※ 별도의 위성지구국 설치의 필요없음.

2. 장기 통신발전 계획

가. 경제개발 시나리오

- '93. 1인당 GNP \$2,000(30만 인구) → 2032년 1인당 GNP \$14,000 (419만 인구)

— 경제성장률 15%, 인구증가율 7% 가정

나. 장기통신관련 수요예측

구 분	1993년	2032년
○ 전화가입자수(만명)	1.5	148
○ 100인당 전화보급율(%)	5	35
○ 시내통화량(억분/연)	0.08	25
○ 국제통화량(억분/연)	0.04	4

3. 기술계획

가. 개 요

- 시내, 장거리 및 국제통신이 가능한 통신망 구성
- 초창기에는 TREDAs와 비접경국간의 통화량이 증가하고, 그 다음 TREDAs와 접경국간 통화량이 증가하다가 장기적으로 TREDAs내 통화량이 늘어날 것임.

※ TREDAs(두만강경제개발지역) : 중국 연변 4개지역, 청진, 블라디보스톡

나. 번호계획

- TREDAs내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Digit 수와 균일한 번호 체계

— 150만 가입자에 7digit 부여(처음 2digit는 지역번호)

- 전체 TREDAs를 국가통신망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지역코드 부여

다. 신호체계

- CCITT 권고에 따라 No. 7 설정

4. 단기 이행계획

가. 현재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훈춘~크라스키노~블라디보스톡 연결

- 블라디보스톡~크라스키노 30채널
- 블라디보스톡~훈춘 90채널
- 슬라비얀카~나진 90채널

※ 중계소를 중국, 러시아 사이에 설치하여 나진~훈춘, 훈춘~슬라비얀카 연결

나. 투자유발을 위한 최소 수준의 통신시설 공급

- 북한 : 나진 및 선봉에 각 2,000회선
- 중국 : 기존 훈춘 교환기 확장계획(10,000회선) 수행
- 러시아 : 슬라비얀카에 2,000회선 설치

다. 한반도 기간 통신망 완성

- 한국투자로 평양~서울간 30채널 설치 제안
- 블라디보스톡~평양~서울간 연결은
 - 미래 한반도 직통회선과 TSL 및 일·중 케이블을 연결하는 대용량망 구축 가능

다. 제2차 통신전문가 회의

1) 회의 개요

- 기 간 : '93. 4. 10 ~ 4.11
- 장 소 : 중국 훈춘
- 주요의제 : 북한·중국·러시아 등 접경 3국의 통신망 구축 협의
 - 접경지역을 포함한 TREDAs지역 내에서의 활용가능한 최소한의 통신능력 확보
 - TREDAs내 통신개발 장기계획 전망
- 참가범위 : 북한, 중국, 핀란드, UNDP 전문가 등 17명

구 분	참 석 자
북 중 핀 U N D P	체신부 통신지도국 부국장 등 3명 길림성 STC위원회 의장 등 10명 주중대사관 과학기술 상담역 등 2명 두만강지역개발계획 통신담당 Consultant 등 2명

※ 러시아측은 불참

북한측 참가자 명단

김 명 호 (체신부 통신지도국 부국장)
 최 송 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과장)
 전 용 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연구사)

2) 회의 주요내용

가) UNDP의 TREDAs지역 통신개발 마스터플랜 설명 및 무역과 통신의 관계 강조

- UNDP의 Van Gompel은 TREDAs지역의 통신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는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지라도 통신개발문제는 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의 테두리내에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
- 또한 북한·중국·러시아 등 두만강 주변 3국의 무역현황 파악을 통한 통신능력 확충 필요성 강조

중·러 무역

- '92년말 현재 중국 길림성과 러시아간 총무역량은 약 40억달러 수준이며 그중 훈춘과의 무역량은 약 1억 5천만달러 규모
- 향후 양국간 무역신장율은 훈춘-크라스키노 축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
 - 훈춘-크라스키노간 도로완공('92)
 - 훈춘-크라스키노간 인적왕래 허용예정('93. 6)
 - 중국의 러시아 자루비노항 임차사용
 - 도문-훈춘간 철도는 거의 완성단계이며 훈춘-크라스키노간의 확장 연결을 계획중임('95년 개통예정)
- * 그 결과 훈춘-프리모스키간 수송능력은 연간 1천만톤에 이를 것임.

중·북 무역

- 현재 중·러무역량보다는 적으나 향후 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나진·선봉지역의 개발은 무역량을 배가시킬 것임.
- 훈춘-러시아간 연간 무역액을 최소 3억달러로 가정하고 무역량 1천달러당 3분의 통화가 필요하다고 볼 때 20채널을 기준으로 훈춘-러시아(크라스키노)사이의 연간 통화량은 약 1백만분에 이룸

나) 북·중·러지역간 단기통신계획 협의

○ 길림성-북한간 나선연결 다중송신망 확충

- 연길 — 청진구간 (3채널 → 12채널)
- 훈춘 — 셋별구간 (1채널 → 3채널)

○ 훈춘과 크라스키노 — 블라디보스톡간 연결

- 훈춘과 크라스키노사이에 디지털 무선중계소(800MHZ,2MBit S/S)설립 협의
- 크라스키노-자루비노 및 자루비노-블라디보스톡간 케이블 연결 (30채널 FDM) 논의

○ 청진-나진-서수라-자루비노-슬라비얀카-블라디보스톡 사이의 기존 아날로그망 접속 활성화

- 총 120채널 규모로 나진과 블라디보스톡, 나진-자루비노-훈춘간 연결사용 가능
- 훈춘-자루비노간의 용량증가로 나진-훈춘간을 연결하고 아날로그방식의 디지털방식으로의 전환은 자루비노에서 이루어져야 함

○ 기타 고려요소

- 기존 평양-블라디보스톡간은 현용량의 계속사용 가능
- 나진-훈춘-연길구간은 통신능력의 재할당은 불필요

○ 나진-서수라-자루비노-슬라비얀카-블라디보스톡 사이에 통신능력 증가를 위한 디지털 무선장비 준비

- A 34Mb 접속은 다음과 같이 배치

· 초 기 : 훈춘-블라디보스톡	8Mb(120채널)
나진-블라디보스톡	2Mb(30채널)
나진-훈춘	2Mb(30채널)
나진-연길-북경	4Mb(60채널)

- 추가능력 필요시 : 훈춘-크라스키노-자루비노 16Mb
 나진-자루비노 8Mb
 자루비노-블라디보스톡 10Mb

○ 중·러간 광섬유 연결

— 훈춘-크라스키노간 철도건설 및 광섬유에 대한 중국의 자본확보
 가능시 훈춘-크라스키노-자루비노-블라디보스톡간 광섬유 연
 결(140Mb/fibre) 가능

- 훈춘-나진-슬라비얀카 통신연결을 위한 무선탑 설치(훈춘, 나진)
 및 나진-훈춘간 광섬유 설치로 종합망 완성

라. 제3차 통신전문가 회의

1) 회의 개요

- 기 간 : '93. 9. 6 ~ 9. 8
- 장 소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연해주 정부청사)
- 주요의제
 - 통신기술분야 마스터플랜 및 단기 시행계획 검토
 - 규제분야 및 재정계획 검토
 - 통신규제기구 설립
 - 통신개발사업을 전담할 정보·통신회사 설립
- 참가범위 : 한국, 북한, 러시아, 몽골, UNDP 전문가 등 24명

구 분	참 석 자
한 국	체신부 통신협력과장 등 4명
북 한	체신부 통신지도국 부국장 등 3명
러 시 아	통신정보 관련 주정부기업국장 등 13명
몽 골	통신정보기술 부국장 등 3명
U N D P	두만강지역개발계획 통신담당 Consultant

※ 중국측은 육로로 러시아에 입국 예정이었으나 국경통과 문제로 불참

남·북한 참가자 명단

한 국 (4명)	북 한 (3명)
박창환(체신부 통신협력과장) 오정규(EPB 북방경제1과 사무관) 강홍렬(통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임영준(한국통신 국제기구 2부장)	김명호(체신부 통신지도국 부국장) 태영남(대외경제협력위원회 연구사) 김춘일(체신부 공학연구소 연구사)

2) 회의 주요내용

○ 기술분야 마스터플랜

— 수요예측: 1차회의보다 합리적인 수정전망 제시

- 당초 경제성장을 15% → 초기 4%, 중기 12%, 후기 7%
- 당초 인구증가율 7% → 초기 10%, 후기 5%
- 2032년기준 인구 410만, 1인당 GNP 14천불

○ 단기계획

— 훈춘-자루비노, 나진-자루비노간 기존 통신망의 접속 활성화

— 북한은 나진-훈춘간의 직통연결이 마스터플랜에 포함될 것을 주장 (추후 별도 논의 예정)

○ 요금정책

— TRED다지역내 통신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요금

- UNDP는 분당 국제요금 약 2\$ 제시
- 구체적인 요금수준은 추후 통신규제위원회와 통신개발회사가 결정

○ 통신규제기관 설립

— 원칙적으로 PMC 5개국의 통신분야 정부관계자 및 기술자 (각국 2명) 참여

- Commission 산하의 Sub-Committee 형태로 설치하여 협의체 형식으로 운영하되
- 통신주권 관련사항은 접경 3개국이 비접경국과 협의하여 결정

○ 투자유치계획

- TRAD Co.의 자회사 형태로 두만강통신개발회사(TRADA TO)의 설립
- PMC 5개국 외에 외부 일반투자자의 참여 허용
 - UNDP는 예시적으로 일반투자자의 지분비율을 45%로 제안
- 10년간 통신사업에 대한 독점적 운영권 확보 (연장가능)

○ 통신사업 구조

- 시내·시외·국제 및 이동통신은 1개사가 독점체제 유지
- 부가통신과 단말기는 자유경쟁, 이동통신은 일정기간후 경쟁 도입

3) 기타 참고사항

- 우리측이 제안할 예정이었던 통신규제 환경조사사업과 제5차 UNDP /ICP 사업논의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로 보류
 - 중국측 불참과 러시아측의 책임있는 대표가 불참한 상태하에서의 제안은 큰 실익이 없으며
 - UNDP측의 책임있는 level과의 동 제안에 대한 협의가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차기 PMC 회의에 제안).
- 차기 통신전문가 회의는 몽골요청으로 몽골에서 개최기로 함.
- UNDP 대표는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93. 9. 15까지 각국에 통보하고 의견수렴후 차기 PMC회의에 보고 예정

2. 법·금융·제도분야 전문가 회의

가. 제1차 법·금융·제도 전문가 회의

1) 회의 개요

○ 기 간 : '93. 2. 22 ~ 2. 24

○ 장 소 : 미국 뉴욕(PAUL AND WEISS 법률사무소)

○ 주요의제

- 분야별 전문가 해설 및 토론
- 제도부문 골격 및 재원조달 방안 등 논의
 - TRADP 기구구성 문제
 - 토지임차 문제
 - 재원조달 방안
 - TREZ내 적용 국제투자법

○ 참가범위 :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과 UNDP, WORLD BANK 및 투자자문회사 관계자 등

구 분	참 석 자
한 국	외무부 경제기구과장 등 5명
북 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서기장 등 3명
중 국	과학기술위원회 지역개발국장 등
러 시 아	대외경제부 다자경제국장 등
몽 골	대외경제부 총국장 등

남·북한 참가자 명단

한 국 (4명)	북 한 (3명)
문하영(외무부 경제기구과장)	림태덕(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서기장)
강대형(EPB 북방경제 1과장)	오기철(무역은행 부국장) 등
김학수(KIEP 선임연구위원)	
신웅식(신신법률사무소 소장)	

2) 회의 주요내용

- UNDP는 TRC(두만강지역개발회사)를 설립하여 TREDA(두만강경제개발지역)의 인프라 개발은 물론 접경 3개국의 토지 일부를 공동으로 조차하여 개발도시 형태의 신도시 개발을 담당토록 할 방침임을 피력
- 향후 각국의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으로는 TRC 설치 여부 및 기능, TREZ내의 외국인 투자를 위한 공동 입법문제 등을 들 수 있음.

가) TRADP 기구구성 문제

- 우리측은 PMC 국가로 구성된 상위기구가 향후 TRADP와 관련된 주요 최종의사 결정기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92.10 제2차 PMC회의 합의사항에 의거 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두만강지역 개발공사 설치안을 제의
- 이와 같은 아측 제의에 대해 중국, 러시아, 몽골 등 3개국은 별다른 이견없이 동의 입장 표명
 - 중국은 제3차 PMC회의 개최 한달전까지 개발조정위 및 실무위원회간 권한 배분에 관한 MATRIX 배포 요망
 - 러시아는 아측의 개발조정위 및 실무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동의하고 두만강지역개발공사는 순수 상업적 단체로서 활동하고 동 2개 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언급
 - 몽골은 우리측의 안에 대해 찬성하고 실무위는 조정위의 “Sub-Committee”형태가 되어야 함을 강조
- 북한은 토지임차 문제 등과 연계하여 제3차 PMC회의까지 입장 표명을 유보
 - 특히 TRC 설치와 관련 국적, 구성 및 구체적인 기능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
- 한편 한국은 개발조정위의 실질적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두만강지역개발회사에 관하여는 추후 발족시 PMC 참가 5개국이 동등한 자격과 비율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첨언함.

- UNDP측은 우리측 제안에 동의하고 2개의 정부간 기구(동북아시아 개발조정위와 실무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배분문제는 Matrix 형태로 몇개의 방안을 마련하여 제3차 PMC회의 개최 1개월전까지 각국에 송부, 재검토기로 함.

나) 토지임차 문제

- UNDP측은 두만강유역 3개국 국경교차지점에 장기적으로 약 200만㎢ 규모의 국제신도시 건설안을 설명하고 두만강지역 공동개발을 위한 전제로서 토지임차(Land lease) 및 국제관리(International management)의 필요성을 제기
- TREZ내에 접경 3국의 공동 토지임차로 신도시를 건립하게 될 경우 이 지역에 적용될 임차조건 등을 규정할 공동 국제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공동 국제법은 핵심도시 뿐만 아니라 TREZ 전체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러시아 법률가의 사전임을 전제)
 - 그러나 이러한 공동 국제법의 제정여부, 적용 대상지역(Core City 혹은 TREZ 전체)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없었음.
- 한편 토지임차에 대한 각국 의견을 종합해 보면
 - 먼저 러시아는 토지임차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표시하였으며
 - 중국은 국제협정안 작성시 재화, 금융 및 인적 이동의 자유가 전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함.
 - 몽골은 별 이견없이 토지임차, 국제관리 등의 세부사항에 관심을 표명
 - 그러나 북한측은 TRC 구성 예에서와 같이 반대입장은 아니나 '92.10월 북경개최 제2차 PMC에서 개발지역에 대한 국제관리 구상을 좀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음을 상기시키고 특히 통치권(Sovereignty), 토지임차 및 국제관리와의 관계에 많

은 의문을 제기하고 '93. 5월 차기 PMC회의에서 본 건에 관해 명백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언급

다) 재원조달 문제

○ 현 황

- 대규모 사회간접시설 투자는 재원조달에 문제점이 있음.
⇒ 사업계획을 소규모로 세분화, 관계국 공동 재정지원
- 개발지역에 대해 각국의 통치권을 유지하는 이상 개발재원도 각국 정부가 보증하여야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임.
- 북한은 ADB 및 WORLD BANK의 비회원국이므로 현재로서는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재원조달이 불가함.

○ 재원조달 문제와 관련 각국 의견을 종합해 보면

- 러시아는 각국이 우선 최대한 내자를 동원해야 함을 강조하고 자국은 국제 금융조달 방안의 일환으로 ADB 가입을 타진하는 초기단계에 있다고 언급함.
- 몽골은 관세 등 많은 법률적 미비점이 있다고 언급하고 차후 두만강지역개발회사 발족시의 재원조달 방안에 관심을 표명
- 한국은 재원조달 문제와 관련 각국의 사회간접시설 구비를 위한 내자동원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UNDP측이 구체적인 재원조달 전략을 수립해 줄 것을 요망

라) 3개국 경제특구에 적용할 국제투자법 필요성 문제

- 현재 각국의 외국인 투자법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TREZ에 적용할 투자우대에 대한 공통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 (러시아, 중국 및 UNDP)
- 이에 대해 북한측은 통치권의 유지와 이러한 국제법의 제정간에 어떠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 제기

나. 제2차 법·금융·제도 전문가 회의

1) 회의 개요

- 기 간 : '93. 9. 20 ~ 9.24
- 장 소 : 중국 북경(Great Wall Sheraton Hotel)
- 주요의제
 - TRADP 관련 국제협정문(안) 검토
 - 두만강지역개발회사(TRAD Co.) 정관초안 및 관련사항 논의
- 참가범위 :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과 UNDP 관계자등

남·북한 참가자(대표) 명단

한 국 (8명)	북 한 (5명)
이태식(외무부 국제경제국 심의관)	림태덕(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서기장)
강대형(EPB 북방경제 1과장)	오을록(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및 남남협력연구소 부소장)
신용식(신신법률사무소 소장)	황 란(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지도원)
연하청(KDI 북한경제연구센터소장)	오기철(무역은행 부국장)
문하영(외무부 경제기구과장)	이동준(대외경제위원회 선임연구원)
배종렬(수출입은행 해외투자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익수(KIEP 연구위원)	
곽영훈(환경그룹 회장)	

2) 회의 주요내용

가) 국제협정문(안) 검토

- UNDP측은 참가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92. 5월 제3차 PMC회의
에서 잠정 합의한 2개의 국제협정(안)을 3개로 재차 작성·배포

— 3개 국제협정 : 두만강지역개발회사(TRAD CO.) 설립, 5개국
정부간위원회(Commission) 및 유역국간 위원
회(Committee) 설치에 관한 3개의 별도 협정

- UNDP측은 본 건이 그간 토의결과를 충분히 반영한 것인 만큼 원
안대로 합의할 것을 적극 요망하였으나 각국의 이견 노출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함.

나) 두만강지역개발회사 정관초안 논의

- 「두만강지역개발회사 정관초안」은 제3차 PMC 회의에서 UNDP가
7월중순까지 작성·배포키로 함에 따라 7.16일 UNDP측에서 동 정
관초안을 작성, 관계국에 의견을 문의하였으며 금번 회의에서 집중
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UNDP측이 당초 토의문안과는 달리
다른 대안을 내놓아 구체적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원칙적인
사항만 검토
- UNDP측은 개발회사 정관초안 개요를 설명하고 주식배분안의 변
경에 따라 유역국 및 비유역국 이사를 각 2명씩으로 하며, 여타
주식 의결권 등도 변경됨을 언급함.

— TRAD Co. 정관초안 주요내용

- 회사 설립장소 및 준거법
 - 주식의 배분안
 - * A, B, C, D급으로 구분하여 총 12,000주 발행
 - 총회 구성 및 권한
 - 이사회 구성·운영
- 두만강지역개발회사 정관초안 역시 주식배분, 의결권, 이사 선임
등 문제점을 감안, UNDP가 각국의 의견을 좀더 수렴한 뒤 정관초
안을 수정·보완후 금년내에 각국이 가서명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

다) 각국별 종합의견

북 한

- 북한은 양해각서(MOU)보다는 국제협정을 선호하며 UNDP가 재작성한 국제협정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몇가지 이견이 있으며, 이를 정리하여 UNDP측에 공식 서한으로 제출하겠다고 함.
- 북한대표는 유역국이 받는 주식(Class C)은 우선주로 하고 주권과 관련한 사회·법률 문제는 모든 유역국이 거부권을 갖기를 희망함.
- 회사정관 초안에 대해서는 UNDP측이 새로운 개정안을 작성할 예정이므로 이를 접수한 후 의견을 제시할 예정임.

몽 골

- 국제협정안이 그간 충분한 토의를 반영한 것이므로 더이상의 논의없이 채택될 것을 요망하며, 두만강지역개발회사에 자국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임대할 의향을 표명하는 등 적극적 수혜 입장
- 또한 전체적인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안이 조속히 작성될 것을 요망하는 등 아국입장을 대체로 동조·지지

중 국

- 최단시일내에 국제협정에 가서명하고, Committee 및 Commission의 구성, 경제개발계획안 작성, 회사 설립절차를 진행할 것을 적극 희망함.
- 회사 주식배분에 관해서는 A, B, C, D등 4그룹으로 하여 어렵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아예 주식을 배분하지 말고 5국간 회사를 설립, 투자유치를 도모하는 가능성도 언급함.

러시아

- 주식배분 등 정관초안 논의도 중요하나, 경제투자적 사항이 법적 사항보다 선행 또는 최소한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 또한 회사에 토지임대시 이를 Sub-lease하여 얻는 이익은 모두 자국내에 재투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종합경제개발계획(안)이 나오면 이를 검토한 후 자국입장을 결정하겠다고 언급하고 그전까지는 국제협정에 가서명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는 등 기본적으로 본건에 소극적인 입장

한 국

- 두만강지역개발회사 정관초안과 관련 주식배분, 의결권, 이사선임 등이 일반 국제상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규정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특히 정관초안 72조 소위 major matters에 대한 유역국의 거부권 규정은 회사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국제투자 유치를 불가능하게 하는 합리성이 전혀없는 내용이므로 삭제되어야 함을 언급함.
- '93.11월전에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국제협정안, 회사정관 초안 등을 완전 정리하여 가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언급함.
- 금후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는 사업 프로젝트, 자금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서를 조속히 작성, 각국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망함.

UNDP

- 상기에 대해 UNDP측은 각국 의견을 수렴하여 3개 국제협정 및 회사 정관을 93년내에 가서명 및 서명토록 추진하고 이를 할 수 없는 국가는 추후 가능할 때 언제든지 가서명 또는 서명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언급, 사실상 러시아를 제외한 4국만의 두만강지역개발계획 사업 진행 가능성을 시사

3. 자원·산업·환경분야 전문가 회의

가. 제1차 자원·산업·환경분야 전문가 회의

1) 회의 개요

- 기 간 : '93. 3. 16 ~ 3.19
- 장 소 : 핀란드 헬싱키
- 주요의제
 - 각국의 자원 및 가공시설 현황 발표
 - 두만강지역의 환경실태 및 환경협력 필요성 토론
 - TREZ 지역의 산업개발 전략
- 참가범위 :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 4개국과 핀란드, UNDP 관계자 등

구 분	참 석 자
한 국	KIEP 선임연구위원 등 5명
중 국	훈춘시 부시장 등 3명
러 시 아	프리모스키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등 2명
몽 골	광물자원지질부 수석연구원 등 3명
핀 랜 드	—
U N D P	—

* 북한은 팀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불참

한국측 참석자 명단(5명)

김학수(KIEP 북방경제실장),	최석영(외무부 과학환경과 서기관)
송상민(EPB 북방경제1과 사무관),	진영환(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곽영훈(환경그룹 회장)	

2) 회의 주요내용

자원분야

-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접경국가의 주요 광물자원(석탄, 석유, 가스 등) 임산자원 및 가공시설 현황에 대한 각국의 발표와 TREZ 지역내에 새로운 광물자원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가능성을 토의
 - 각국의 자원현황에 대한 발표는 중앙정부에서 자국의 자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기를 꺼린다는 이유로 개괄적인 설명에 그침. 다만, 몽골의 경우에는 주요 광물자원에 대한 통계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개발을 위한 인프라 및 가공시설 설치를 희망
 - TREZ내에 설치 가능한 자원가공 처리시설로는 중국의 대경유전 개발을 위해 나진·선봉지역에 정유공장을 확장할 필요성과 TREZ 지역내에 목재가공 공장의 설치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북한의 불참으로 설치 가능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함.
 - 제철공장, 시멘트공장 등의 배치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20~30년 후에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장기과제라는데 대해 참여국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특히 러시아는 생태계 보호와 환경보존을 이유로 TREZ 지역내에 자원가공시설의 설치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함.

환경

- 잠재적인 자원 제공자인 다자간 개발은행(MDB)과 민간투자자들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TRADP에 적용될 환경분야의 기본원칙을 협의
 - 전문, 총강, 환경영향 평가분야(EA), 환경영향 완화조치 및 관리 계획분야(EMMP), 실행수단 등 5가지 분야에 걸쳐 환경분야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을 작성
 - 기본원칙에는 주로 지금까지 국제간의 환경협력을 통하여 형성된 합의를 존중하고 다자간 개발은행의 대출에 적용되는 환경 분야의 요구조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선언적 의미에서 포함

되었음.

- EA, EMMP를 위한 기금조성 및 접경국가의 환경관련 법률의 정비 및 조화문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표현에 대하여 이견이 노정되어 일단 유보하기로 하였음.
- 우리나라는 TRADP관련 환경분야에 대한 정책결정과 지역간 협력에 있어서 Commission이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나 UNDP측에서는 법률·제도반 워크숍에서 결정될 사안임을 이유로 일단 이번 워크숍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채택하기로 결정
- 이번 회의를 통하여 결정되지 못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다자간 개발은행 관계자들도 참여하는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다시 논의할 기회를 갖기로 함(북한측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송부하여 의견을 받는 형식을 취할 예정).

지역계획 및 산업개발 전략

○ Core City 문제

- TREZ 지역내에 산업개발을 촉진하고 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TREZ 중심지역에 금융 등 비즈니스관련 서비스 기능을 담당할 Core City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
- 중국, 몽골측 대표는 Core City 건설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없었으나 러시아 대표는 Core City 개발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명백히 함.
 - 러시아측의 TREZ 지역은 환경기준이 엄격하고 노동력 및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여 산업도시로의 개발은 어려움

○ 산업개발 전략

- 개발전략 수립의 전제가 되는 개발방식, 각국의 산업현황 및 TREZ 지역이 갖는 국제적 비교우위 등에 관한 합의 및 정보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시나리오 작성에 실패함.

- 잠정적으로 TREZ 지역의 산업개발을 위해서는 수출위주의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장기적으로 자원개발 등 1차 가공 산업의 육성과 서비스산업의 발전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 이라는데 의견이 접근됨.
- 우리측은 이를 위해서 NEARDA 범위에서 각국의 산업현황 및 협력가능성 파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각 국이 국제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의 배치 방안을 수립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언급

나. 제2차 자원·산업·환경분야 전문가 회의

1) 회의 개요

- 기 간 : '93. 11. 8 ~ 11. 10
- 장 소 : 한국 서울(Sofitel Ambassdor Hotel)
- 주요의제
 - 두만강지역의 산업·자원현황 보고
 - 두만강 유역국간 산업발전 협력방안 논의
 - UNDP 용역사업 중간보고
- 참가범위 :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PMC 5개국과 핀란드, UNDP 관계자 등

구 분	참 석 자
한 국	상공자원부 북방통상과장 등 3명
북 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과장 등 3명
중 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 등 3명
러 시 아	각료 회의실 대외경제담당관 등 3명
몽 골	국가개발위원회 서기 등 3명
핀 랜 드	Jaakko Poyry사 부사장

남·북한 참석자 명단

한국 (3명)	북한 (3명)
장현식(상공자원부 북방통상과장) 오정규(EPB 북방경제1과 사무관) 김익수(KIET연구위원)	황정남(대외경제협력추진위 과장) 리성덕(정무원 사무국 과장) 김정렬(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연구원)

2) 회의 주요내용

가) 각국별 개발계획 발표

중 국

- 개발 중심지를 기본적으로 훈춘지역에 설정
 - 훈춘지역 종합개발계획이 중앙정부에 의해 승인
 - 개발방향은 「인프라」의 확충→경공업부문 유치→기술집약적 산업 개발→금융개발 등 서비스산업 발전의 단계적 개발전략을 채택
- 단기적으로는 기존 「인프라」의 확충과 경공업 분야를 중점개발
 - 훈춘시 부근 5km² 지역에 「국경경제협력구」를 설정하여 보세구역 등을 설치
 - 방천지역에서는 「국경무역소」를 설치하는 등 두만강 접경도시 방천 및 훈음을 개방하고 경신지역에서는 국제관광단지를 마련
 - 훈춘~장영자, 훈춘~도문, 훈춘~방천 등의 철도 및 도로건설 훈춘발전소(20만→60만kw) 확충, 통신설비(3만회선) 확보
- 장기적으로는 공업단지 조성과 「인프라」의 추가확충으로 산업 고도화 모색

- 훈춘 북방지역에 3개의 공업단지를 건설하고 「국경경제협력구」를 16.7㎢까지 더욱 확대
- 훈춘-크라스키노, 훈춘-나진, 훈춘-분수령간 고속도로 건설과 훈춘시 동북 60km 지점에 국제공항 건설

북한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을 중심으로 발표
 - * 동 회의에 참석한 북한대표는 개발면적을 기존의 621㎢에서 중국 훈춘과 연결되는 원정리일대 125㎢를 추가하여 총 746㎢로 확대했음을 언급
- 단기적 추진계획(∼1995)
 - 항만 : 청진항(8→10백만톤), 나진항(3→10백만톤)
 - 철도 : 회령~학송(168km) 전철화, 훈춘 등에 철교 건설
 - 도로 : 청진~회령(82km) 확장, 나진~셋별(73km) 신설
 - 전력·통신 : 선봉지역(20→40만kw), 국제통신(12만회선) 확장
 - 공단조성 : 신흥, 동명, 창평, 청계, 백학 등 5개 단지 우선 조성
- 장기적 추진계획(∼2010)
 - 항만 : 나진항(10→30백만톤)을 대규모 「컨테이너」항으로 확장하고 청진항(10→20백만톤)도 확충
 - 공항 : 선봉에 국제공항을 건설하여 여객 및 화물수송 중계지로 활용
 - 철도·도로 : 고무산~훈춘(169km)간 철도 복선화와 청진~나진(61km)간 고속도로화 추진
 - 공단조성 : 관곡(550ha) 화학공업단지 등 4개 공단을 추가로 조성

러시아

○ 블라디보스톡 권역 개발

- 금융, 무역, 연구, 통신센터로 개발하여 연해주지역의 중심지 역할 담당
- 고급노동력이 풍부한 점을 이용,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
- 블라디보스톡~아르템간 고속도로 건설과 블라디보스톡항의 확장

○ 나호트카 권역 개발

- 기존 철도·항만 등 「인프라」시설과 광대한 토지를 이용한 제조·가공업과 수송센터의 역할 담당
- 보스토치니, 연해주 공단 등의 설립으로 기계 및 소비재 생산 기지로 활용
 - 2010년까지 전력(40→170MW)과 용수(5→22천) 공급 확대

○ 핫산지역 개발

- 비교적 발전수준이 낙후된 대신 접경지역인 점을 감안, 변경무역 중심지로 개발
- 천연자원을 활용하는 농업, 어업 및 식품가공센터로 육성하고 관광객 유치 등 「레크리에이션」지역으로 개발
- 자루비노 및 포시에트 항구를 수송항으로 확충 개발

몽골

○ 몽골 동부지역이 TRADP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석탄, 석유, 우라늄 등 지하자원과 가축·삼림 등 자원이 풍부
- 산업분야는 가축사육분야의 비교우위를 이용한 수직, 가축 및 육가공 산업의 유치를 희망
- 전력 에너지원으로서 이 지역의 강풍을 이용한 풍력발전소 건

립방안 검토

나) 특별연구 Project의 발표내용

① 우리측 연구용역사업 중간보고

KIET의 「TREZ/TREDA내 산업현황과 분업가능성 연구」

- 두만강지역의 경공업 현황과 발전 가능성
 - 산업기반시설 등이 열악하고 자본과 기술수준이 부족한 반면 다른 생산요소가 비교적 풍부하여
 - 두만강지역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산업간 분업화에 따른 발전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임.
- 동북아지역 산업특화 발전방향
 - 1단계(~1999년) : 두만강 소삼각지역(TREZ)을 중심으로 노동집약적 원재료 단순가공 및 수출산품 임가공 형태의 경공업이 발전되고 「인프라」건설사업도 유망하게 추진될 것임.
 - 2단계(~2010년) : 대삼각지역(TREDA)으로 산업분화가 확대되면서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더욱 심화·발전되고, 전자, 자동차 부품 등 자본, 기술집약적 산업도 점차 유입될 것임.
 - 3단계(2010년~) : 동북아지역(NEARDA) 전체적 차원에서 산업간의 분화와 분업화가 고도화되면서 중화학공업과 금융·관광 등 서비스 산업도 발전할 것임.

환경그룹의 「주요인프라 개발계획 타당성 검토 및 TREDA내 광역

공간활용방안 수립」

- 「인프라」
 - 도로는 연길~훈춘~나진~자루비노~블라디보스톡을 축으로하여 주변도시와의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대도시에는 전철, 전차

등 대중 교통시설이 필요

-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는 TREZ 항구에서 몽골 초이발산을 경유하는 라인과 TREZ 항구에서 북경을 거치는 라인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 훈춘과 초이발산에 내륙 컨테이너 기지를 건설하고 나진~훈춘~자루비노를 연결하는 환상철도망의 개설이 바람직함.

○ 토지이용계획

- 두만강유역에 개발되는 도시는 4E(Economically Viable, Environmentally Sound, Energy Efficient, Educationally Conducive)에 충실하여야 함.
- 도시개발은 TREDAs의 중심도시인 연길, 청진, 블라디보스톡을 확대 재개발하고 TREZ안의 여러 도시를 위성도시 형태로 개발

한전의 「전력공급체계」연구

- 2010년에 TREDAs지역의 최대 전력수요는 1,019MW로 예측되고 발전용량은 1,600MW 정도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투자재원은 1,780백만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접경 3개국간에 사용하고 있는 전압 및 주파수가 달라 이를 하나의 System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최대 과제임.
- 전력수요 예측에 필요한 접경국의 기초자료가 불비하고 현황에 관한 자료가 있어도 이의 공개를 꺼리고 있어 연구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② 핀란드 야코포이리社의 「임업 발전방향」연구

- 두만강지역은 세계 여타 삼림지역보다 유리한 조건을 다수 구비
 - 러시아 연해주지방, 중국 흑룡강성, 몽골 동부지역에 훌륭한 삼림이 풍부함.
 - 삼림의 종류도 침엽수, 활엽수 등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어 종합

적 목재산업 발전에 좋은 입지를 갖고 있음.

- 동해안쪽 항구를 이용할 수 있어 운송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
- 인근에 일본을 비롯한 대규모 목재수요시장이 자리잡고 있음.

3) 향후 계획

- UNDP측은 금번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각국에 통보할 예정
 - 차기 산업·자원분야 워크숍의 일시 및 장소는 아직 미정이나 UNDP의 Draft를 기초로 관계국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주가 될 것임.
 - 조정된 의견은 제4차 PMC회의에 보고되며 UNDP의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예정

4. 운송분야 전문가 회의

가. 제1차 운송분야 전문가 회의

1) 회의 개요

- 기 간 : '93. 3. 30 ~ 4. 2
- 장 소 : 중국 북경
- 주요의제 : 두만강지역 운송분야 개발계획 및 우선순위 검토
 - 동북아시아 지역교통의 요충지로서의 TREZ 개발전략 마련
 - 각국이 운송수요에 대한 발표
 - 기존 또는 계획중인 고속도로 및 철도현황에 대한 각국 발표
 - 공항, 항만, 도시간 및 도시내 운송, 환경 등에 관한 토론
- 참가범위 :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과 핀란드,

남·북한 참석자 명단

한 국 (5명)	북 한 (3명)
최영호(EPB 북방경제1과 사무관) 오재학(교통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전일수(해운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곽영훈(환경그룹 회장) 진영환(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리기만(중앙과학기술통보사 부사장) 김문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과장) 황 란(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지도원)

2) 회의 주요내용

- 접경 3국의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우선순위 합의
(※ 숫자는 각국의 우선순위)

구 분	고 속 도 로	철 도
북 한	1. 청진/회령(청진항 화물운송) 2. 청진/나진·선봉 3. 셋별/훈춘(중국측 연계지점)	1. 회령/학송 전기화(168km) 2. 중국/북한 연계구간 (훈융/훈춘,삼봉,개산툰) 3. 러시아 핫산과 연계구간
중 국	1. 훈춘/자루비노 2. 중심 국제도시/러시아 노바야제르우나 3. 훈춘/셋별('93 건설) 4. 훈춘/중심 국제도시	1. 훈춘/크라스키노 • 연길/훈춘간 철도공사중 • 장춘/하얼빈 등 내륙철도 전철화 추진 • 훈춘/흑룡강/우스리스크/ 블라디보스톡 철도 연계
러시아	1. 자루비노/훈춘 2. 아무르스키만/블라디보스톡 (1,2단계 추진)	1. 훈춘/크라스키노 • 광역 블라디보스톡 철도망 계획

- TREZ내 국제규모의 신공항 1개소 신설
 - 공항 예정지는 북한(서번포), 중국(경신/러시아 경계지)중 추후 결정
- LANDBRIDGE: 두만강하구~연길·장춘~몽골 구간을 우선 고려
- 3차 PMC회의 이후 1개월내 워크숍 개최 예정(종합계획 작성)

3) 각국별 기본입장(발표내용)

중 국

- 중국의 경신, 북한의 웅상, 러시아의 핫산지역에 「국제도시지역 (Int'l City Area)」을 건설하고
 - 러시아 항구(자루비노, 블라디보스톡)와 도로·철도 연계
 - 북한 청진(또는 나진항)에 중국 전용부두 건설 및 철도·도로 연계의 이원적 연결계획을 구상
 - 장기적으로 훈춘공업지대~경신간 고속도로를 연계하고 방천항을 River Port로 개발할 계획(2010년)

러시아

- 러시아는 광역 블라디보스톡의 운송인프라 개발계획을 설명하였으며, 핫산지구 개발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미온적 입장

몽 골

- 몽골은 동북부(초이발산)의 철도·도로 건설계획을 제시하고, 두만강 하구까지의 철도건설 방안을 설명

북한

- 각 특구는 독자개발하되, 중국 동북지역과 몽골의 화물물동량을 청진·나진항으로 연계시켜 중계무역을 통한 자유무역지대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 중국, 러시아와 철도 및 고속도로 연계건설을 제안
 - 국제상업도시의 공동건설은 전혀 계획이 없음을 강조
 - 철도·도로·항만을 건설하기 위한 「국제합영회사」 설립 구상을 밝히고, 청진(또는 나진)에 중국 전용부두 건설문제 등을 협의할 방침

5. 두만강지역 현지조사 및 지역개발전략(RDS) 워크숍

가. 개 요

1) 중·러 두만강지역 현지조사

- 기 간 : '94. 3. 13 ~ 21
- 목 적 : 두만강 지역개발전략(RDS) 수립을 위한 현지조사
- 참가범위 : 한국, 중국, 러시아, UNDP(북한, 몽골은 불참)

구 분	참 석 자
한 국	KIEP 연구위원 김익수
중 국	국가계획위원회 지역경제사 부처장 유경생
러 시 아	연해주 무역담당 부지사 등 2명
U N D P	지역개발전략(RDS)팀 : 단장 Greh Hayes 등 5명 운송인프라팀 : 단장 Dave Sutherland 등 5명

* RDS 현지조사팀 일행은 당초 북한의 나진·선봉지역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북한측의 입국 거부로 무산

— 이는 두만강지역개발회사(TRAD Co.) 설립 논의를 당분간 유보키로 한 금년 2월초 「뉴욕 비공식 실무회의」의 결정이 북한측의 불참하에 이루어진데 대한 불만표시인 것으로 보임.

(북한대표단은 미국측의 비자발급 지연으로 뉴욕회의 불참)

2) 지역개발전략(RDS) 워크숍

○ 기 간 : '94. 3. 28 ~ 30

○ 장 소 : 중국 북경

○ 주요의제 : TRADP의 지역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초안작성 주요내용 협의

○ 참가범위 :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UNDP(몽골은 불참)

구 분	참 석 자
한 국	KIEP 연구위원 김익수
북 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석희연 국장, 황정남 과장, 황 란 등 3명
중 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사장 황영달 등 다수
러 시 아	러연방 대외경제무역성 Yuri Kochevoi
U N D P	Tenno Soren 등 5명

나. 중·러지역 시찰결과

○ UNDP 주도하의 다자간 개발이 각국의 이해 대립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인접국간에 쌍무적으로 추진되는 인프라 건설사업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음.

도 로

- 훈춘-크라스키노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중국 영토내인 훈춘-장령자 구간은 콘크리트 도로로 포장에 완료된 상태임.
- 크라스키노-자루비노간의 30km 도로공사는 일본과 중국 자본으로 95년말 완공을 목표로 일부구간에 대해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철 도

- 훈춘-크라스키노 철도중 중국 영토내인 훈춘-장령자 구간에 대해서는 철도 노반과 교각 건설사업을 기본적으로 끝낸 상태이고, 러시아측의 장령자-마하리노 구간은 중국측 노동자 지원하에 건설공사 진행중
- 북한은 훈춘-훈춘을 연결하는 교량(약 300m)을 복구, 중국과의 끊어진 철도(5km)를 연결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이와 관련 대외경제협력추진위 위원장 김정우가 '94. 3. 28 훈춘에 들러 중국과 협의

항 만

- 중국은 북한의 나진·청진과 러시아의 자루비노항을 이용한 동해로의 출로를 모색중에 있으나 장차 정치상황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 장기적으로 두만강 준설을 통한 방천항 개발을 추진할 계획임을 확인(21세기에는 5백만톤의 화물처리 능력)
- 러시아측은 약 5억달러를 들여, 자루비노항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우선 2억달러 정도의 투자이면 훈춘과의 철도연결 이후에도 물동량 증가를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공 항

- 공항부문은 인프라 건설중 접경 3국간에 가장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는 부문으로, 중국은 경신지역에, 북한은 선봉지역에 각각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길림성 내부에서도 연길시와 장춘시가 국제공항 유치를 놓고 경쟁하고 있음.

다. 지역개발전략(RDS) 워크숍 결과

- RDS의 중점은 TREDANE 내 무역·투자확대를 저해하는 수출입, 관세, 외화, 법제 등 각종 제도적 장애를 제거, 「좋은 환경」(Enabling Environment)을 조성하는데 있음.
- 지역개발전략 초안의 주요내용 협의
 - Committee, Commission 산하에 하부위원회(혹은 Working Group)를 설립, 국경무역, 역내무역의 확대, 투자 및 관광의 촉진, 무역분쟁 해결절차의 개발, 통신·금융·이중과세 문제에 관한사항 등을 협의
 - 국경무역 : 바터무역으로부터 현금결제무역으로의 점진적인 전환
 - 무역 장애요인 제거 : 출입국, 세관, 외환관리 절차의 간소화·전산화
 - TREDANE 내 주요 인프라 건설에 있어서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접경국간 협의 강화
- TREDANE의 지역범위 확장
 - TREDANE가 종전에는 연길-블라디보스톡-청진을 연결하는 10,000㎞의 지역이었으나, 금번 워크숍을 계기로 나호트카·보스토치니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확대되었음.

라. 각국의 입장과 전략

북한

- 북한은 금년초 뉴욕회의에서 TRAD Co.가 돌연 유보되었다는 사실에 심한 불만을 표시했으며, 워크숍 도중 TRAD CO.의 설립이 당장 어려울 경우 이에 준하는 사업 추진기구의 잠정적인 설립을 주장하였음.
 - 따라서 북측은 오는 '94년 7월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인 제4차 PMC에서 TRAD Co.의 부활이나 사업 추진기구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가능성이 큼.

- 북측은 대체적으로 훈춘-자루비노간의 철도사업의 경우처럼 중·러간의 쌍무간 개발협력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초조감을 느끼고 있음.

러시아

- 러시아측은 나호트카·보스토치니 특구지역을 교통의 중심지로서 뿐만 아니라 배후공단의 조성에 힘을 쓰고 있는 반면, 남부 자루비노·핫산지역은 공단건설보다는 단순한 통과 내지는 중계무역의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이중전략을 갖고 있음.

중 국

- 중국은 UNDP의 다자간 개발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도 러시아, 북한과 쌍무간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6. 환경 워크숍

가. 회의 개요

- 기 간 : '94. 4. 21 ~ 22
- 장 소 : 중국 북경(Continental Grand Hotel)
- 주요의제 : 두만강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환경전략 수립을 위한 각국의 의견 교환
- 참가범위 :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과 UNDP관계자 등 15명

구 분	참 석 자
한 국	환경기술개발원 연구원 등 2명
북 한	환경보호위원회 국장 등 2명
중 국	환경과학연구원 원장 등 7명
러 시 아	자연환경보호부 국제사업센터 선임연구원
몽 골	자연환경부 선임연구원

남·북한 참석자 명단

한국 (2명)	북한 (2명)
정희성(한국환경기술개발원 선임 연구원) 임종성(경제기획원 북방경제과 사무관)	한승백(환경보호위원회 국장) 최송국(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과장)

나. 회의 주요내용

① 환경연구(Environment study)의 추진경과 설명(UNDP의 Craes보고)

○ 중국, 러시아 TRED A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94. 3. 13-21, RDS팀과 병행 실시)

* 북한측의 입국거부로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못 함.

— TRED A지역의 환경문제

- 토양 및 수질오염으로 생태계가 영향 받음
- 산업폐수로 인한 두만강의 수질오염이 심함
- 겨울철 대기오염이 심함

— 해양생태계의 조사결과 러시아측 지역은 개발이 아직 안돼 환경 상태가 양호하나 중국측 지역은 환경오염 실태가 우려할만한 수준

- 환경보호를 통한 생태계 보존이 관광자원 등 개발과 조화되도록 개발관리계획(Development Management Plan) 수립 필요(Mr. Gordon 제안)
- 실태조사 및 워크숍 결과를 반영하여 4월말까지 TRADP 환경전략 초안을 작성, 각국에 통보하기로 함.

〈TRADP 환경연구의 내용〉

- 환경법규 및 기준
- 개발에 따른 천연자원 보호
- 생태계 보호
- 오염방지 및 통제계획

② TRADP의 환경원칙에 대한 양해각서(MOU) 검토

- Ms. Jane Steward(TRADP 환경·법 Advisor)가 마련한 MOU 초안에 대한 일부 문구수정 및 환경분야 Sub-Committee 설치 제안이 있었으나
- 동 초안 내용이 환경평가기관으로 TRADP Corporation(두만강지역 개발회사)을 상정하는 등 '94. 1월 뉴욕 실무회의 이후 수정된 TRADP 협정문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바
- 우리측 제안에 따라 협정문의 변동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초안을 작성하여 4차 PMC회의 이전에 각국에 통보토록 함.

다. 환경전략에 대한 각국입장

북한

-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작년부터 실시
 - 금년말경 1단계 조사결과가 나올 예정

- '86년에 환경보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 하였고
-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환경보호센타를 설치할 계획
 - * 연변 환경보호국에 의하면 청진 앞바다가 정화되지 않은 공장 폐수 ·하수 등으로 오염 상태 심각
 - * Mr.Gordon은 나진 앞바다의 주요 오염원이 승리화학공장이라고 지적

중 국

- 중국은 Rio 환경선언에 따라 China Agenda 21을 마련하여 국가 개발 계획에 반영
- TRED A지역은 50종의 포유동물, 200종의 조류, 1,000종의 곤충 등 생물학적 다양성이 풍부

러시아

- 자국 TRED A지역의 생태계를 계속 조사하여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

몽 골

- 4가지 형태의 보존지역을 설정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있음.
 - ① 엄격한 자연보존지역(Specially Protected Area)
 - ② 국립공원(National Parks)
 - ③ 천연기념물(Natural Monuments)
 - ④ 보존지역(Reserves)

환경부

한 국

- TREDA 지역의 개발추진에 있어, 환경영향평가 및 관리와 공동 관심사에 대한 조정체계 필요
 - 접경 3개국만이 참여하는 Committee보다는 5개국의 협의·조정 기구인 Commission 산하에 환경협력조정기구 설치
- TREDA 지역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도적 장치 및 재원확보 방안 강구
 - 참가국의 재원분담에 앞서 지구환경기금(GEF), WORLD BANK, ADB 등 국제기구의 자금을 이용하는 방안 강구
 - 환경영향평가 집행기구는 TRADP 회원국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대기오염 및 해양오염 등에 관한 모니터링체제 설치, 환경관련 공동조사 및 정보·인력·기술교류 등 협력사업 추진

V. 민간차원의 조사연구 활동

1. 평양 국제회의

가. 회의 개요

- 명 칭 : 동북아경제포럼(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 기 간 : '92. 4. 28(월) ~ 5. 3(월)
 - 나진, 선봉, 두만강, 청진지역의 시찰('92. 4. 29~5. 2 새벽)
 - 두만강하구와 동북아경제협력에 관한 학술토론('92. 5. 2~5. 3)
- 장 소 : 북한 평양(인민문화궁전)
- 목 적
 - 북한 북부의 청진·나진·선봉 3개 항구와 두만강하구 및 철도, 도로의 시찰(4일간)
 - 두만강지역 개발 및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학술회의 개최(2일간)
- 주 최(공동)
 -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위원장 : 김정우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 하와이 East-West Center(조이제 박사)
 - 평양국제회의 일본실행위원회(가나모리 일본경제연구센터 회장)
- 참가범위 : 한국, 북한,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각국 옵서버, UNDP 전문가 등 130여명
(※ 외신기자단 및 비공식참가자 제외)

구 분	참 석 자
한 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유장희 등 18명
북 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 이경일 부위원장 등 47명
일 본	일본경제연구회장 가나모리 등 50명
미 국	하와이대 부설 EWC 조이제 부소장 등 3명
중 국	중국 API 부소장 왕우생 대표 등 3명
러 시	우라지오 해양센터소장 A. Alekseev 등 2명
기 타	UNDP 및 옵서버 6명

※ 외신 기자단 : 38명(일본 21, 미국 14, 기타 2)

○ 한국측 참가자 (18명) 명단

— 주최측 초청인사(2명)

- 김덕중(서강대 교수), 김영호(경북대 교수)

— 두만강개발연구협의회 관련 인사(14명)

- 유장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한국측 참가자 대표)
- 강홍구(" 북방지역센터 소장)
- 김익수(" 북방경제실 책임연구원)
- 신응식(신신법률사무소 소장 겸 변호사)
- 제성호(민족통일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고일동(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연구위원)
- 배종렬(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연구소 책임연구원)
- 이종구(한국무역협회 상무)
- 홍택기(산업연구원 중국연구실장)
- 오재학(교통개발연구원 교통계획연구실 선임연구원)
- 이수성(통신개발연구원 정보통신 정책연구실장)
- 광영훈(환경그룹(주) 회장)
- 전일수(해운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유홍룡(해양연구소 해양지질연구실장)

— 정부관계자(2명)

- 경제기획원 북방경제1과장 강대형 등 2명

나. 회의 주요내용(각국 대표자 및 UNDP 자문관 발언요지)

가) 북한

북한은 중국, 러시아, UNDP 등이 기존에 제시한 바 있는 두만강지역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나진·선봉지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현실태와 전망에 대하여」라는 회의자료를 통해 ①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자연환경 및 지리적 조건에 대한 일반적 개요(발표: 국토설계사업소 전문가 리명근) ②자유경제무역지대내의 나진항과 선봉항 및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된 청진항에 대한 현황과 확장 전망(발표: 항만총국장 김정관) ③북부철도 윤회망의 현황과 확대 전망(발표: 철도전망계획사업소 부소장 이창길) ④북부지구도로망의 현황과 건설전망(발표: 국토설계사업소 전문가 김정서) 등에 대한 기본입장에 관해 발표함.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실태와 전망(요지)

① 일반개요

○ 위치 및 자연환경

— '91.12.28, 정무원 결정 제74호로 선포

— 나진·선봉항을 시작으로 동북쪽 우암(서수라)까지 약 621km

※ 총 면적중 건설에 적합한 부지는 200km² 예상

○ 경제적 조건

— 나진·선봉지역에 연간 200만톤의 정유공장을 비롯 식료, 생필품, 전자재 및 의복생산 공장이 있고 청진에 김책제철소 등 중화학 공업제품 생산시설이 있음.

— 전기공급은 웅기, 청진 화력 및 서두수 수력발전소에서 해결

— 항구시설로는 나진의 기존 300만t, 원유 수출입항으로 이용되는

선봉의 200~300만t, 800만t을 수용하는 청진항을 들 수 있음.

- 철도는 나진으로부터 두만강을 따라 함경북도 북부지방을 순회하는 총 405km의 환상철도가 있고 남양과 두만강역에서 중국의 도문과 러시아 핫산으로 각각 연결되어 있음.
- 도로망 역시 북부지역을 순회하는 431km의 순환도로망이 있고 남양, 셋별 등에서 중국의 도문 및 훈춘과 연결되고 두만강에서 러시아의 핫산과 연결
- 나진·선봉지역의 인구는 13만으로, 이중 9만이 나진·선봉의 도시지역에 거주
- 수자원은 두만강에서 42억m³, 기타 지역에서 2억m³를 포함, 총 44억m³ 확보로, 공업 및 식수 등으로 충분한 공급 가능

②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계획

○ 항만 확충

- 나진항을 년 3,000만톤 능력으로, 청진항을 2,000만톤 규모로 늘려 이 지역 총 하역능력을 5,000만톤으로 확충
- 장기적으로 선봉·웅상지역의 하역능력을 5,000만톤으로 확충하여 FEZ내에 1억톤의 능력을 갖출 것임.

○ 철도 확장계획

- 1단계로 회령-학송사이 168km 전기화, 명호~훈음사이 126.5km의 복선화 등으로 수송능력을 년 2,000만톤으로 함.
- 2단계로 고무산~훈음사이 169km와 반죽~명호의 71km를 복선화하여 수송능력을 5,000만톤으로 확장

○ 고속도로 건설계획

- 총연장 306km로서 도로폭 24m로 건설
- 기존의 도로망과 같은 코스로 연결하게 됨

- 1단계로 나진-셋별과, 나진-두만강 구간을 건설하여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핫산과 연결

○ 토지 이용계획

- 나진은 섬유·의복을 중심으로 경공업 생산과 배후지(hinterland), 태평양을 연결하는 중계무역항으로 개발
- 선봉은 화학공업 및 전자공업 단지로 개발
- 웅상지역은 목재가공 및 전자재 산업의 중심기지로 개발
- 우암(서수라) 지역은 관광지대로 개발

○ 총 소요금액은 약 \$42억로 추산하고 있음.

③ 외국기업의 투자조건

○ 현재 외국인 단독기업법, 계약법, 소득세법, 합작법 등 관련 법안을 작성중이고 금년중 공포할 계획임.

○ 다른 나라의 경제특구 못지 않는 특혜를 고려중임.

- 예컨대 외국기업은 첫 이윤을 낸 해로부터 3년 이내 소득세 면제

○ 임금은 \$70~\$100로 예상

○ 외국인의 출입은 현지사증제도를 도입하여 대폭 간소화할 것임.

○ 토지임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만 가능하고 기간은 20~30년으로 하되 업종에 따라 다르고 협의에 의해 연장도 가능하도록 할 것임.

○ 경제특구지대의 관리체계는 2원화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에 각각 심의기구를 두되 투자규모가 큰 사업만 중앙에서 심의하고 그 밖의 것은 지방심의기구에 위임

나) 중국(Mrs. 王雨生 중국 API 부이사장)

학술 연구·교류의 강화와 두만강지역개발의 촉진(요지)

- 두만강 하류지역의 개발에 지대한 관심이 있고 이미 많은 연구사업을 진행시켜 왔음.
- 중국은 '92. 3월 국경도시인 훈춘을 개방지역으로 선포하는 한편, 1급 개방도시로 승격
- 제8차 5개년계획 기간(1991-1995)동안 동 지역에 10억원을 투입
 - 발전용량 140만kwh급 발전소 2개와 도문-훈춘간 철도 건설
 - 훈춘-장령자간 및 훈춘-사타자-셋별간의 2급도로 개설
 - 훈춘 탄광(년간 500만톤) 개발
 - 연길에 국제비행장 건설
 - 방천지역에 수출가공무역지대 설치
 - 토지판매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음.
- 동 지역의 개발에 많은 국제금융기관이 참여하여 UNDP의 지도하에 동 지역이 장래 홍콩과 같은 중계무역형 대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함.

다) 러시아(Mr. R. Aliyev와 Mr.A.Alekseev의 순차발표)

1) Mr. R. Aliyev의 발표

- 연해주(Primorsky) 당국은 2010년에 블라디보스톡을 년 5천만톤의 화물처리능력을 가진 항구로 개방하기 위해 대규모의 외자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블라디보스톡 자유경제지대」(Great Vladivostok Free Economic Zone)의 창설에 관한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음.

- 국내사정으로 아직 법령·제도의 정비 및 소요자본의 조달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블라디보스톡의 개방과 연해주의 개발전망에 관해 낙관하고 있음.

대블라디보스톡 자유경제지대(GVFEZ)개발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제1단계 (1991~1995)	자원지향적인 수출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블라디보스톡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확충할 것이나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없을 것이고 적은 예산으로 주로 비즈니스 서비스의 개발에 주력할 것임.
제2단계 (1996~2000)	지방 인프라의 대규모 개발을 통해 중급기술의 수입 대체형 산업을 육성하고, 시베리아 철도 주변에 산업시찰과 도시건설을 촉진
제3단계 (2001~2010)	인프라 및 기술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고도 기술집약적 산업과 수출지향형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고급서비스 분야도 병행 육성할 계획이며 시베리아철도 주변의 산업시설 및 거주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장

2) Mr. A. Alekseev의 발표

-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이 인프라 개발과 공업단지의 조성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나 환경보존, 자원개발, 휴양 및 관광시설의 건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임.
-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의 계획에 있어 각국의 다른 문화적 배경과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야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라) 한국(유장희 KIEP 원장)

두만강하구와 동북아 경제협력(요지)

- 북한의 「나진-선봉지구 개발구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UNDP가 주관하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과 어떻게 조화되고 연계 추진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총 소요자금이 얼마이고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명확히 되어져야 함.
- 「나진-선봉-청진」의 세 항구를 동시 개발할 것인지, 순차적으로 개발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하며, 어느 경우이든 세 항구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종합계획(master plan)이 작성·공포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단기-중기-장기계획 등 시기별·단계별로 종합계획을 나누고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두만강지역에 관계국의 소수 전문가가 모여 두만강지역의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가칭 「프로젝트 조정센터」(project coordinating center)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TRADP 사업의 3개 전략적 대안(strategic options)이나 개념(concepts)이 상호 배타적이거나 확정된 것이 아니며 계속 발전·변형되는 과정에 있음을 인지하고 실현가능한 개발모형을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

마) 일본(가나모리 히사오 일본경제연구센터 소장)

두만강하구의 개발과 일본(요지)

- 동북아경제협력 모델은 일본·한국의 자본과 기술, 중국·북한의 노동력을 결합시키는데 중점이 두어져야 하므로 소삼각지역(small delta)보다는 큰 경제권 형성이 가능한 대삼각지역(large delta)이어야 함.
- 중국은 15km에 달하는 두만강 준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경제성이 없으므로 방천항에 인접한 소련의 핫산-포시에트항과 북한의 3개 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두만강지역내의 자유경제무역지대 건설구상은 각국의 소득수준과 경제개발단계를 고려할 때 UNDP의 10-20년 계획은 너무 짧고 30~

5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계획이 필요함.

-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북한은 매력적인 투자조건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방대한 자금의 조달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공표해야 할 것임.
- 철도·도로·항만 등 인프라는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선진 자본기술의 도입이 중요하고 정부간의 협력과 병행하여 민간차원의 협력도 중요함.
- 개발대상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왕래를 자유롭게 보장하고 세제상의 혜택, 산업시설, 지역별 소득수준 등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가 공개되어야 할 것임.

바) UNDP(Mr. A. Holm 자문관)

두만강지역 개발(요지)

- 일본이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언급했으나, 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상황을 생각할 때 각국간의 이해조정이 끝나고 재원조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시작하여 10-12년내에 사업을 끝내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의 개념과 방식에 대해 각 관련국이 얼마나 빨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변수임.
- 북경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향후 6개월간의 작업계획과 FCG 구성에 합의하였으며 개발대상지역은 대삼각지역보다는 소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그러나 중국은 홍콩, 싱가포르에 대한 학술조사를 기초로 「여러 국가가 공동 개발·관리하는 소삼각지역」을 구상하고 있고
 - 북한은 외화의 도움으로 「나진-선봉」지역을 독자개발하되 주권이나 영토에 관한 한 양보의사가 없는 듯 하였음.
- 지역경제협력에 있어 복수통화의 존재는 환율변화나 조정을 통해 참가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으나, 한

개의 강세통화(strong currency)가 있는 것 또한 다국간의 무역결제를 원활히 하는데 매우 중요함.

- 중국은 러시아나 북한의 항구를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며 비자없이 여권만으로 입출국이 가능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다. 현지시찰 결과

- 나진·청진항이 기존시설의 30% 밖에 사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확장 계획만을 강조한 점이 있음.
- 나진항 등에는 기중기 선로가 녹이 슬어 있어 오랫동안 사용치 않은 점이 보이며, 특히 기중기에 새로 페인트를 칠한 부분이 많았음.
- 항구시설은 대체로 당분간 보수없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시설에 대한 보수가 안되어 대체로 낡아 있었음.
 - 군데군데 시멘트로 폐운 자욱이 많아 이번 시찰단을 의식하여 준비한 것이 눈에 띄었음.
- ρ 두만강하류의 강폭은 150m~200m의 정도로 보였고 두만강 친선교 부근의 수심은 1~2m 밖에 안되어 1,000t급 이상의 배는 운항할 수 없는 상태임.
 - 특히 강바닥이 모래여서 준설한다 하더라도 별효과가 없을 것이라 함.
 - 따라서 방천을 항구로 개발하여 동해로의 출해권을 획득하려는 중국의 의도는 기술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3일간의 나진·선봉 및 두만강 시찰 도중 모두 기차에서 숙박하게 한 것은 이 지역에 100여명이 넘는 인원을 투숙시킬 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

1. 추진경위

- 북한은 '91. 12. 28 나진·선봉 일부지역(621km²)을 국제화물 중계 및 수출가공기지로 개발한다는 전략하에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고 나진항, 선봉항 및 인접 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
 - '91. 7 UNDP 몽골회의에서 나진·선봉지역 「자유무역지구」 개발 계획 최초 발표
 - 또한 '93년에는 중국의 경신평원과 연결되는 원정리일대 125km²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추가 편입
- 동 지역은 UNDP 주관하에 추진중인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소위 「황금의 삼각지」 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북한은 UNDP의 TRADP 프로그램에 맞추어 21세기를 내다보는 종합적인 개발거점 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을 수립
- 이와 아울러 북한은 동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대국토건설 총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한 제반 법령을 제정하는 등 투자환경 정비를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
- '93. 3. 12 동 건설계획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식 비준을 받아, '9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건설착공을 위한 설계작성과 일부 도로·항만의 개발 착수
 - 교통·운수 및 통신을 비롯한 하부구조 건설을 최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자체적으로 단계별 인프라분야 건설에 착공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
- 동 계획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정무원 대외경제위원회 산하에 개발추진 창구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신설, 자유경제무역지대 관련 제반업무 담당 추진

2. 현황 및 개발전략

가. 현 황

- 위 치 : 북한 동북부 두만강 하류 및 동해안지역
- 면 적 : 746km²(기존 621km²에 125km² 추가)
- 인 구 : 약 13만명(대부분 도시주민)
- 지하자원 등 자연자원 풍부

나. 개발전략

- 기본목표
 - 동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동북아시아 및 세계 경제발전 추세에 맞추어 종합적으로 발전된 자유경제무역지대 창설
- 기 능
 - 국제화물 중계기지 역할
 - 가공수출 위주의 제조업기지 역할
 - 국제적인 관광기지 역할
- 개발단계

구 분	내 용
1단계 (1993~199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도로, 항만 등 기존 하부구조망의 현대화를 통해 국제화물 중계수송기지로서의 역할 제고 및 투자환경 조성 — 통합수송 네트워크 형성 — 나진·선봉·청진항의 연간 화물처리능력을 2,000만톤으로 확장 — 나진지구의 거점도시화

구 분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2단계 (1996~2000년)</p>	<p>○ 완전한 자유경제무역지대로서 동북아지역의 교류거점 역할 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의 국제중계화물 취급 - 가공수출 산업기지 건설 본격 추진 - 항구능력 증대(년간 5000만톤 처리) - 국제적 관광기지 개발
<p style="text-align: center;">3단계 (2001~2010년)</p>	<p>○ 21세기를 대비하는 종합적인 현대 국제교류 중심지로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인 산업구조 현대화 - 항구능력 배가(년간 1억톤 처리)

○ 주변국과의 협력

- 인접국과의 밀접한 협조하에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 사회간접시설의 건설·운영에 관한 협의·조정 강화

3. 부문별 개발계획

가. 사회간접시설 부문

항 만

구 분	나진항	청진항	선봉항
현재규모	300만톤	800만톤	2~300만톤
1단계	1,000만톤	1,000만톤	400만톤
2단계	3,000만톤	-	1,000만톤
3단계	7,000만톤	2,000만톤	-
성 격	컨테이너 전문항	벌크화물 전문항	원유 전문항

* 3단계 기간중 웅상항도 확장 예정이며 화물량의 증대에 따라 장기적으로 선봉 지역에 연간 5,000만톤 규모의 신규 항만 건설계획

철 도

구 분	내 용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령-학송간(168km) 전철화 · 조산리-구룡평간(13.4km) 광궤 신설 · 두만강-함산간 복선철교 건설 등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진-구룡평간(33km) 광궤 신설 · 회령-학송간 직선화 등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진-훈음간 복선 · 나진-회령간 직선화 등

* 연간 1억톤의 처리화물중 철도로 5,000만톤 수송처리 가능

도 로

구 분	내 용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진-회령(80km), 청진-나진(92km), 나진-셋별(112km) 선봉-두만강(9km)구간 도로 확·포장(노폭 9-12m)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진-회령(82km), 나진-셋별(73km), 나진-두만강(45km), 은덕-원정(7km)구간 고속도로 신설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진-나진(67km), 셋별-남양(43km)구간 고속도로 신설 • 북부지구 순환망 도로(셋별-남양-회령, 127km) 확장

통신·공항

구 분	통 신	공 항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진 통신센터 건설 • 나진-훈춘간 수자식 마이크로파통신 개설 • 나진-블라디보스톡간 기존 마이크로파통신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봉비행장 신설 -여객수송 800만명/년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통신지구국 및 통신분국 신설 * ISDN 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봉비행장 확장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진-훈춘, 포시에트간 광섬유케이블 건설 	

전력·용수

구 분	전 력	용 수
1 단계	· 선봉 화력발전소 확장 (40만kwh)	· 무창저수지 건설
2 단계	· 선봉 화력발전소 확장 · 나진 화력발전소 신설 (30만kwh)	· 녹야저수지 건설
3 단계		· 금송저수지 건설 · 락생저수지 건설

나. 공업부문

○ 투자장려 분야

- 첨단기술 및 현대적 과학기술에 기초한 생산부문
- 국제시장에서 수요와 경쟁력이 높은 제품의 생산부문
- 현존 하부구조의 재건, 현대화 및 신설부문
- 자원개발과 관련된 부문
- 현존 공장, 기업소들의 설비와 기술을 재건하는 대상
- 생산과 사회에 기여되는 제3산업 관련부문

○ 지역별 공업단지 개발계획

지역	규모	배치업종	단계별 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신흥공업기지	200정보	종합적 경공업	개발	확장	
나진동명표준공업기지	20정보	신발,편직,일용품	개발		
창평공업기지	60정보	선박수리, 기계	개발		
청계공업기지	20정보	피복	개발		
백학공업기지	200정보	전자, 자동화업종	개발	확장	
웅상공업기지	250정보	목재가공,보세창고		개발	확장
관곡공업기지	370정보	화학, 건재		개발	확장
후창공업기지	200정보	식료, 방직			개발
흥의공업기지	180정보	금속, 기계			개발
계	1,500정보				

다. 관광·서비스 부문

구분	관광 부문	서비스 부문
1단계 (1993~199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진호텔 건설 · 안주(대초도)-신해(피파도) 관광지 개발 · 우암-굴포(변포) 관광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진-선봉 개발촉진센터 건설
2단계 (1996~200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진국제호텔 건설 · 선봉국제호텔 건설 · 안주-신해 관광지확장 · 우암-굴포 관광지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센터 건설
3단계 (2001~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웅상국제호텔 건설 · 두만강호텔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문별 센터 건설

* 관광의 국제화 방안으로 중·러 접경지역 국제관광코스 개발

라. 도시정비 부문

구 분	나진지역	선봉지역	웅상지역	우암(서수라)	홍의·사회
배치구분	산업, 상업, 서비스, 거주	산업, 거주	산업, 거주	관광, 보양의 정비	식료 공급, 서비스
정비사업의 개요	경공업(피복, 식품, 일용품, 제화등) 가공기지 및 기계전자공업기지의 정비 무역, 통신센터, 호텔, 외국인용 주택 등 상업 서비스 시설	석유정제, 전자공업, 경공업기지 및 종업원 거주 시설의 정비	건재, 목재, 가공, 포장재료의 생산 및 종업원 거주 시설의 정비	자연관광자원을 이용한 각종 관광, 보양 시설의 정비	야채, 유제품, 육류 등 식료품의 생산, 후방공급 서비스 기지의 정비

* 도시거주지역은 우선 나진시 안주동에 건설하고, 선봉군 백학리 등으로 확대

* 향후 신도시를 건설, 인구수를 1단계 30만명, 3단계 100만명으로 증가시킬 계획

4. 투자 우대조치

- 지대내에 직접 출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무사증(NO VISA) 제도 실시
- 북한내 판매목적 상품을 제외한 가공수출, 단순 통과화물 등 모든 상품에 대해 무관세 적용
- 합영·합작방식 이외의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설립·운영 가능
- 일부 생필품을 제외한 상품 생산·판매 가격의 수요공급에 의한 결정

- 경제무역 활동을 위한 외국기업의 상주대표사무소 설치 가능
- 기업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상 특혜
-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의 자유 반출입 및 거래 허용
- 합영은행 이외의 외국은행 또는 외국은행 지점 설립 가능

2. 블라디보스톡 동북아경제포럼

가. 회의 개요

- 기 간 : '92. 8. 25 ~ 8. 27
- 장 소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프리모스키 정부청사 회의실)
- 주요의제
 - 자유무역지대 설치
 - 두만강지역개발
 - 각지역 Infra부문 건설 및 사회주의권 국가의 경제발전계획 등
- 주 최(공동)
 - 러시아 사회과학원 블라디보스톡 해양연구소
 - 하와이 아·태연구소(HAPI)
 - * 후원기관
 - 한국 산업연구원(KIET)
 - 일본 사사카와 평화재단(SPE)
- 참가범위 : 한국, 북한, 러시아, 중국, 몽골, 미국, 일본 등 7개국 120여명

남·북한 참석자 명단

한 국 (12명)	북 한 (4명)
이봉서(KIET 고문, 전상공장관)	김광호(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박성상(API 고문, 전 KIET 원장)	최송국(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서기장)
황인정(KIET 원장)	전기갑(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및 남북 협조연구소 상급연구원)
최상철(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조명숙(대외경제연구소 연구원)
홍택기(KIET 중국연구실장)	
이수성(통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최성호(상공자원부 사무관)	
최영호(경제기획원 사무관)	
김익수(KIEP 책임연구원)	
전일수(해운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승곤(력키금성 부장)	
이명재(KIET 초청연구위원)	

나. 회의 주요내용

- 동북아지역의 협력가능성 또는 필요성이 구체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정치·경제·사회 등 전반적인 지역협력 문제를 다룸.
- 아울러 개방·개혁을 추진하면서 서방의 시장경제 또는 상품경제원리나 경영원리를 도입하고 있는 각국은 자국의 주요 경제개발에 관련된 문제들을 소개함.
- 두만강유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자유무역지대 건설과 관련 각국은 인접 국가간 공동노력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자국내의 자유무역지대 설치와 관련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음. 특히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자국에 유리한 입장을 강조
- 먼저 중국은 동북 3성 지역경제의 동해로의 접근을 인식, 소삼각 지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에 중국의 경신, 러시아의 핫산, 북한의 선봉을 잇는 삼각지역을 두만강 국제도시와 배후도시로 개발하는 건설계획을 제의했으며

- 또한 접경 3국은 각자의 영토에 대해 관할권을 보유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며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관세, 무역, 통신 등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제안하는 등 홍콩식 개발을 주장하던 종래의 입장에서 후퇴하여 북한의 독자개발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절충안을 제시
- 북한은 91년 12월 지정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와 청진 자유무역항 활용의 유리성을 강조하는 등 기본적으로 92년 5월 평양국제회의에서 제출된 것과 차이가 없었음.
 - 북한은 발표(최송국)를 통하여 두만강 하류지역 개발과 관련, 교통망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93년부터 나진·선봉지역 일대의 개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육로 및 항만을 개발할 것임을 강조
- 러시아는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구상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표시하고 중국측의 두만강 국제도시 구상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블라디보스톡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만 강조
- 몽골은 내륙국가로서 두만강지역 공동개발에 적극성을 보였는 바 두만강지역으로부터 몽골을 거쳐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함으로써 현재의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거리를 단축하는 안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
- 한편 블라디보스톡 회의에서는 부문별 협력 안건으로 통신, 에너지, 교통, 어로, 환경문제, 노동시장 등에 대한 협력의 구상을 제시하여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그 외에도 동해권, 황해권 협력의 구상과 다자간 협력문제나 지역금융 협력문제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어 협력의 필요성이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실제 여러가지 어려움이 내재해 있음도 인식함.
 - KIET 황인정 원장은 황해권 개발구상 관련 논문발표를 통해 「동북아지역 국가간 상설 협의위원회 및 하부 소위원회 설립」을 제안하였음.
- 동북아지역 경제협력회의 지속 개최 결의
 - 동 포럼 완료와 동시에 각국 대표들은 '93년에도 계속하여 회의를 개최할 것에 합의함(성명문안 작성).

3. 용평 동북아경제포럼

가. 회의 개요

- 기 간 : '93. 9. 26 ~ 28
- 장 소 : 한국 용평
- 주요의제
 - 동북아 경제의 미래전망
 - 동북아지역 협력방안
 - 두만강지역개발
 - 동북아지역 협력을 위한 기구 설립
- 주 최(공동)
 - 하와이 아·태연구소(HAPI)
 - 한국 아·태연구소(API)
- 참가범위 :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미국 등 6개국 대표와 UNDP, ADB 등 국제기구 관계자 등 72명

구 분	참 석 자
한 국	한국 아·태연구소 고문 박성상 등 29명
중 국	길림성 과학기술위원회 주임 S. DING 등 7명
일 본	사카타 상공회의소 수석상담역 E. FUTAGI 등 22명
몽 골	외무부 아시아·아프리카개발 상담역 O. NYAMDAVAA 등 2명
러 시 아	과학원 극동경제연구소 소장 P. A. MINAKIR 등 3명
미 국	하와이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B. O. CAMPBELL 등 6명
UNDP	TRADP 프로그램 매니저 J. WHALEN 등 2명
ADB	ADB 경제전문가 이정수

나. 회의 주요내용

- 동 회의는 동북아 경제의 미래전망, 동북아지역 협력방안, 두만강지역 개발, 동북아지역 협력을 위한 기구설립 문제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방식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동북아지역 협력방안과 기구설립 문제와 관련한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방안이 중점 논의되었음.

동북아지역 협력방안

- 동북아지역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개발자금, 운송 및 통신, 노동력의 공동활용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나 특히 「동북아 개발은행 (NEADB : 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의 설립을 골자로한 개발자금 협력방안에 초점이 모아짐.

* NEADB 설립구상은 당초 남덕우(전부총리)와 박성상(전한은총재)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이 제안을 더욱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추진

- 미 하와이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Burnham O. CAMPBELL은 논문발표(「동북아의 자금협력 :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개관」)를 통해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의 필요성, 기능, 재원조달 등에 관해 개괄적으로 설명함.

- NEADB 설립 필요성

- 동북아지역의 사회간접시설 건설은 각국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다국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북아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특화된 전문은행이 필요함.

* 현재 WORLD BANK나 ADB 등의 자금은 각국이 각 은행의 자금대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으로 개별적으로 자금대출을 받기는 힘든 상황

- NEADB의 기능

- 장기 개발자금 공급 및 일반 투자사업에 대한 지급보증
- 무역자금 및 기업의 운용자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 정보자료의 제공 및 지역내 조사활동 등

- 주요 재원조달 예상국의 입장

- 일본 : 러시아와의 불편한 정치적 관계 해소 및 중국 동북부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이익 확보 가능
 - 한국 : 북한 개방화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와 중국진출에 있어 장기적인 기틀 마련
 - 대만 :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도움
 - 미국 : 북한과의 직접투자가 불가능함으로 NEADB를 통한 투자방안 가능
 - EC : 지정학적 이유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 가능
- 한편, 일본 국제대 Hiroshi KAKAZU 교수는 그의 논문 「동북아개발은행의 조직구조와 자금조달 원천」 발표를 통해 NEADB의 구성, 조직, 의사결정 구조, 경영진 구성, 자금조달 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함.
- 회원국의 구성: 중국, 북한, 몽골, 한국, 러시아, 일본, 대만 위주로 구성
 - 동북아지역 이외 국가의 참여도 허용하되 ADB의 경우처럼 비동북아 국가의 주식지분은 40%미만으로 제한
 - 의사결정 권한 : 기본적으로 자금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배분
 - 일본, 한국, 중국, 대만 등 자금 부담능력이 있는 나라는 각각 1명의 이사를 배분하고, 북한, 러시아, 몽골 등 자금 부담 능력이 없는 나라는 3국 합동으로 1명의 이사를 배분
 - 기타 1~2명의 이사는 비동북아지역 투자국에 배분
 - 경영진 구성
 - 각국의 능력, 지역적 위치, 의결권 확보정도, 주된 사무소 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별로 배분하되 동북아지역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가 필요할 것임.
 - 재 원
 - 재원은 보통재원(OCR ; Ordinary Capital Resources)과 특별재원(SFR ; Special Fund Resources)으로 구분

- 총자본금 규모는 약 15억-20억달러 수준으로 하며, 자금조달 방법은 회원국 국가별 수입의 0.5% 정도 책정(ADB의 경우 준용)
- 자본금의 약 1/2(8억-10억달러)은 5년 이내에 불입하도록 하고 이중 2억-3억달러는 매년 대출이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함.

— 대 출

- 기본적으로 NEADB의 설립 목적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임.
(만일 동북아 각국의 산업구조 재조정 및 차별화가 목적이라면 개별사업에 대한 대출보다는 특정지역의 구조조정 자금 등 지역적 베이스의 대출이 많을 것임)
- 동북아지역은 사회간접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건설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체 대출의 약 80%이상이 사업별 대출(Project loans)일 것으로 전망(1970년대 ADB의 경우와 유사)

— 주된 사무소의 위치

- 정치적 안정, 장기적 운영보장, 국제적 금융중심지, 인력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서울, 동경, 상해 등이 유력한 후보지이나 니이갓타도 가능할 것임.

지방정부간의 경제협력

- 동북아지역의 지방정부간 경제협력 방안으로 산업연구원(KIET)의 김화섭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지역경제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를 통해 동북아 국가의 지방정부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 중앙정부간 협력에는 정치·경제 체제의 상이, 협상력 미흡, GATT 체제에 따른 어려움 등으로 한계가 있으며,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구상 역시 경제적인 평등 관계보다는 수직적, 종속적 관계를 가정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임.
 - 각국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은 중앙정부간 경제협력보다 비정치적이므로 훨씬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중앙정부간 경제협력의 단점도 보완 가능

- 각국 지방정부 상호간의 문화·교육·정보의 교환 등을 통하여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역할이 필요함.
- 문화교류 촉진을 위해 지방정부간에 가칭 「문화교류연합」(Association for Culture Exchange)의 설립을 권고
- 지방정부 차원의 학교 등을 통한 상호 학위 수여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육교류 실시

다. 회의 결과

- 9. 26~28까지 용평에서 열린 이번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을 위한 포럼 참석자들은 동북아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경제개발 자금의 효과적인 협력 필요성 및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에 관한 각국 정부차원의 타당성조사 연구의 필요성을 공동 인식하였으며
- UNDP, 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등 국제기구가 동은행 설립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4. 기타 민간차원의 국제학술회의

- 두만강지역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열린 민간차원의 국제학술회의는 중앙정부 보다는 환동해지역과 인접한 지방정부, 시, 단체가 후원하는 형태로 활발하게 열리고 있는 바, 그중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음.
 - '91. 8. 12-14, 중국 연길에서 연변대학 주최로 열린 「제2차 조선학 국제학술토론회」
 - '91. 8. 27-29, 중국 심양에서 중국 종합개발연구원 및 요령성 주최로 개최된 「동북아 국제경제협력 세미나」
 - '91. 9. 2-7, 중국 천진에서 중국 발해만지역연구소와 중국 아·태연구소(API) 공동주최로 열린 「동북아 경제협조와 발전에 관한 국제 세미나」

- '91. 11. 22, 일본 오오사카에서 아사히신문사 주최로 열린 「환일본 해 경제권 국제심포지움」
- '92. 6. 12, 서울에서 한국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남북한 경제 협력의 당면과제와 두만강지역개발계획」
- '92. 7. 10-12, 중국 연길에서 중국 연변대학교 동북아경제연구소와 한국 지역사회개발학회(회장:김유혁 단국대 교수) 공동주최로 열린 「동북아지역개발 비교연구 국제학술회의」
- '92. 7. 14-18, 중국 장춘에서 열린 「도문강구역 개발과 동북아 경제협작 국제학술토론회」
- '92. 11. 13-14, 홍콩에서 홍콩 아시아·태평양 연구소(API) 주최로 열린 「제3차 동북아 원탁회의」
- '94. 4. 22-23, 포항에서 포항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21세기 환동해 경제발전 전망과 동해안 교통체계 개발방향」
- '94. 8. 4-5, 서울에서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린 「두만강유역 개발 계획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정치경제학」

TRADP와 韓半島 統一

◎ 豆滿江地域開發計劃과 韓半島 統一問題

— 金泰弘(동국대무역학과 교수) —

◎ 豆滿江地域開發事業 推進을 위한 몇가지 提言

— 朴聖相(동아시아경제연구원장, 전 한국은행 총재) —

여기에 수록된 2편의 논문은 두만강지역개발이 한반도 통일에 미칠 영향과 통일 이후 우리 민족에게 주는 의의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豆滿江地域開發計劃과 韓半島 統一問題

金泰弘(東國大 貿易學科 教授)

目 次

I. 序 論

II. 北韓의 戰略的 對應과 態度變化

III. 北韓의 政治·經濟的 波及影響

IV. 統一以後 韓半島와 豆滿江地域開發과의 關係

V. 우리의 統一政策的 對應方案

VI. 結 論

I. 序 論

北韓이 羅津·先鋒 自由經濟貿易地帶開發計劃을 추진해 온 배경과 國際聯合開發計劃(이하 UNDP라 稱함)의 豆滿江地域開發計劃에 대해 보여온 태도의 변화과정을 南北韓關係 및 統一問題와 관련하여 매우 주의깊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간 北韓은 두만강지역개발과 관련하여 多者間 또는 雙務的 協力關係를 모색하기 위해 나름대로 전략적 변화과정을 밟아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가 南北韓 關係改善과 統一問題에 미칠 파급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北韓의 羅津·先鋒地域開發計劃은 대체적인 계획의 윤곽과 법률제도적인 장치만이 제시된 상태이다. UNDP의 豆滿江地域開發計劃도 關係 當事國間의 미묘한 입장차이로 정부간의 최종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비록 異見이 해소되어 최종합의에 도달한다 하여도 長期的 開發事業의 성격을 지닌 多者間 協力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豆滿江接境國의 雙務的 開發事業은 우리가 접경당사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참여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는 北韓이 豆滿江地域開發에 대해서는 그간의 상황변화에 따라 비교적 기민한 대응전략과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왔을 뿐아니라 북한의 나진·선봉지구 개발에 韓國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두만강지역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各國이 미묘한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장애요인을 극복하여 國際的 協力關係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왔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은 여건과 분위기를 적절히 활용해 나간다면 南北韓 關係改善 및 經濟 協力を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

실제로 南北韓間의 대립과 군사적 긴장관계의 지속은 두만강지역개발은 물론 東北亞地域協力的 결정적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같은 장애요인이 어느정도 先決되어야만 두만강지역개발도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두만강지역개발의 多者間 또는 雙務的 協力關係의 진전은 南北韓關係 및 韓半島의 정치적·군사적 불안요인을 개선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아가 이는 장기적으로 統一實現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같은 전제하에 本 論文에서는 두만강지역개발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대응

과 태도변화를 분석해 보고 이것이 장차 북한의 정치·경제에 미칠 파급영향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또한 두만강지역개발이 통일이후의 韓半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전망해 보면서 우리의 統一政策的 대응方向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北韓의 戰略的 對應과 態度變化

對內外的으로 극히 폐쇄적이고 경직된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北韓이 두만강 지역개발문제와 관련해서는 狀況變化에 적응하려는 비교적 기민한 변화의 자세를 보여 왔다.

북한은 1991년 7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UNDP회의에서 처음으로 羅津·先鋒地區 自由經濟貿易地帶開發構想을 발표하였다. 곧이어 8월 中國의 長春에서 개최된 국제세미나에서 북한은 나진·선봉지구개발의 경제적 타당성을 나름대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당시 국내외의 개발자금을 유치하여 揮春特區를 개발하고 東海로 진출하기 위한 자체 항구를 개발하겠다는 中國의 구상보다는 북한의 기존시설을 개발하여 이용하는 편이 보다 경제적이 라는 북한 나름대로의 代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은 두만강하류 동해안지역에 中國의 경제특구와 유사한 자유경제무역지대를 건설하고 羅津과 淸津을 국제운송의 중계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희망적인 기대를 표시한 것이다.¹⁾

그후 北韓은 UNDP의 다자간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南北韓關係와 對外經濟關係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련의 태도변화와 구체적인 制度改善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核問題에 가려 그 의미가 퇴색된 점은 없지 않다. 그러나 북한은 UNDP회의에서 韓國과 자리를 함께 했을 뿐아니라 나진·선봉지역의 개발에 시종 한국의 참여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특히 서울과 平壤에서 개최된 UNDP회의에는 비록 국제회의라는 명분을 앞세우기는 하였으나

1) 리유호, 동북아시아국가들의 경제적 협조와 우리나라 선봉지구경제무역지대개발에 대하여, 1991.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황금의 삼각주 : 나진-선봉, 1993.

남북한 政府官吏의 참석을 수용해 왔다.²⁾

또한 북한은 당초 완강히 거부하던 土地賃借와 國際管理문제에 대해 1992년 10월 北京에서 개최된 제2차 UNDP의 計劃管理委員會(PMC)회의를 계기로 긍정적인 태도로 급선회하였다. 그 결과 1993년 5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3차 PMC회의에서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制度와 關係規定에 관한 協定案을 마련하는데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이다.³⁾

한편 북한은 나진·선봉지구개발 및 UNDP의 豆滿江地域開發計劃(TRADP) 등에 대비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關聯法制度의 제정과 推進機構의 설립을 서둘렀던 것이다. 북한은 1992년 10월 外國人投資法 合作法 外國人企業法을 제정한 데 이어 93년 1월 이후에는 自由經濟貿易地帶法 外貨管理法 土地賃貸法 등 모두 6개의 關係法을 제정 내지 개정하였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對自由經濟貿易地帶投資推進委員會를 발족시켜 나름대로 투자유치와 대외홍보에 열을 올리는 한편 나진·선봉지구를 정무원직할시로 승격시켰다.

최근 북한이 제정한 關係法令의 내용만 보면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優待政策은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지난 93년 7월에는 북한의 투자유치실무대표단이 대만, 싱가포르, 중국등을 방문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냉담한 반응에 몹시 낙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하에서 北韓과 中國의 吉林省간에는 비교적 활발한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중국간에는 93년 3월 두만강개발을 위한 共同協力에 합의하였으며 93년 8월 중국은 길림성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하여 북한의 함경북도와 청진·나진의 공동개발과 이용에 관한 合意書를 작성하였다. 그 후 93년 10월에는 길림성의 실무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개발방안에 합의하고 있다.

이 합의에 의하면 중국은 북한의 나진 및 청진지역과 연결되는 철도 및 도로, 토지, 항구시설을 共同開發 또는 賃貸하여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중국 琿春과 북한 誨戎里를 연결하는 철도 및 북한의 셋별-나진간 도로의 공동건설문제, 나진항의 부두개선과 확장문제, 琿春-羅津間 장거리국제통

2) 1991년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平壤에서 개최된 豆滿江地域開發에 관한 關係國 調整官會議에 韓國代表가 참가하였으며 1992년 2월 27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豆滿江開發計劃管理委員會 회의에 북한대표가 참가한 이후 1993년 5월의 평양회의와 10월의 서울회의에도 남북한대표가 참석하였다.

3) 5개 회원국은 최고정책결정기구로 政府間 調整協議委員會를 설치하고 定款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될 豆滿江地域開發公司를 설치하며 중국, 북한, 러시아 접경3국은 土地賃貸와 主權關聯事項을 다룰 豆滿江地域開發調整委員會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신망건설문제등의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와 사업계획을 공동추진키로 합의하고 있다.

한때 북한은 중국의 豆滿江出海權回復과 琿春開發에 대해 경쟁적 또는 소극적인 비협조태도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북한이 93년에 접어들면서 중국을 끌어들이어 共同開發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급선회한 배경에 대해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이 러시아와 合作하여 훈춘-자루비노간의 철도와 항구를 공동개발하고 있는데 대한 북한의 對應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東海進出을 가급적 억제하고 북한의 항구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인 지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장차 UNDP의 豆滿江開發計劃등을 고려하여 중국과의 쌍무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실제로 중국은 92년 2월 훈춘을 對外開放地域으로 지정하고 豆滿江下流琿春地區開發計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94년 완공을 목표로 훈춘-자루비노간의 철도항구건설을 공동추진하고 있어 북한으로서는 더이상 중국과의 협력 및 공동개발을 지연시키기 어려운 입장이 되고 말았다.

Ⅲ. 北韓의 政治·經濟的 波及影響

앞으로 북한이 多者間 方式이든 雙務的 方式이든 간에 나진·선봉지역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한은 제한된 지역의 開放과 몇가지 優先政策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장애요인들이 개발사업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根本體制와 政治權力의 특성에 대한 外部世界의 뿌리깊은 불신과 불안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이 제한적으로나마 特定地域을 개방하기로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북한이 경제적 현실적 이해관계를 중시한 선택이다. 그러나 북한의 폐쇄적인 政治體制와 독선적인 政治權力의 속성은 이같은 북한의 선택과 상충되는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앞으로도 제한된 지역에서나마 開放이란 선택을 지속해 나가려면 核問題의 해결을 비롯한 북한에 대한 외부세계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만 할 궁극적인 책임 또한 北韓自身에게 있다는

점을 받아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현재 북한의 나진·선봉지역개발계획은 적어도 법률제도적으로는 제한된 지역에서나마 開放과 改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제정된 법률과 계획에 의하면 적어도 이 지역에서는 외국인들의 無비자 入國이 가능하다. 또한 이 지역에 철도 도로 항만등을 건설하고 공업단지및 관광단지등을 조성하기 위해 外國人 投資를 대대적으로 유치할 구상이다. 현재 이 지역의 人口는 13만명에 불과하지만 일단 30만명규모의 都市를 개발하고 2천년까지는 1백만명 수준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북한이 이같은 구상과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진출한 외국인들의 다른 地域出入을 철저히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아니라 經濟開發의 논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동시에 아무리 통제적인 북한정권이라도 北韓住民들의 이 지역 왕래를 전적으로 차단하고 통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결국 사람들의 잦은 往來와 情報의 전파는 변화를 유발하게 마련이다.⁴⁾

앞으로 북한이 나진·선봉지역의 개발을 근본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의 對外的인 開放과 제한된 부문에서의 改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마치 중국이 70년대말 改革·開放의 초기단계에서 갑작스런 外部衝擊을 적절히 흡수하기 위해 북경에서 멀리 떨어진 남부해안의 심천등 4개도시를 제한적으로 개방했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두만강유역의 나진·선봉을 우선 개발하고자 하는 것도 外部衝擊의 완충과 흡수를 위한 制限的 開放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일련의 關係法規制定 및 改定도 일종의 초보적인 개혁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의 경우도 남부해안의 4개 經濟特區에 대한 개방의 충격을 어느정도 흡수하고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자신감을 갖고 1984년에는 14개 沿海都市와 海南島를 추가로 개방했다.⁵⁾ 물론 중국은 그당시 非開放地域의 농업 부문과 실험적인 공업부문에서 개혁을 병행추진했던 것이 북한과 다르다. 아마도 北韓의 경우도 羅津·先鋒의 개방충격을 어느정도 흡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다면 향후 2년 내지 3년을 전후하여 원산, 신의주, 해주등지를 추가로 개방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한 北韓이 자신감을 회복한다면 對內的으로도 農業部門을 중심으로 한 제

4) 金成勳, 金泰弘, 沈義燮, 동북아경제권-21세기 국가경영전략, 비봉출판사, 1992, pp. 334-336.

5) 金泰弘, 中華人民共和國의 經濟改革과 産業成長, 韓國經濟新聞社, 1987, p. 29

한적인 개혁을 시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즉 集團農場의 기본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家族單位로 일정한 농토와 생산책임량을 할당하고 家口別 목표를 초과한 생산량에 대해서는 自由處分할 수 있는 재량권을 허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현재와 같이 심각한 식량난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부분적으로나마 中國의 農業改革方式을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豆滿江地域開發, 특히 나진·선봉지구개발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를 가늠할 試金石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마도 그 향방은 앞으로 2년내지 3년간의 성과와 자체평가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Ⅳ. 統一以後 韓半島와 豆滿江地域開發과의 關係

統一以後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中國, 日本, 러시아, 美國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중간에 위치하게 된다. 이미 世界經濟大國로 성장한 일본, 세계최대의 人口와 經濟潛在力을 지닌 중국, 세계최대의 國土面積과 天然資源을 보유한 러시아, 태평양국가로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지속하려는 미국이 統一以後의 韓半島에서도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競爭과 協力關係를 모색해 나갈 전망이다. 특히 이들 4個國의 이해관계가 가장 구체적으로 부딪칠 가능성이 큰 지점이 바로 豆滿江地域으로 볼 수 있다.

두만강을 경계로 인접해 있는 韓國, 中國, 러시아 3국은 國境問題를 둘러싼 미묘한 歷史的 背景을 지니고 있다. 중국 사람들은 北京條約을 불평등조약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는 間島協約을 인정하기 어려운 입장이다.⁶⁾ 그러나 통일이후의 국제현실은 어느 나라도 國境問題의 재론을 허용하는 상황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 지역에서의 經濟的 優位와 影響力을 확보하기 위한 競爭的 關係로 발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

이미 중국은 琿春開發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자루비노와 羅津등의 공동개발을 통한 東海進出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장차는 坊川에 자체항구

6) 梁泰鐵, 韓國의 國境研究, 同和出版公司, 1987.

金得槐, 白頭山과 北方疆界, 思想研, 1987.

를 개발할 구상이다. 한편 일본은 北東亞細亞 經濟委員會등 민간경제계를 중심으로 중국의 훈춘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진출에도 先頭走者가 되겠다는 의도를 지니고 있으며 러시아의 沿海州 지역에 대한 진출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⁷⁾ 러시아는 국내정치불안으로 연해주개발에도 力不足인 상태지만 일단 안정이 회복되면 두만강지역을 통한 전통적인 南下政策을 포기할 나라가 아니다.

이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통일이후 두만강지역에서의 國家的 位相과 競爭力을 확고히 하고 이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 지역에 대한 戰略的 接近이 필요하다. 우선 우리는 UNDP의 多者間 協力方式을 성사시킴으로서 이 지역에서 특정국가가 패권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국제적 안정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多者間 協力方式에 의한 공동개발은 관계국간의 이해관계를 자연스럽게 조정함으로서 이 지역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두만강지역의 延邊과 沿海州는 비록 남의 나라 영토가 되었지만 우리의 오랜 역사적 연고를 지닌 지역인데다 다수의 우리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經濟特區에 진출하는 우리의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나진, 선봉지역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며 통일이후에는 이들 지역이 韓半島經濟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豆滿江地域의 항구와 철도등 사회간접자본의 개발은 한국이 중국의 東北地方을 통해 시베리아와 멀리 유럽으로 뻗어가는 複合運送루트가 된다. 이는 중국의 동북지방과 몽골이 동해와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첩경의 出口가 열리는 셈이지만 우리에게도 이 지역의 항구와 철도등을 통해 광활한 北方地域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入口가 열리는 셈이다. 물론 통일 이후에는 막혔던 남북간의 內陸鐵道와 道路등이 돌림으로서 막대한 물동량을 내륙을 통해 수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륙운송수단은 東北亞地域의 力動的인 成長趨勢로 보아 상당한 過負荷가 예상되며 한반도의 허리에서 인구의 최대밀집지역인 京仁地方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두만강지역의 항구들과 철도 및 도로등의 개발은 釜山港과 光陽港등 한국의 세계적 규모의 항구들과 海運으로 연결됨으로서 내륙교통의 부담을 줄여주고 부산항과 광양항이 동북아의 컨테이너 중심항구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 外務部, 두만강지역개발계획, 1993, pp. 13-26.

V. 우리의 統一政策的 對應方案

1) UNDP 開發計劃의 持續的 推進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東北亞地域國家間的 다자간 경제협력의 시금석이 될 것이며 南北韓關係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란 점을 고려하여 장단기적 접근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TRADP의 協定案과 豆滿江開發公司의 출자금부담문제등에 대한 회원국간의 최종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接境當事國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입장이다. 그러나 韓國은 北韓과 같은 민족이며 통일된 한국은 바로 하나의 當事國이 된다는 시각에서 가급적 북한과 묵시적 共同補助를 취하면서 관계국 정부간의 협정안이 최종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바람직스럽다.

현재 會員國가운데 북한, 러시아, 몽골의 경우는 개발자금을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없으며 중국은 상대적으로 과중한 貸金負擔을 떠 안게 될 가능성이 큰데다 다자간의 불필요한 간섭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非會員國인데다 다자간개발방식보다는 豆滿江接境國과의 쌍무적 협력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미묘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고 UNDP開發計劃이 성사되도록 유도하는데 한국이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다. 물론 UNDP개발계획은 長期的 開發事業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한 자금부담을 질 이유는 없다. 그러나 北韓의 開放과 改革, 南北關係改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자간 협력관계의 틀과 분위기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의한 것이다. 그리고 다자간 경제협력방식에 의한 공동개발은 統一韓國의 부담경감과 이 지역의 안정과 성장의 보장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2) 中國·北韓間 鐵道港口建設事業에의 參與模索

현재 두만강접경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中國과 러시아, 中國과 北韓間에 추진되고 있는 鐵道 및 港口建設事業에 제3국과의 합작방식에 의한 참여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북한의 직접적인 협력방식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면 最善의 方法일 수 있으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중국과의 合作方式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의 吉林省의 東北亞 鐵港集團公司가 한국기업과의 합작으로 琿春-자루비노, 王軍春-羅津간의 철도와 항구건설사업에 공동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⁸⁾ 이 방법은 북한으로 하여금 두만강개발에는 한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할 수 있으며 만일의 投資危險負擔에 대한 중국과의 分擔이란 유리한 점이 있다. 또한 통일이후 중국과의 사이에 예상되는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정할 수 있으며 통일 이전에는 북한의 港口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對北韓經濟進出的 背後據點化戰略

우리기업의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直接投資가 실현되기 전이라도 우리는 중국의 연변이나 러시아의 연해주를 통한 間接進出方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과거 臺灣이 본토에 대한 직접투자는 엄격히 규제하면서도 홍콩등의 現地法人을 통한 간접진출로 성과를 거둔 事例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이 중국 길림성 및 러시아 연해주와의 合作投資 및 貿易關係가 증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延邊의 훈춘특구, 연길, 도문, 용정,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 나호트카, 자루비노등지에 진출한 韓國企業이 현지 법인의 형태로 북한에 진출하는 것은 가능한 방법이다. 그리고 연변과 연해주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북한에 再投資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南北經濟協力基金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연변의 洲都인 연길에 정부와 민간의 협력하에 한국의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4) 北韓의 羅津·先鋒地域開發計劃 積極支援

우리는 北韓의 羅津·先鋒地域開發計劃을 간접진출방식이든 직접진출의 방식이든 가급적 북한에 충격과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나진·선봉지역개발계획의 성패가 장차 북한의 보다 적극적인 開放과 改革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의 직접진출방식은 물론 UNDP를 통한 다자간 방법과 中國등을 통한 간접진출방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北韓이 이 지역개발의 초기단계에서 격고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서 南北韓間에 직접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인식시켜 주고 남

8) 劉柏松, 「中·러 通商口鐵道 琿春西驛長嶺子 區間工程可能性報告」, 한국동북아경제연구회 東北亞經濟와 中國琿春·러시아 자루비노 開發投資세미나 資料集, 1993. 6. pp. 23~45.

북관계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 改革과 開放을 안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통일실현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현재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북한의 核開發과 한국의 核·經協 연계정책에 의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앞으로 핵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人權問題라든지 정치, 군사적 문제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남북한경협은 언제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기업의 입장에서는 일관성있는 對北經協戰略을 수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對北經協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핵문제해결 후에는 南北韓 經濟協力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政經分離의 原則이 천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北韓 全域에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면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와 청진자유무역항에 한해 제한적으로 政經分離의 原則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⁹⁾

VI. 結 論

豆滿江地域開發計劃에 대한 우리의 接近戰略은 UNDP가 주도하는 多者間協力方式과 두만강 접경국가간에 추진되고 있는 雙務的 協力方式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前者에 대해서는 中長期的 接近이 필요하다면 後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優先開發事業이란 관점에서 우리의 참여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接近戰略은 두만강접경국가들의 經濟特區에 대한 개발참여와 이를 포괄하는 廣域開發에의 참여를 적절히 조화시킨 종합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對內外的으로 극히 폐쇄적이고 경직된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이 豆滿江地域開發問題에 대해서는 상황변화에 적응하려는 비교적 기민한 變化의 자세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사실상 北韓이 平壤에서 멀리 떨어진 두만강유역의 羅津과 先鋒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外部충격의 완충과 흡수를 위한 制限的 開放이며, 이를 위한 일련의 關聯法規制定 및 改正은 일종의 초보적인 改革措置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만

9) 裴鍾烈, 「北韓의 羅津·先鋒 自由經濟貿易地帶開發計劃의 評價와 展望」, 東아시아經濟研究院, 羅津·先鋒自由經濟貿易地帶投資展望세미나資料集, 1993. 12. p.29.

약 북한이 나진과 선봉지역의 개방충격을 안심하고 흡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어느 정도 可視的 成果가 나타난다면 추가적인 開放과 改革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볼 때 北韓의 두만강지역개발, 특히 나진·선봉지역지구개발은 장차 북한의 정치, 경제적 변화를 가늠할 試金石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두만강지역개발의 多者間 또는 雙務的 協力關係의 진전은 南北韓關係 및 韓半島의 軍事的 不安要因을 개선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統一實現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UNDP의 두만강개발계획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北韓의 나진·선봉지역개발계획을 적극 지원하고, 中國과 北韓間의 철도항구 건설사업에도 참여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우리는 두만강에 접해 있는 중국의 연변과 러시아의 沿海州에도 적극 진출함으로써 對北韓經濟進出의 배후 거점으로 활용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새로운 자원공급지와 시장으로 개발하여 통일이후에는 韓半島經濟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전략적 포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南北韓經協과 統一問題와 연계한 豆滿江地域開發 참여는 통일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적 境界가 두만강에서 끝난다 하더라도 적어도 경제적 영향권을 延邊과 沿海州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大戰略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金成勳, 두만강 하구 삼각주 개발에 대한 동북아 각국의 대응전략과 남북한 경제협력, 두만강 자유무역지구 개발과 남북한경제협력에 관한 세미나 논문집, 한국무역협회, 중앙대 동북아연구소, 1991. 10.
- _____, 두만강 개발과 동북아경제권, 동북아경제와 중국·러시아·자루비노 개발 투자세미나 자료집, 한국동북아경제연구회, 1993. 6.
- 金成勳, 金泰弘, 沈義燮, 동북아경제권-21세기국가경영전략, 비봉출판사, 1992.
- 金泰弘, 훈춘 및 두만강 개발계획의 내용과 전망, 두만강 자유무역지구개발과 남북한 경제협력에 관한 세미나발표 논문집, 한국무역협회, 중앙대 동북아연구소. 1991. 10.
- _____, 두만강지역의 경제특구개발계획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 해외개발연구소 국제무역논총 제15호, 1992.
- 金 鐵, 琿春地區開發現狀及今後 設想, 琿春市 政府, 1993.
- 리유호, 동북아세아지역 나라들의 경제적 협조와 우리나라 선봉지구 경제무역지대 개발에 대하여, 장춘국제세미나 발표문, 1991. 12.
- 송희연, 동북아경제협력과 사회간접자본 투자전략, 두만강 자유무역지구개발과 남북한경제협력에 관한 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무역협회, 중앙대 동북아연구소, 1991. 10.
- 梁泰鎮, 韓國의 國境研究, 同和出版公社, 1989.
- 外務部, 두만강지역개발계획, 1993.
- 劉柏松, 「中·러 通商區鐵道琿春西驛長嶺子區間工程 可能性報告」 한국동북아경제연구회주최 東北亞經濟와 中國琿春·러시아 자루비노 開發投資세미나자료 (1993. 6. 29. 서울) pp. 23~45.
- 延河清,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제교류, 동북아 경제협력과 한반도에 관한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동북아경제연구회, 1991. 12.
- 陳才 袁樹人 丁西保, 東北亞地區合作與們江地區開發, 中國地理學會, 人文地理 第8卷, 199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황금의 삼각주 : 나진-선봉, 1993.
- 國際民間經濟協議會, 「豆滿江 河口 開發에 關한 中國側 構想」, 자료 91-20. 1992. 4.
- _____, 중국의 대소 국경무역 현황과 한국기업의 참여 가능성, 1991. 5.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과 전망, 1991. 12.

崔龍鶴·朴承憲, 東北亞金三角, 延邊人民出版社, 1991.

吉林省人民政府科學技術委員會, 「圖們江通海航行與對外開放研究文集」, 1990.

楊紀河決策諮詢事務所, 「建立延邊朝鮮族自治州 琿春經濟區的論證報告」, 1989. 11.

琿春經濟開發區總體規劃辦公室, 「東北的金三角」, 延邊人民出版社, 1990.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Vladivostok Meeting paper, 1992. 8. Yongpyong Meeting paper, 1993. 9.

UNIDO, Engineering Consulting Firms Assosiation of Japan, Preinvestment Study for the Establishment of A Free Economic Zone in Premorsky Region—Development Concept of Greater Vladivostok Free Economic Zone, Final Paper, 1991. 12.

UN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 Mission Report”, Paper to consultation with Prticipant Governments, Pyongyang, 16—18 October 1991.

豆滿江地域開發事業 推進을 위한 몇가지 提言

朴聖相(동아시아경제연구원장
전 한국은행총재)

目 次

I. 序 論

II. 北韓의 立場

III. 韓國의 立場

IV. 韓國政府가 해야 할 일

V. 企業의 對應方向

VI. 맺는말

I. 序 論

동북아시아지역의 낙후된 經濟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北韓, 中國, 러시아가 國境을 접하고 있으며, 經濟적으로 발전한 日本과 韓國과의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이 각광을 받고 推進하게 된 것이다.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을 통해서 中國의 연길·훈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北韓의 선봉·나진·청진을 잇는 自由經濟貿易地帶를 건설함으로써 中國은 經濟적으로 낙후한 東北 3省의 經濟發展을 기대할 수 있고 동해로 진출할 수 있는 自由港을 통해 한국과 일본과의 交易 擴大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러시아 역시 이 지역이 香港과 같이 발전하면 經濟적으로 낙후된 러시아 極東地域의 經濟發展을 기대함과 동시에 石油, 天然가스 등 自然資源 개발을 통한 러시아 經濟發展에 크게 貢獻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 역시 豆滿江地域에 설치될 自由經濟特區 發展을 통해서 기울어지고 있는 북한경제 전체에 活力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몽골 역시 러시아와의 과거 經濟的 紐帶를 끊고 두만강개발을 통한 동북아시아 經濟 活性化가 자국 經濟發展에 직접적으로 貢獻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은 長期的으로 이 지역을 香港형태의 完全 自由經濟地帶로 개발할 것을 指向하고 있다는 점에서 香港보다는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香港은 인근지역에 經濟적으로 先進한 나라가 없었으나 豆滿江經濟特區는 막강한 經濟력을 갖고있는 일본과 한국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中立을 지키는 UNDP가 豆滿江開發에 깊이 관여하고 또 이 지역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推進하고 있는 이유는 이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이 동북아의 落後된 經濟를 발전시킬 수 있는 中心的 役割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II. 北韓의 立場

북한으로서는 과거에 구소련의 政治的 支援과 경제적 유대와 원조에 의존하던 경제가 파탄에 직면한 반면 같은 社會主義 國家인 이웃 중국의 경제는 開放으로 과거 10여년간 高度 成長을 거듭하고 있어 상대적 빈곤도가 더해가는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래서 북한은 外國資本을 유치해서 경제발전을 하려고 중국과 같은 外資誘引 政策을 법적으로 마련해 보았으나 중국처럼 개방하지 않고는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1984년에 制定·施行된 合營法에 의한 外資誘致 政策이 실패로 끝난것이 그 예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중국과 같은 開放으로는 北韓體制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外國資本은 유치할 수 없어도 개방은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경제는 근 7년간 마이너스 成長으로 所得이 계속 떨어지고 工場은 原料不足과 機械 老朽化로 稼動率이 반감했으며, 따라서 북한주민을 위한 生活 必需品 조차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다. 기름부족은 경제활동 전분야에 걸쳐 制約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社會主義的 農業生産의 비능률과 肥料·農藥의 供給不足에 더하여 작년에는 冷害까지 겹쳐서 과거의 두끼먹기 운동에도 불구하고 두끼조차 먹기 어렵게 되었다는 소문도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北韓住民들이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탈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북한주민들의 不滿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실정 때문에 주민들을 외국인들과 격리할 수 있고 따라서 體制守護는 견고히 하면서도 외국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UNDP 主管의 豆滿江地域開發事業이 북한당국으로서는 한 탈출구를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와 같은 이유로 1992년 5월에 豆滿江流域開發事業에 개척적 역할을 했던 하와이 東西文化센터의 조이제 박사와 東北亞經濟發展會議에 참가했

던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대표 모두를 북한에 초청해서 회의를 주최했으며 일행을 두만강 自由經濟貿易地帶인 선봉·나진 그리고 두만강하구까지 안내해서 外國資本을 유치할 상세한 계획을 발표했던 것이다.

곧이어 이 自由經濟貿易地帶에는 ①招請狀만으로 비자없이 출입국이 가능하게 하고 ②工場敷地는 이미 정해져 있는 파격적으로 저렴한 賃賃料로 長期 賃賃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③韓國企業도 다른 외국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북한이 이와 같은 전에 없던 파격적 조치를 대담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內部的 體制維持 政策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外國投資家나 韓國 企業家와 技術者들이 先鋒·羅津地域 이외의 북한주민과는 접촉할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생각때문일 것이다.

북한당국이 극심한 外貨 不足難을 겪고 있으면서도 外貨加得에 가장 좋은 白頭山, 金剛山 觀光事業을 적극 허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북한의 체제수호에 대한 不安感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능하다.

요약하면 북한으로서는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이 첫째는 外國企業 投資誘致로 허물어져가는 경제를 소생시킬 수 있으며, 둘째는 정치적으로 북한주민을 계속해서 외국인과 특히, 南韓 企業人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절호의 사업일 것이다.

III. 韓國의 立場

한국으로서는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豆滿江地域開發事業이 경제적인 잇점도 갖추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비싼 勞賃과 비싼 工場敷地 그리고 비싼 金利때문에 제품의 원가가 國際 競爭力을 상실해서 공장을 동남아 각국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으로 이전, 투자하기를 원하는 輸出企業들이 많다.

이들 수출기업들이 두만강 북한측 自由經濟貿易地域에 투자하면 한국사람 특유의 근면하고 값싼 北韓 勞動力과 저렴한 工場부지 이용에 따른 生産原價가 절감될 수 있다. 이 때문에 製品의 國際 競爭力을 회복해서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을 이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言語障壁이 없다는 점에서는 동남아 각국이나 중국보다도 海外投資에 잇점이 있다.

둘째는 豆滿江地域 經濟開發事業地區는 북한땅 經濟特區에 기업투자가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두만강특구, 러시아의 두만강특구에 自由往來하고 장차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사업에 동참한 국가들에 속하는 방대한 背後地域의 經濟發展에 따른 輸出市場의 擴大 혜택을 볼 수 있게될 것이다.

셋째는 豆滿江地域開發事業이 성공하면 이 지역개발과 병행해서 아직도 미개발 상태에 있는 東北亞에 광범위하고 대량으로 존재하는 天然資源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필요로 하는 무진장의 천연가스와 원유를 포함한 資源의 共同開發에 참여하고 값싼 원자재 획득이 韓國經濟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북한은 天然가스와 原油輸送用 파이프라인이 두만강 자유경제특구가 있으므로해서 반대할 명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넷째는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을 통해서 自由經濟貿易特區는 비단 북한의 여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는 격리된 곳이라 할지라도 이 특구에 북한사람이 살

고 있고 그곳에 우리 企業人과 技術者가 같이 생활하면서 이 특구가 발전하면 북한은 그 다음지역을 경제특구로 설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많은 지역이 開放됨으로서 전면 개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988년 12월에 천진공단은 그 넓게 정리된 공장부지에 단 4개의 外國企業이 투자하고 있었으나 채 5년도 안된 1993년에 이미 그 광대한 공장부지의 부족으로 지금보다도 큰 공장부지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개방토록 할 수만 있으면 統一의 길은 멀지 않다고 생각할 때 두만강경제특구에 대한 南韓企業의 投資進出은 통일 의 씨앗이 될 수도있다고 느낀다.

다섯째, 북한의 모든 실정을 종합해 보면 南北韓의 통일은 금세기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 통일 이 이루어지면 豆滿江經濟特區에 투자한 生産工場과 社會間接資本은 결과적으로 통일된 조국의 국부에 속하고 企業人은 한국내에서 투자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 동남아나 중국에 투자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核問題가 解決되고 두만강자유경제특구에 韓國 企業이 투자하게 되면 거기에 부수되는 제반 협의사항이 발생할 것이므로 남북간의 대화와 이 지방에 대한 후술하는 사항들을 협의하게 됨으로 남북한의 대화는 과거에 유래없는 빈도와 豆滿江特區에 대한 投資, 交易 그리고 社會間接資本 投資에 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이다.

일곱째, 북한은 핵카드 없이는 앞으로 있게 될 南北頂上會談이나 미국 또는 일본과의 修交協商에서 별로 얻을 것이 없으리라는 점에서 난관에 부딪칠 것이지만 두만강자유경제특구에서는 체제에 대한 위협없이 한국 기업 뿐만 아니라 韓國企業의 進出 영향으로 외국인투자까지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核問題 解決에 積極적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南北韓 經濟協力은 두만강자유경제특구에 대한 투자부터 시작해서 통일 의 기반을 구축해 나감 이 옳다고 생각된다.

IV. 韓國政府가 해야 할 일

韓國政府로서는 豆滿江地域開發計劃에 참여함에 있어 UNDP에 협조한다는 뜻에서도 중국측과 러시아측의 두만강지역개발사업에도 지원태세를 갖추므로서 북한측을 자극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북한측 先鋒·羅津地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참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김정일 체제의 등장, 북한이 현재 처하고 있는 어려운 經濟事情 등을 감안할 때 南北關係는 필연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불과 6년전만해도 冷戰時代의 종말이 오고 동구라파 社會主義 國家들이 무너지고 소련이 여러 공화국으로 분열해서 러시아共和國이 탄생하리라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대변화가 일어났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獨逸이 통일할 수 있었던 것도 이상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崩壞에 따라 가능했던 것이지 서독이 통일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 단지 서독은 統一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도록 부단한 대비를 해왔다는 점이 높이 評價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는 經濟的 落後가 그 기본 원인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공산세계가 經濟的 繁榮과 그로인한 국민생활의 향상을 약속했으나 결과는 貧困의 平等이라는 惡循環의 연속때문에 무너진 것이다.

북한의 경제사정은 이대로는 好轉될 가능성은 없고 食糧難을 해결할 방법도 없다.

중국과 베트남도 경제때문에 開放政策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개방의 결과로 經濟發展이라는 대가가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 베트남과는 달리 개방으로 인한 體制崩壞 위험의식 때문에 全面的 開放은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중국과 베트남은 개방을 해도 그들의 體制維持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부강한, 분단된 부유 동족」이 없기 때문에 보다 과감하게 開放政策을 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즉, 아직 北韓住民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북한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잘살고 있는 남한이 있다는 것이 開放의 副作用을 우려하는 북한 당국자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韓國政府는 그 때를 대비하는 長短期 對策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북한의 현정세로 보아 갑작스럽게 닥쳐올지도 모르는 통일의 기회에 대비하는 방법의 하나로 豆滿江地域開發事業에 한국이 政府次元에서 깊이 간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羅津·先鋒 經濟特區는 남한의 企業人과 技術者 그리고 파견근무하는 회사원 등이 제한적이지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북한 땅이고 그곳 북한사람과 사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對應戰略의 하나로서 統一院 및 關係部處가 합동으로 「豆滿江地域開發事業團(가칭)」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차원의 동 사업단은 북한당국도 환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할 것이다.

최근의 국내 언론보도에 의하면 선봉·나진지역에 거주하는 黨性이 弱한 주민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대신 당에 충성하는 주민을 이 지역에 이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에 이와 같은 北韓의 動向은 경제회복에 대한 의욕을 豆滿江地域開發事業으로 실현해 보겠다는 의도의 발로로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核問題를 해결하기 전에는 북한측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을 위한 外國資本의 誘致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住民의 強制移住는 두만강개발을 핵개발보다 앞세우고 있는 징조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統一政策은 어디까지나 平和的 統一이다. 북한은 김일성 사후의 政治的 不安期에 처해 있다. 그 때문에 어떠한 통일을 위한 과잉행동도 금물이라는 것이 이미 중론으로 되고 있다.

정부는 한쪽으로는 豆滿江地域開發事業團을 만들고 한쪽으로는 미국과같이 핵개발을 중지시키도록 설득하는 兩面作戰을 펴므로서 북한으로 하여금 兩者擇一의 처지에서 두만강지역개발과 外交的 實利를 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선봉·나진에 南韓企業이 진출해서 輸出品 生産活動을 하기에는 기업 생산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동남아나 중국에 진출하기 보다 양호한 해외투자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사업단은 이 지역 진출을 위한 다양한 特別 支援政策을 수립해 두어야 할 것이다.

특별 지원대책으로는 ①현재의 間接交易 方式을 直接交易으로 전환하는 문제 ②기업 생산활동을 위한 社會間接施設 擴充 ③두만강개발지역에 대한 自由往來制度 ④개인기업의 이 지역에 대한 投資支援制度 ⑤統一基金의 확충을 통한 UNDP 개발계획 추진 지원대책 강구 ⑥남북한 清算計定 설치문제 강구 ⑦豆滿江開發銀行(상업은행) 설립 협조 : UNDP 계획사업 ⑧정부차원의 東北亞開發銀行 설립추진 등을 들 수 있겠다.

물론 이와 같은 支援對策들은 미리 준비해 놓고 핵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하자는 제안들이다.

이와 같은 우리정부의 豆滿江地域開發計劃 支援을 위한 사업단의 구성 자체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북한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때문에 核問題 해결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間接交易을 직접으로 바꿈으로서 通商交易이 증진될 이점은 있어도 북한체제에 대한 위협발생 이유는 없기 때문에 타협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남북한 中央銀行間 清算計定の 개설은 남북한 교역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 청산계정은 外貨不足에 대한 救濟手段으로서 처음에는 두만강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한국으로부터의 原料, 建設機資材 구입용으로 사용되어 북한이 부채증가로 나타날 것이지만 공장 가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출로 결제가 될 것이고 일정한 한도내 차입방식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정부의 無償援助보다 상호간 체면유지라는 점에서 양측 공히 정치적 부담을 줄여 줄 것이다.

현재 UNDP는 민간차원의 상업은행 형식으로 豆滿江開發銀行을 설립하는 방안을 구상중에 있다. 두만강지역개발지구내에 수출입신용장, 여행자수표, 외화매매 등 國際外換業務를 취급할 수 있어야 외국기업 투자진출이 가능해진다. 특히 외국기업이 진출해도 羅津·先鋒 自由經濟特區에서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 그 지방에서 조달하는 용역조달과 물자구입 자금의 차입이 어려우면 외국기업 진출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UNDP가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개발은행 설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정부로서는 비단 두만강개발사업중 북한측의 自由經濟貿易特區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당사국 이외에도 관심인 높은 일본, 미국과도 협조한다는 뜻에서 東北亞 전체의 經濟發展에 필요한 정부차원의 「東北亞開發銀行」 설립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아시아開發銀行」은 너무나 광대한 아시아 전체의 개발금융을 담당하고 있어 동북아까지 개발금융 확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동유럽국가들이 共產經濟體制를 포기한 후 資本主義 市場經濟體制로 전환함에 따라 유럽開發銀行을 설립한 예를 동북아 지역에 적용함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V. 企業의 對應方向

기업도 豆滿江地域開發計劃에 참여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수출기업중 勞動集約的 工業들은 노임이 싸고 땅값이 싼 동남아 각국으로 투자 진출했고 중국과 國交正常化 후에는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경향마저 일어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이 先鋒·羅津 自由經濟特區에 투자진출하는 것이 중국에 가는 것보다는 言語 障壁이 없다는 점에서도 유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적 원칙에 따른 투자전략을 기업 스스로가 세워야 된다고 생각된다. 日本企業들은 이미 수차례 두만강 선봉·나진 경제특구에 가서 現地調査를 실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전경련,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회가 합동으로 「豆滿江沿岸開發事業團(가칭)」을 만들고 다음과 같은 기업투자에 관한 사전 연구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①기업적 원칙에 입각해서 어떤 사업이 地域投資에 적합한가
- ②원료, 동력, 교통, 통신이 共同投資에 지장이 없겠는가
- ③融資는 가능한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는가
- ④投資規模는
- ⑤투자 적지는 북한이 계획한 공장 입지대로 할 것인가
- ⑥工場用地 건설을 국내 建設業에서 맡을 수 있겠는가

정부 차원의 豆滿江地域開發事業團과 민간차원의 동 사업단은 북한측 자유 경제특구에만 한정하지 말고 두만강 전체 개발사업에 동참함으로써 통일이된 21세기의 東北亞 經濟發展이 가져다 줄 광대한 시장과 자원에 눈을 돌려 긴장대를 내다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만이 육로로 釜山, 서울, 평양, 北京,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있다. 통일이 되면 부산에서 동북아 전역으로, 실크로드로 중동으로, 시

베리아 철도로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에 육로로 차창밖을 구경하며 갈 수가 있게 될 그날을 위해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VI. 맺는말

— 統一 政策的 次元에서 우리 政府의 對應對策 —

두만강지역개발사업에 대한 政府의 統一 政策的 次元에서의 대응대책들은 이미 여러 각도로 이 논문에서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체제수호라는 일념에서 核問題, 經濟問題 등을 벼랑으로 끌고 갔다. 김일성의 사망은 이 두가지 난제에다 정치적 불안 문제를 하나더 추가한 것이 되었다.

김일성도 해결할 수 없던 현 난제들을 김정일이 정치적 불안정을 극복해 나가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 危機局面으로 줄다름 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정일이 앞으로 경제난의 심화로 北韓住民의 生活이 더욱더 악화되어도 전면개방으로 경제를 회복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核을 계속 개발하지 않고는 미국과의 協商카드가 없어질 것이고 核개발을 계속하면 UN 제재를 불러 올 것이 확실하다. 전쟁의 위험조차 내포하고 있는 위험한 문제이다.

經濟事情은 핵개발을 중지하고 豆滿江地域開發에 한국을 포함한 외국자본을 도입해야 하는데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두만강 자유경제특구에 진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때문에 北韓經濟는 수렁으로 계속 빠져 들 수 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만 중지하면 豆滿江 自由經濟特區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하겠다

는 의지를 보다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 방법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 차원의 豆滿江地域開發事業團의 구성과 民間次元의 사업단을 구성케하고 이들 사업조사단으로 하여금 핵문제 해결전에라도 파견·조사케 하는 등 핵문제만 해결하면 즉각 투자할 준비를 갖춘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함이 가장 效果的이라고 생각된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카드를 포기하면 經濟的 支援이 체제의 위협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긴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남북간의 經濟的 隔差가 너무 크기때문에 북한으로서는 體制 維持를 위해서 북한주민이 외국인 특히 한국 사람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때문에 離散家族 相逢問題, 金剛山 觀光事業 등 북한에 경제적으로 이로운 모든 제안을 거부해 온 전례에 비추어 豆滿江 自由經濟特區는 북한주민과는 격리할 수 있는 북한 영토의 일부나마 첫 개방을 하게 될 것임을 留念해야 할 것이다.

두만강지역개발계획 추진현황

1994년 9월 일 인쇄
1994년 9월 일 발행

발행처 통일원 교류협력국
☎ 738-7776, 722-8910
인쇄처 국제교역문화사

통협 94-8-32 <비매품>

